

# 그귀한 야생

칭하이 무상사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화합, 평화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삽니다.”

~ 피투

## 『고귀한 야생』 독자 서평

**페터 바이다스/ 국제도서전 회의 의장 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1975-2000) 감독:** 나 개인적으로는 지구에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며, 모든 생물, 식물까지 우리 형제자매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는 우리 어머니이며 우리의 기반이다. 지구에서 나온 우리는 다시 지구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생명과 지구를 매우 숭배해야 하는 것이며, 이런 책들은 도움이 된다. 이 책의 삽화 속에는 멋진 감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이 책이 폭넓은 청중과 많은 행복한 애독자들에게 읽혔으면 한다.

**박소연/ 한국 최대 동물 보호 단체 CARE 회장:** 이 책은 작은 동물들이 서로를 향한 감정을 갖고 있고 이름까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는 인간만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책에서는 동물들도 이름을 갖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가 이 점을 알려 줘서 매우 행복하고 또 감사한다.

**이바 벨리치카/ 캐나다 몬트리올 『조르니스타』 신문 편집장:** 이 책을 열한 살짜리 내 딸 야나에게 처음 읽어 줬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딸아이는 그 사진들을 보고 아주 좋아했다. 또 책의 내용도 아주 좋아했다.

칭하이 스승님이 어떻게 이런 책을 만들 시간을 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내용이 풍성하니까 말이다. 그런 사진과 그림을 보면 정말이지 누가 그렇게 전문가답게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책은 진정으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에 생각한 적이 없었던 자연의 심오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다.

칭하이 스승님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그녀를 통해 좀더 많은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어린 나이의 어린이들과 이 정보를 나누길 제안한다.

**손지영/ 한국 서울 포곡도서관 사서:** 사서인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 책의 경우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저자가 책을 만들면서 쏟아 부은 놀라울 정도의 노고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림과 글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예술적이라고 느꼈다.

또한 책의 내용은 야생 동물의 고귀함과 이전까지 몰랐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도 알려 줬다.

**김영규/ 한국 지방병무청장:** 얼마 전에 『고귀한 야생』을 읽었는데 이 책이 아마존닷컴에서 베스트셀러 1위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고,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성과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동물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지만 이 책을 통해 동물 세계도 감성을 가진 하나의 세계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동물을 지배한다거나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이 책의 저자이신 칭하이 무상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책이 한국어로 빨리 번역돼 많은 사람에게 읽히길 바란다.

**제니 타마스/ 캐나다 밴쿠버 '회색 이국조 보호소' 책임자:** 대단히 멋진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준다. 그림들도 멋지고 책을 훑어보면 따뜻한 느낌이 든다. 신의 작은 피조물인 이들 하나하나가 매우 섬세하며, 우리는 존경심을 갖고 그들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놀라운 책은 그 점을 보여 준다.

**쉬 이사/ 유럽 행정부 동부 지역:** 그녀의 책은 아주 순수한 대자연의 진실하고 때 묻지 않은 환경 속에서 야생 동물들과 나눈 교류에 대해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체험과 더불어 책에는 한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녀의 말을 인용한다. 그녀는 다른 모든 곳이 그러하듯 동물 세계도 우리처럼 몸집은 상관없이 없고 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 개인적으로도 똑같이 여기고 결론에 동의한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의 경우,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고 서로 교류하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와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살아 있는 개체임을 느끼게 해준다. 이른바 다른 생명체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란 출판업자:** 아주 좋은 책이며 잘 만들어졌다. 디자인은 완벽하고 문장은 읽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듯하다. 출판업자인 내가 보기엔 배울 만한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된다. 특히 디자인과 이 책을 준비한 과정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이스라엘 독자:** 이 그림들은 신, 어쩌면 최고의 스승과 직접 연결시켜 준다. 책을 좌르르 넘기면서 보는 건 순수한 즐거움이다. 일종의 명상과 같다. 이 놀라운 사진들을 보라. 이 세상에 자연과 같은 것은 없으며 그건 복제할 수도 없다. 정말이지 이 책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한국 독자:** 책을 펼쳤을 때 생명체에 대한 저자의 따뜻하고 세심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며 큰 감동을 받았다.



**이스라엘 독자:** 이 사진들은 전문가의 솜씨이다. 동물들을 따라다니면서 딱 맞는 시간에 제대로 된 장면을 포착하는 건 굉장히 일이 많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 스승님이 정말 동물과 소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 모르는 점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을 보여 준다. 진짜 놀랍기 그지없다! 진정으로 동물과 연결돼 그들이 하려는 말에 귀 기울이고 우리 인간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으로 동물과 진짜 연결되는 일은 스승님말고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나는 이 책이 우리와 자연을 연결시켜 주며, 만물 동일체와 신의 뜻, 가장 작은 존재부터 인간, 그 외 다른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존재하는 생명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포야저우/ 타이베이 시의회 의원:** 『고귀한 야생』은 인간과 다른 모든 존재가 지구에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스승님이 줄곧 채식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셨다는 점이다. 과거에 나는 채식주의 기본적으로 건강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채식주의 우리 환경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많이 이해하게 됐다. 또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도 채식주의 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실감하고 있다. 가축과 동물에 대한 살생을 피하는 채식주의 평화를 증진하고 서로를 해치지 않는 길이자 더불어 살아가기를 위한 일종의 평화 문화이다. 나는 스승님을 매우 존경하며, 그분의 본보기를 따라 이상을 실천하고 싶다. 다들 만물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독자:** 이 책에는 백조 부부인 피투와 사이사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나는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이 인간과 똑같다고 느꼈다. 피투가 동지를 따뜻하게 만들고자 자기 깃털을 뽑아 바닥에 까는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피투는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은 채 아이들을 보살핀다. 인간과 동물 간의 말 없는 소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또한 동물도 고귀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을 깨닫고 감동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사랑으로 가득 찬 지도이다.

**베르나르 보르데나브/ 사진 작가:** 이런 사진들은 그 자체가 말을 한다고 생각되며, 아주 필요하고 유용한 한 가지를 사람들에게 말해 준다. 즉 자연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조차 언제나 자연 문제와 동물, 그 외 모든 것에 대해 의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이 대단히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카틀린 호건/ 아일랜드 독자:** 영적 지도자인 칭하이 스승님의 『고귀한 야생』은 아주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구성돼 있어 풍경과 호수, 나무, 백조, 오리가 정말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책은 모든 생명이 소중하기에 크건 작건, 길들여졌건 아니건, 그들 하나하나가 특별한 신의 피조물이기에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보호하고 보전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멜리사 카탈린/ 아일랜드 독자:** 이 책은 내 삶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해준다. 때때로 우리는 물질만을 보고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 나무, 동물 등 우리 주변을 보지 않는다.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겐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하다.

# 고귀한 야생



칭하이 무상사





# 머리말

어디나 그렇듯이 동물의 왕국에서도 몸집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덕성이 중요합니다.

그런 한 예로 내가 발견한 것은, 자그마한 다람쥐는 개별 이름이 있지만 오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다람쥐가 오리보다 NQ(Noble Quality: 고귀한 품성)가 높아서 그럴 것입니다.

또 어떤 동물종의 NQ가 9% 이상이면 고유한 이름을 가질 자격이 저절로 주어진다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점에서 인간은 더 많은 특권을 가진 셈입니다.)

전반적인 참고가 되도록 NQ 지수를 일부 소개합니다.

소 = 40%      새들 중 일부 = 30%

코끼리 = 30%      물닭 = 10%

돼지 = 30%      비버 = 10%

사슴 = 20%      백조 = 20%

개 = 30%      기러기 = 20%

독수리 = 3%      오랑우탄 = 20%

다람쥐 = 10%      호랑이 = 4%

오리 = 8%      사자 = 3%

인간:

상위 = 90% (소수)

하위 = 3% (다수)

평균 = 10% (다수)

또한 나는 동물의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 주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들 종 위원회에서 이름을 물려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백조는 성년이 되기 전 두 살 무렵에 이름을 ‘언계’ 되며, 기러기도 그렇습니다. 비버나 다람쥐의 경우엔 한 살가량 됐을 때 이름이 생깁니다.



같은 종에서도 어떤 동물은 남들보다 NQ가 더 높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암컷 백조인 피투(Pitu)는 30%의 NQ를 가졌고

암컷 백조인 지나(Gina)는 25%의 NQ를 가졌습니다.

인간의 경우만 NQ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심을 계발할 수 있는 조건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나 존재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풀어야 할 다양한 상황을 겪을 기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 나도 이런 사실을 발견하곤 놀랐습니다! 이 물질세계에도 신기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시간을 가지고 조사해 볼 만합니다.

또 다른 사실은, 일반적으로 암컷의 NQ가 같은 종의 수컷보다 1, 2%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모성(母性)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 많이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NQ’는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더 높아집니다.





나는 이런 정보를 알게 되어 매우 영광스러웠습니다. 이는 내가 애써 알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야생 동물과의 우정이 깊어지면서 저절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일단 일부 동물의 정보를 알게 되자 다른 동물종에 관한 것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 관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일부 동물 친구들에 관한 지식을 다소나마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언어의 장벽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탓에 그들 중 일부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학대받고 잊혀졌습니다.

내가 그들한테서 전해 받은 훨씬 많은 내용을 글로 옮긴다면 여러 권의 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나 자신과 관련되거나 내 '일' 때문에 접촉해야 하는 다른 이들과 관련된 것이어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나는 동물 친구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서 흥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와 행복 속에 사랑받고 축복받기를 기원합니다.

추신: 나는 여기에 실린 모든 사진을 사랑합니다. 그중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설명을 붙이도록 남겨 두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뿐 아니라 사진도 즐겁게 감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진들은 실제 있었던 일과 정경을 담은 것으로, 아주 귀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도 있고 찍는 데 몇 시간 혹은 며칠씩 걸린 사진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깊은 물이나 뺨뺨한 숲을 헤치고 들어가 (비디오와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 감사의 말

이 책은 야생의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나 자신도 ‘야생’처럼 느껴집니다. 나에 관한 책은 아니지만 한 번씩 내 사진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여러분을 위해 내 모습을 찍어 준 다음의 조수들에게 감사합니다.

Thomas Larning

T. Hao

T. June

Steve Andreas

Jus-se

T. Khai



그 외 사진과 풍경에서는 이 나이 든 여인을 볼 수 없지만, 사실 나는 항상 카메라 뒤쪽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지 않은 주민과 나그네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큰 물고기, 개구리, 거북이, 토끼, 부엉이, 비둘기, 온갖 새들, 귀뚜라미, 달팽이, 사슴 등이 그들이지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해준 그들 모두의 사랑과 성원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나는 언제까지라도 사진을 찍고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들 모두가 정말 매혹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텐트를 치고 있으면 근처의 개구리들이 밤새도록 합창을 하는데, 새벽까지 혹은 더 늦게까지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며 끊임없이 노래를 부릅니다. 마치 완벽한 교향악단의 공연이 무료로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런 웅장한 목소리와 왕성한 에너지를 주는 걸까요? 몸집도 그렇게 작는데 말이에요!

어쩌면 나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력을 조금 발휘하거나 직접 나가서 사진을 찍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특별한 책을 쓰는 일이 좋습니다.

나는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과 다른 모든 존재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가 찍은 모든 풍경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즐기게 될 그 느낌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다음 친구들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지나(Gina)     모루웨이(Moruwey)

피투(Pitu)     사이사이(Sai Sai)



너희의 사랑과 협조에 감사해.

너희에 대해, 심지어 사적인 거주지까지 사진을 찍고 이 책을 쓰도록 허락해 줘서 고마워.

너희는 멀리서 와서  
내 친구가 되었고  
조수 노릇도 자청해 주었지!  
사랑으로 위로해 주고  
소중한 지혜도 나눠 주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너희 존재에서 발산되는 사랑을  
느낄 수 있길 바랄 뿐이야.  
너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그 선물을  
언제나 소중히 여길게.  
너희가 떠나기로 선택하든  
머물기로 선택하든 간에. (물론 더 좋은 건 이쪽이지만.)

또한 마을 안팎과 그 주변에 사는 다른 모든 이에게도 사랑을 담아 바칩니다.

자기 아이에게 줄 빵을 얻으려고 울타리를 뛰어넘은 사슴  
내가 간식을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언제나 환영의 노래를 부르며  
나를 맞이하러 달려오는 이웃집 말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온 세상과도 맞서 싸울 독신 엄마 오리  
수줍음이 많아 카메라를 피하는 토끼  
두려움을 이기고 (내게 다가와서) 아기들에게 줄 빵을 가져가는 용감한 물닭

늘 주변의 모든 이와 먹을 것을 나누려는 갈매기  
아름다운 관현악단처럼 멋진 가락으로 서로 박자를 맞춰 노래하는 개구리  
내게 신뢰를 보여 준 비버  
생명의 위협도 무릅쓴 채 아이들을 보호하는 용감한 기러기  
우리 집에 기쁨과 음악을 선사하는 모든 새들  
우리 집 뜰을 한가로이 산책하는 거북이  
여기저기, 곳곳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나의 모든 사랑과 찬미를 바칩니다.

너희 각자의 내면에 자리한 사랑 때문에 너희 앞에선 사랑만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내가 외국에서 선행사를 치르는 동안 떠나간 작은 아기 백조에게:

돌아왔을 때 정말이지 “보고 싶었다.”고 말해 주고 싶었는데. 너의 언니, 오빠들처럼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너를 보호해 주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구나.

물론 네가 천국에서 더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난 아직 초연하고 담담하다는 말은 못 하겠어.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부분적으로는 너무 연약해서 이 혹독한 야생 세계에선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 백조, 널 위한 것이기도 하단다.

너를 먹여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자라서 마음껏 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고향 안아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절대 그러지 않으리란 걸 너도 알겠지만.

너의 부드러운 깃털을 어루만져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내가 결코 그러지 않으리란 걸 알지만.

난 너의 자유로운 야성을 존중하고

우리 둘 사이엔 무조건적인 유대감이 존재하니까.

네 부모가 너를 사랑하듯 사랑해 주고 싶었어.

그냥 돌봐 주다가 보내 주려고 했지. 하지만 오, 그렇게 빨리, 그렇게 어린 나이에 보내고 싶진 않았어. 나는 하늘이 정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또 하늘이 너를 '이미 정해진 대로' 맞이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내 아이를 잃은 듯 아직도 네가 그립단다. 너는 너무나 작고 의지할 데 없었지. 이름도 채 얻지 못했는데…….

잘 가거라, 아가야. 정말로 사랑해. 저 위에서 너도 알고 있겠지. 너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내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보이니?

나는 너를 '사랑 공주'로 기억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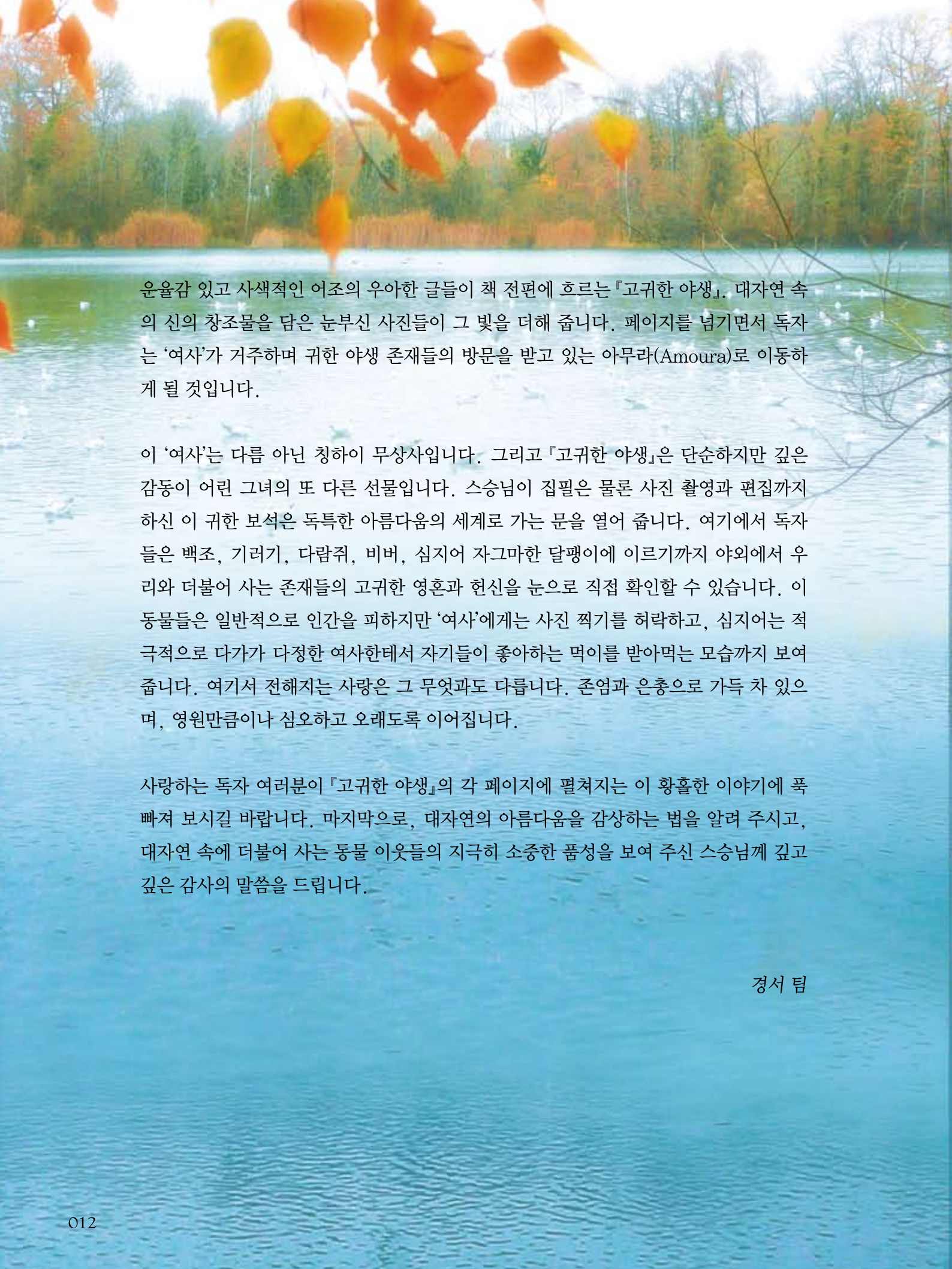
그게 바로 너니까.

'너희' 동물 모두가 '사랑' 그 자체이니까.

너희 모두를 가슴 깊이 사랑한다.

그 깊이는 오직 나만 알겠지!

칭하이 무상사

A scenic view of a lake with autumn foliage in the foreground and background. The water is calm and reflects the surrounding trees. In the foreground, there are several large, vibrant orange and yellow leaves hanging from a branch, partially obscuring the view. The background shows a dense forest of trees with varying shades of green and yellow, suggesting an autumn setting. The sky is overcast and gr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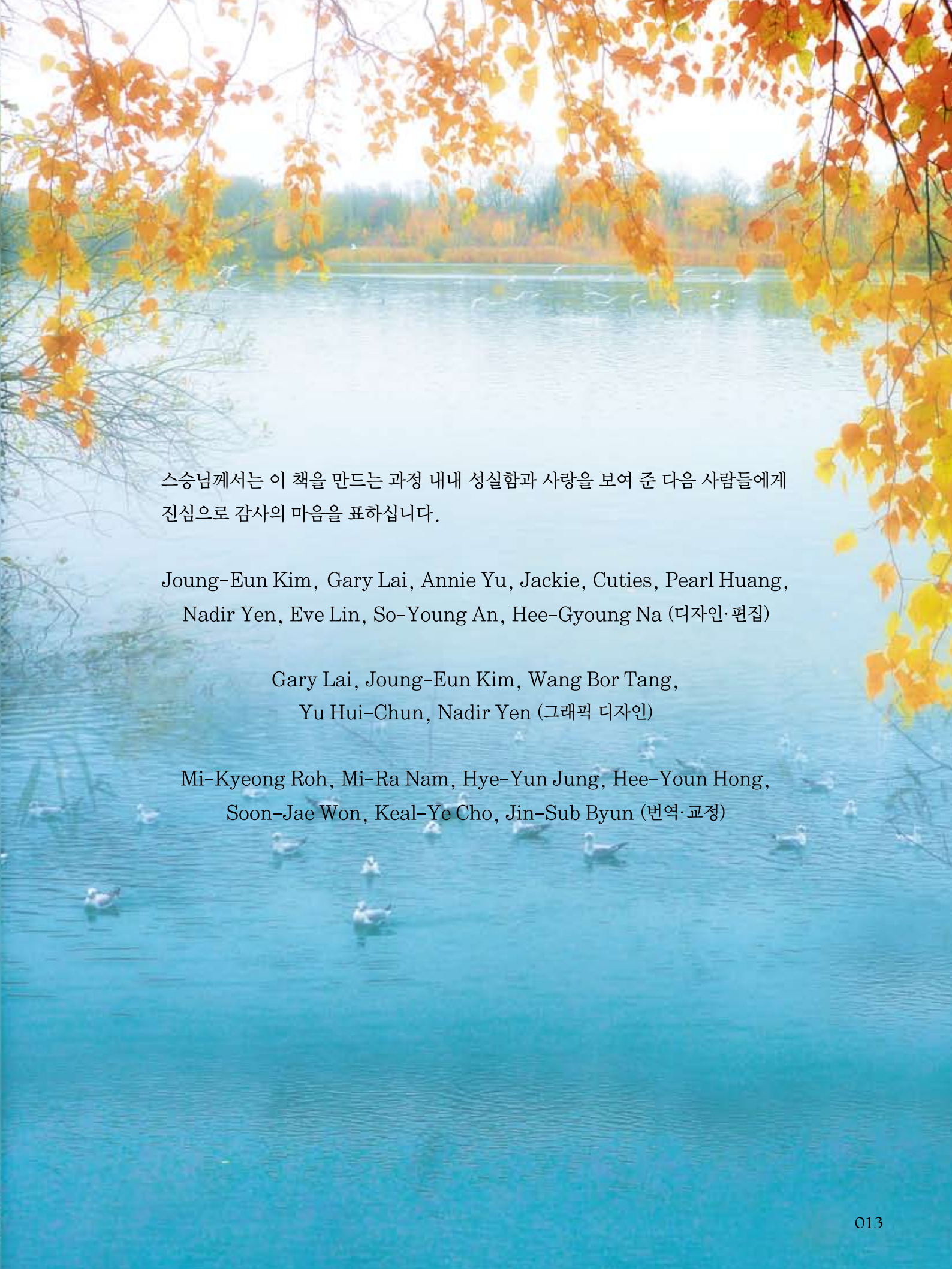
운율감 있고 사색적인 어조의 우아한 글들이 책 전편에 흐르는 『고귀한 야생』. 대자연 속의 신의 창조물을 담은 눈부신 사진들이 그 빛을 더해 줍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독자는 ‘여사’가 거주하며 귀한 야생 존재들의 방문을 받고 있는 아무라(Amoura)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사’는 다름 아닌 칭하이 무상사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야생』은 단순하지만 깊은 감동이 어린 그녀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스승님이 집필은 물론 사진 촬영과 편집까지 하신 이 귀한 보석은 독특한 아름다움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 줍니다. 여기에서 독자들은 백조, 기러기, 다람쥐, 비버, 심지어 자그마한 달팽이에 이르기까지 야외에서 우리와 더불어 사는 존재들의 고귀한 영혼과 현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피하지만 ‘여사’에게는 사진 찍기를 허락하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다가가 다정한 여사한테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전해지는 사랑은 그 무엇과도 다릅니다. 존엄과 은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영원만큼이나 심오하고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이 『고귀한 야생』의 각 페이지에 펼쳐지는 이 황홀한 이야기에 푹 빠져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법을 알려 주시고, 대자연 속에 더불어 사는 동물 이웃들의 지극히 소중한 품성을 보여 주신 스승님께 깊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서 팀





스승님께서서는 이 책을 만드는 과정 내내 성실함과 사랑을 보여 준 다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십니다.

Joung-Eun Kim, Gary Lai, Annie Yu, Jackie, Cuties, Pearl Huang,  
Nadir Yen, Eve Lin, So-Young An, Hee-Gyoung Na (디자인·편집)

Gary Lai, Joung-Eun Kim, Wang Bor Tang,  
Yu Hui-Chun, Nadir Yen (그래픽 디자인)

Mi-Kyeong Roh, Mi-Ra Nam, Hye-Yun Jung, Hee-Youn Hong,  
Soon-Jae Won, Keal-Ye Cho, Jin-Sub Byun (번역·교정)

## 칭하이 무상사 약력

칭하이 무상사는 중부 어울락(베트남)에서 태어났습니다. 칭하이 스승님은 18세에 학업을 위해 영국으로 떠났으며, 후에 프랑스와 독일에서 머물렀습니다. 독일에서는 적십자사에서 일했고 독일인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2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나, 어린 시절부터 내내 품고 있던 이상을 실현하고자 남편의 축복 속에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여러 나라를 거친 고된 순례는 히말라야에서 살아 있는 완벽한 스승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칭하이 스승님은 성스러운 내면의 빛과 소리를 전수받았으며, 이후 이를 관음법문(觀音法門)이라 칭했습니다. 한동안 수행에 정진한 후 그녀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신실한 구도자들의 갈망을 충족시켜 주고자 칭하이 무상사는 다양한 국적과 종교,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음법문이라는 명상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그녀의 메시지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영적 해탈과 희망을 가져다주며, 모든 이에게 진선미(眞善美)의 삶을 살도록 일깨워 줍니다.

## 차례

- 01 사랑의 마을: 아무라(Amoura)
- 23 탐험대: 마을의 여사
- 26 오리: 단순하고 다정한 친구
- 88 다람쥐: 대지의 파종자
- 104 말: 좋은 이웃, 달갑지 않은 것들을 막아 주는 존재
- 106 캐나다 황실 기러기
- 151 물닭: 수줍은 은둔자
- 189 빨논병아리: 은둔 잠수부
- 206 흑고니: 호수의 '주인공'

367 작은 기적: 소중한 정원사

375 비버: 댐 건설자

386 물고기: 신비한 존재

393 갈매기:  
나누고 보살피는……  
붙임성 있는 나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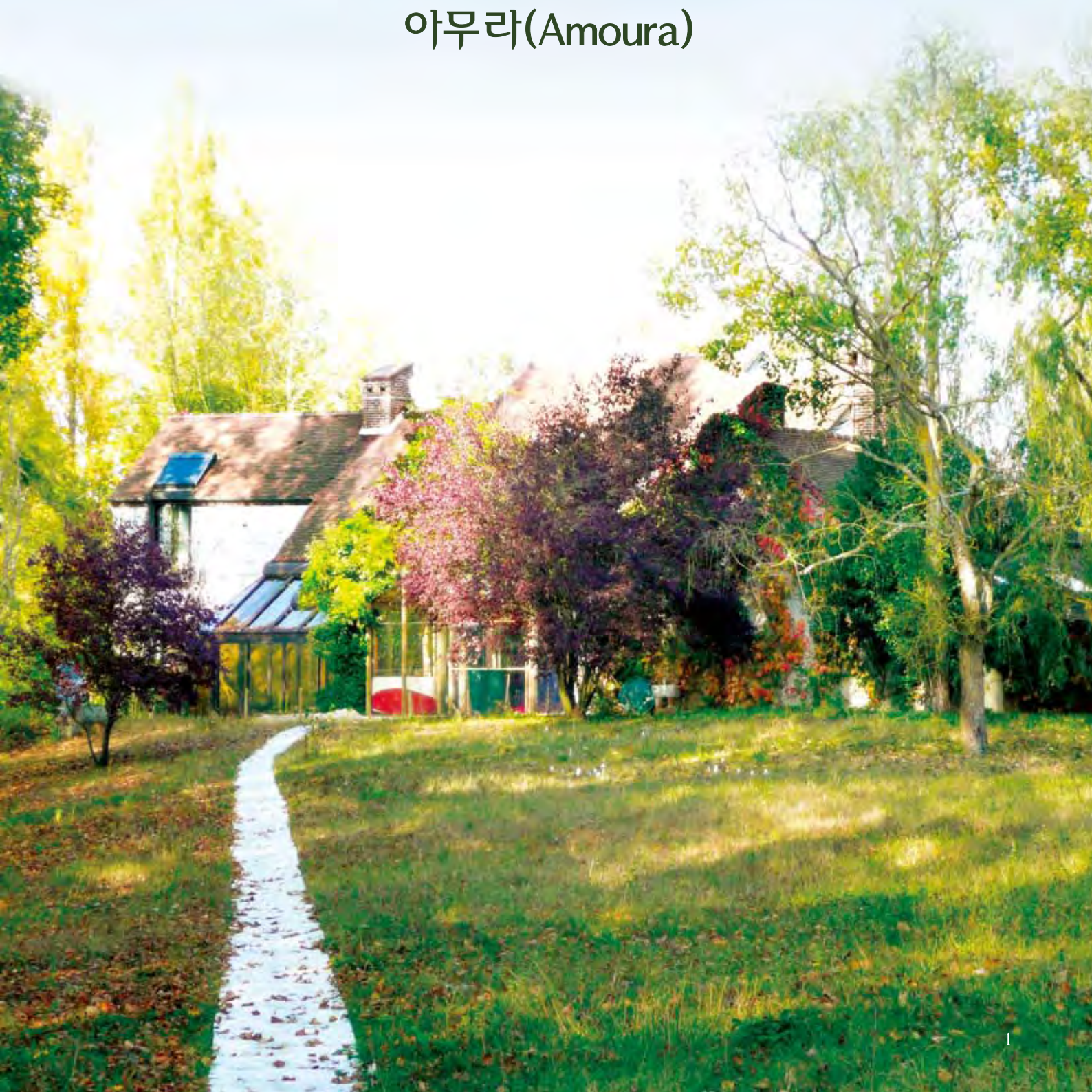
399 정원의 새들:  
행운도 가져다준다는  
기쁨 배달부!

411 그 밖의 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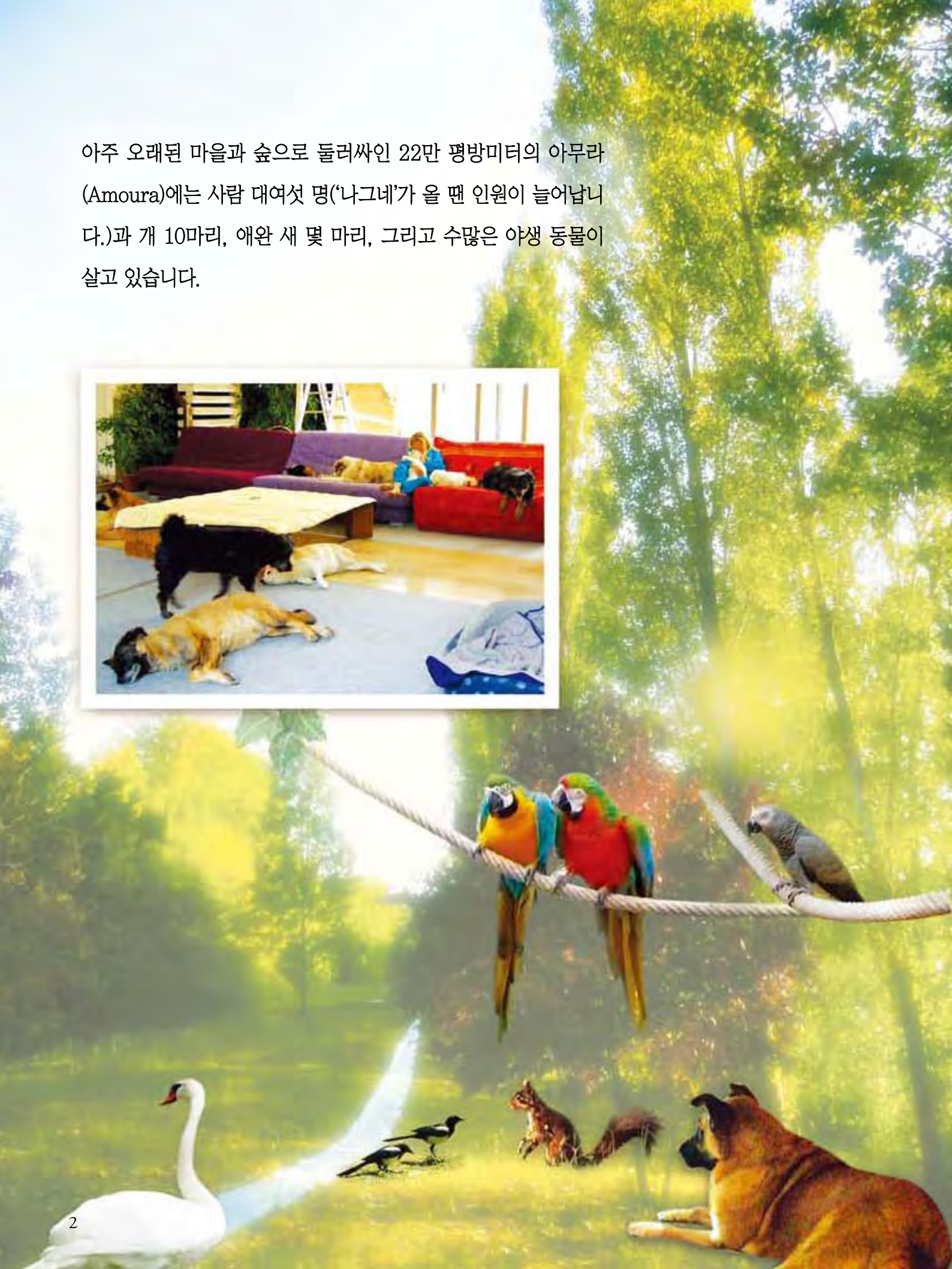
445 우주적 연결

영적 스승이자 예술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재된 영성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은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포모사'는 섬나라와 그 국민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을 쓰면 그 나라와 국민의 영성이 고양되고 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 사랑의 마을 아무라(Amoura)



아주 오래된 마을과 숲으로 둘러싸인 22만 평방미터의 아무라 (Amoura)에는 사람 대여섯 명(“나그네”가 올 땐 인원이 늘어납니다.)과 개 10마리, 애완 새 몇 마리, 그리고 수많은 야생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오리로(路)



마을의 정원

이 마을에는 마을의 절반을 차지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마을의 야생 동물 대부분은 이 호수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백조, 기러기, 오리, 물닭, 다람쥐, 비버, 토끼, 거북이, 쥐, 개구리, 그리고 당연히 물고기도 있는데, 이들은 호수 주변이나 호수 안에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집



마을의 동식물

사슴과 다른 동물들, 이를테면 왜가리, 부엉이, 갈매기는 마을 주민은 아니지만 자주 찾아 오고 늘 환대를 받습니다.



마을 주민의 집으로 가는 계단

다람쥐와 토끼, 온갖 새들, 아기 돼지 두 마리에 이르기까지 다들 마을 주변의 숲을 좋아합니다. 이 마을은 수마일이나 뻗어 있는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승마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을 주민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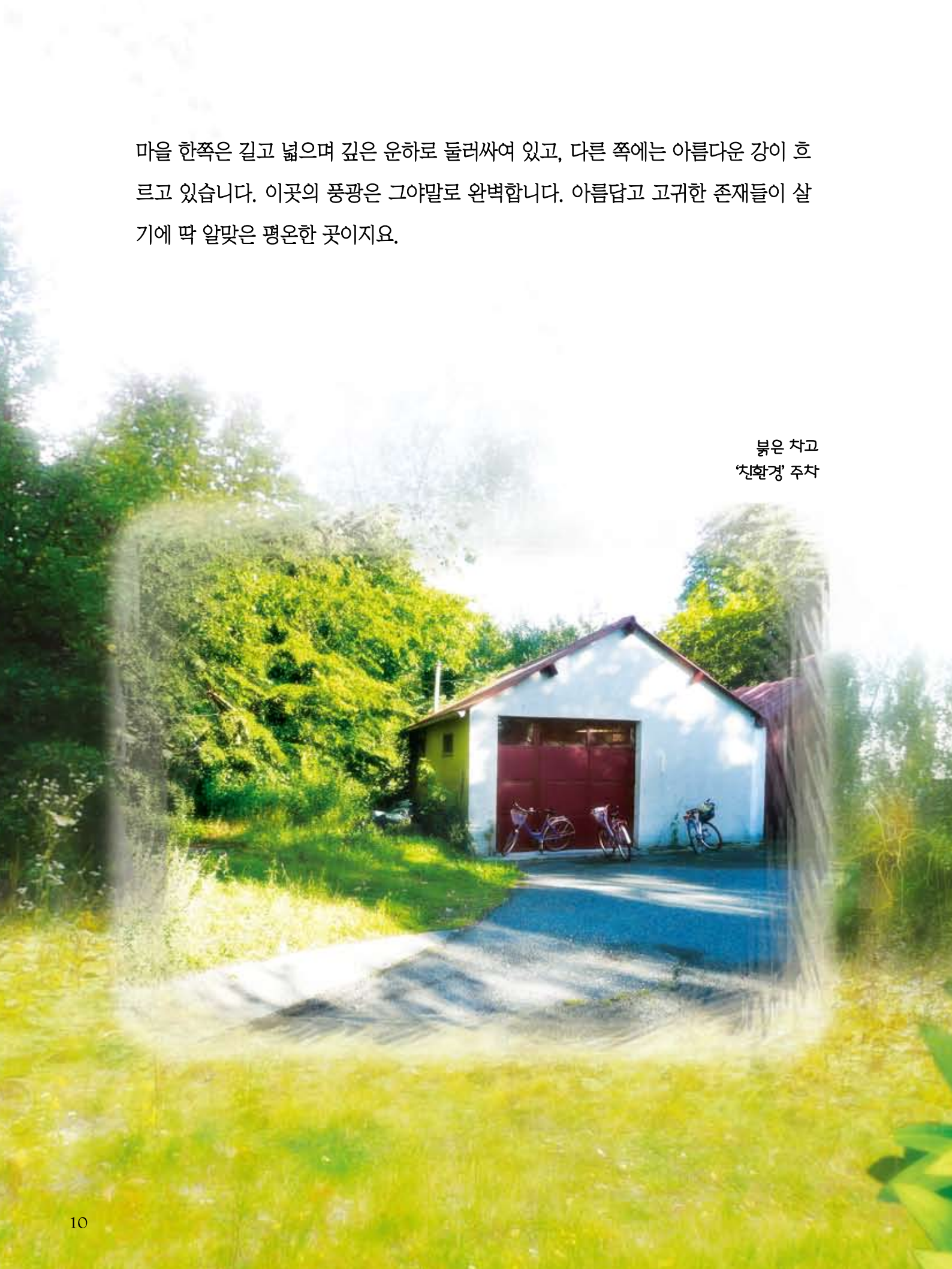


아무라의 자연미

주말이면 대개 말 탄 사람들과 땅을 구르며 발자국을 남기는 그들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도 여기 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대자연의 품에 안기곤 합니다.

마을 한쪽은 길고 넓으며 깊은 운하로 둘러싸여 있고, 다른 쪽에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의 풍광은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들이 살기에 딱 알맞은 평온한 곳이지요.

붉은 차고  
'친환경' 주차





아무라에서의 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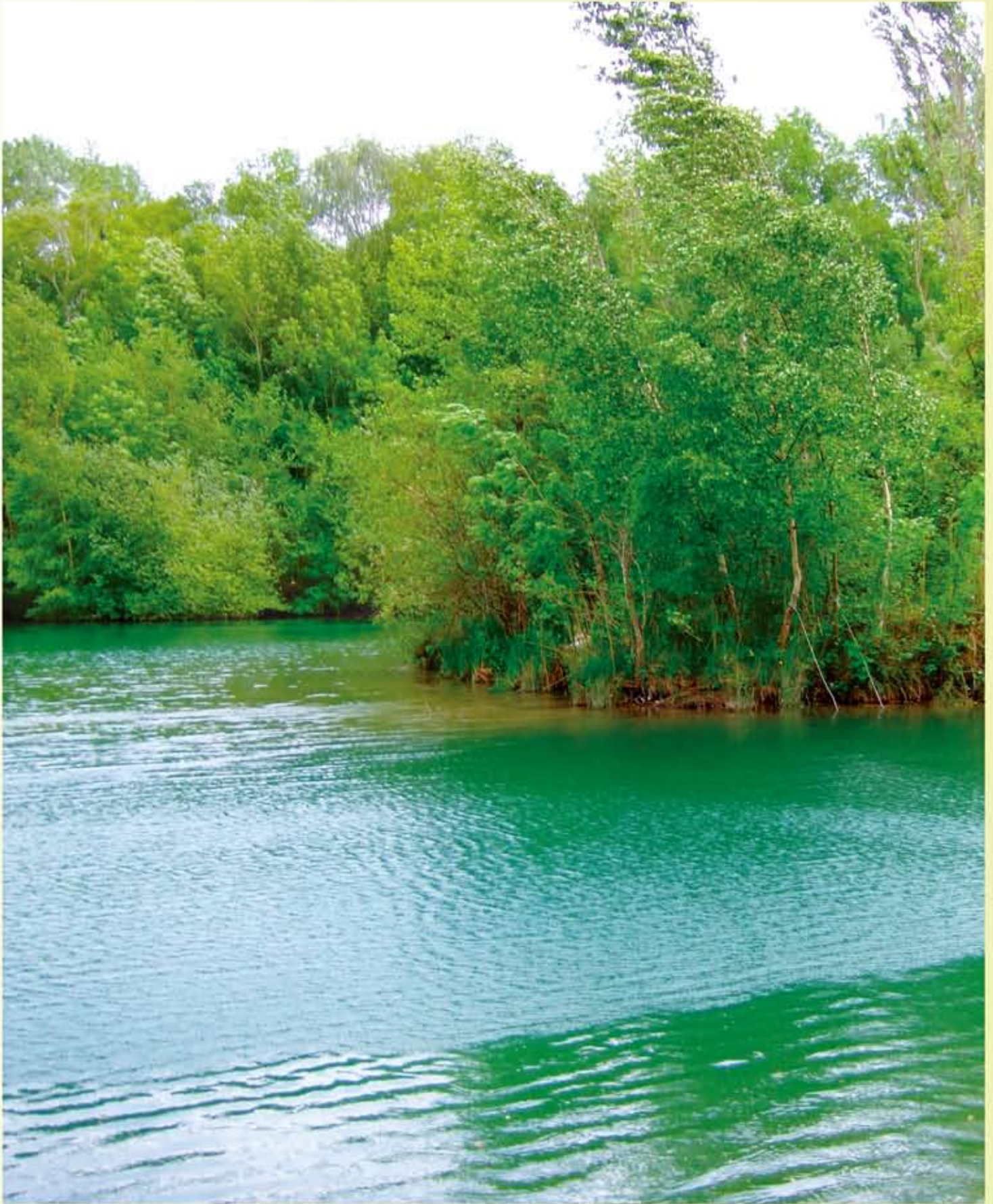




아무라에 가을이 찾아온 순간

이제 이곳에 사는 무리를 차례로 만나 볼 거예요.  
기대하세요!





유명한 아무라 호수의 백조섬  
(이곳 주민들은 다 알아요!)

기나긴 겨울 끝에 (겨울은 언제나 길지요!) 봄이 문득 찾아왔습니다. 봄오리가 하룻밤 사이에 맺힌 것 같습니다. 놀라워요.


호수도 더 푸르러진 것 같습니다. 호숫가에 늘어선 나무 그림자는 호수를 청량한 에메랄드 빛으로 물들이고, 꿈처럼 마음을 달래 줍니다. 하지만 직접 만지고 느껴 볼 수 있는 꿈이지요.



호수에 찾아온 봄



아무라 호수의  
갈매기와 저녁노을

A photograph of a diverse field of flowers. The top half is dominated by bright yellow daisy-like flowers. Below them, there are purple spike-like flowers and a cluster of small white flowers. The background consists of green grass and some brown leaves.

일부 동물종은  
개인 이름이 있습니다.  
없는 동물종도 있지만.

꽃과 나무는 새로운 수확의 계절이 머지않았음을 예고합니다. 새들은 이제 예전만큼 자주 여사가 주는 먹이를 즐기러 오지 않습니다.

대자연이 제공하는 먹이가 지천이고 신나는 일도 많으니깐요. 상큼한 딸기들을 맛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짹도 찾고…….



여기 삶이 외롭니?



‘우울한’ 왜가리도 외로운가 봐요.



사랑을 찾고 있니?



울긋불긋한 꽃들이 한순간에 피어나면 벌들은 꿀을 찾아다니느라 바쁩니다. 마지못해 겨울잠에서 깨어난 아무라는 눈이 휘둥그레져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외로운 기러기!





작 없는 이 우울한 왜가리도 삶이 쓸쓸한가 봐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달라졌잖아요.)  
보이지요!

마을의 생활은 조금도 쓸쓸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네 차례, 개 군단이 마을의 큰 집에서 몰려나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뭐든 움직이는 것들한테 (기분에 따라선 움직이지 않는 것들한테도) 짖어댁니다.

계다가 놀이울에서 들리는 새들의 합창 소리가 개 짖는 소리와 화음을 이룹니다. 정말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하지요. 그나마 이곳이 넓은 데다 나무들이 소음을 어느 정도 흡수해 주니 천만다행이에요!

탐험대  
마을의 여사



이 여사는 아무라 주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주변을 탐색하고 오리와 그 친구들에게 먹이를 주는 등 '위대한' 일을 하느라 꽤나 바쁩니다.

이 일을 진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듯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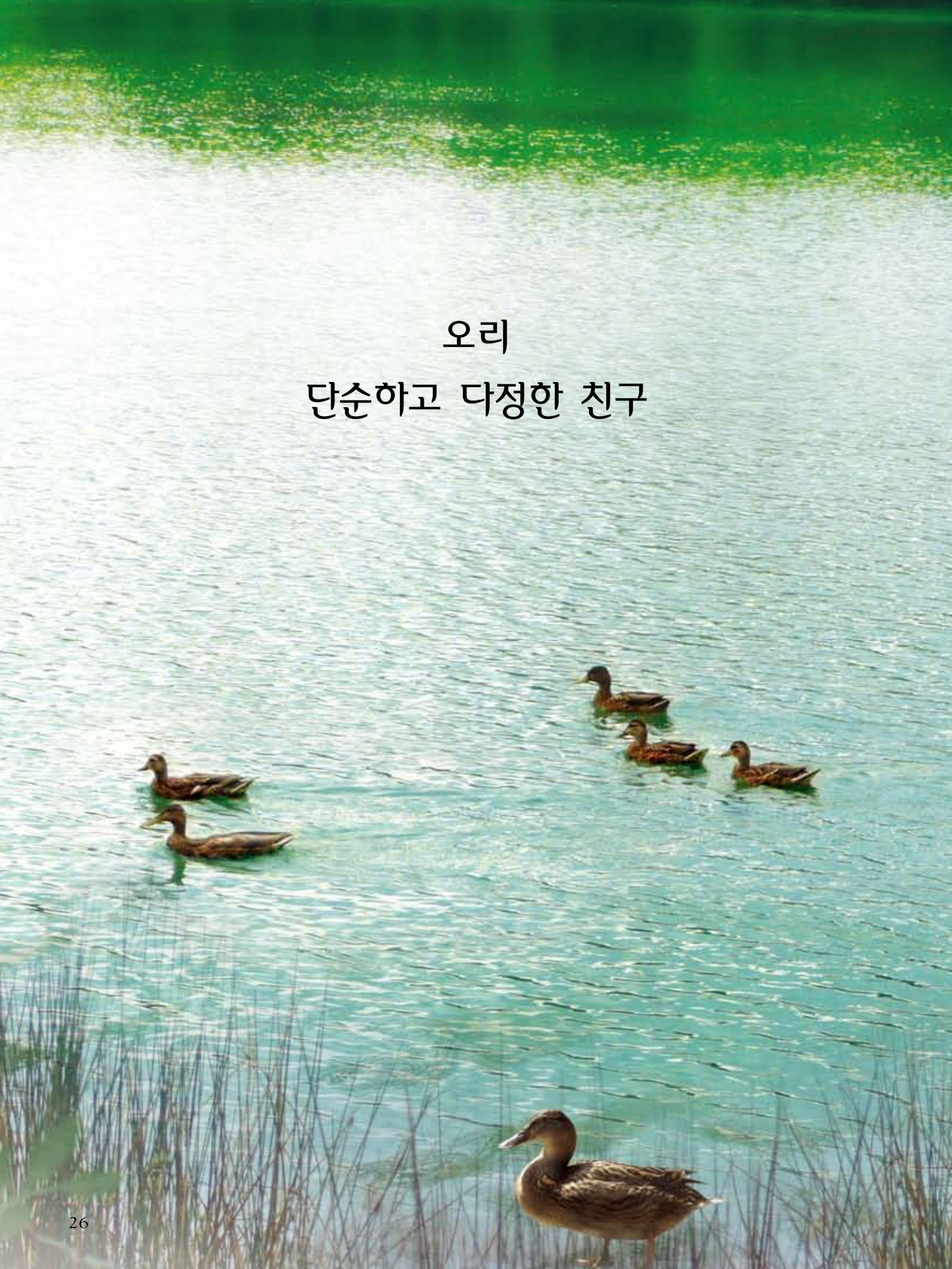


질문: 한 사람만 있어도 탐험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 그럼요! 그녀와 보트가 있잖아요.



오리  
단순하고 다정한 친구







.....대부분의 경우 여사는 외부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오리나 백조 등에겐 늘 제시간에 찾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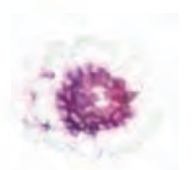


'갈대섬의 오리 공작'과.....




.....그녀는 오리지구, 백조읍, 개구리마을, 물닭촌 등 아름다운 아무라 구석구석을 자주 찾습니다.

그녀는 마을 맨 끝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맛있는 요리를 먹으려고 떼 지어 와 줄을 섭니다. 식당에선 점심과 저녁뿐 아니라 그 사이에도 아무 때나 손님을 받습니다!.....



.....백함골의 오리 공작 부인을 만나다





.....나예요!



누가 외로워요?  
우리 함께라서 너무 좋은걸요!



아무라의 오리 휴양지

우리 이웃도 있어요.  
누구세요?



맞아요!  
기러기예요.





폭신한 땅도 우리 집.



우리 삶은 단순해요.







여기 또 한 마리의 '외롭고' 우울한 왜가리가 있군요. (예! 아마도 우울한가 봐요.)

그(아니면 그녀?)는 짝 없는 왜가리들을 위해 마련된 이 전용 공간에서 종종 휴식을 취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른 새들이 앉아 있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녀(혹은 그?)는 햇살이 비치는 구석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햇살이 저녁 늦게까지 머문답니다.

정말 고독을 즐기는 독신자네. 짝을 찾으려면 좀더 붙임성이 있어야 하겠어. 내 생각엔 그래!



독신자 구역



이 둘의 경우엔 마음껏 근접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에 찾아와 먹이를 달라고 문을 푹푹 두드려요. 하루에 서너 번씩이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들은 거의 손에서 받아먹다시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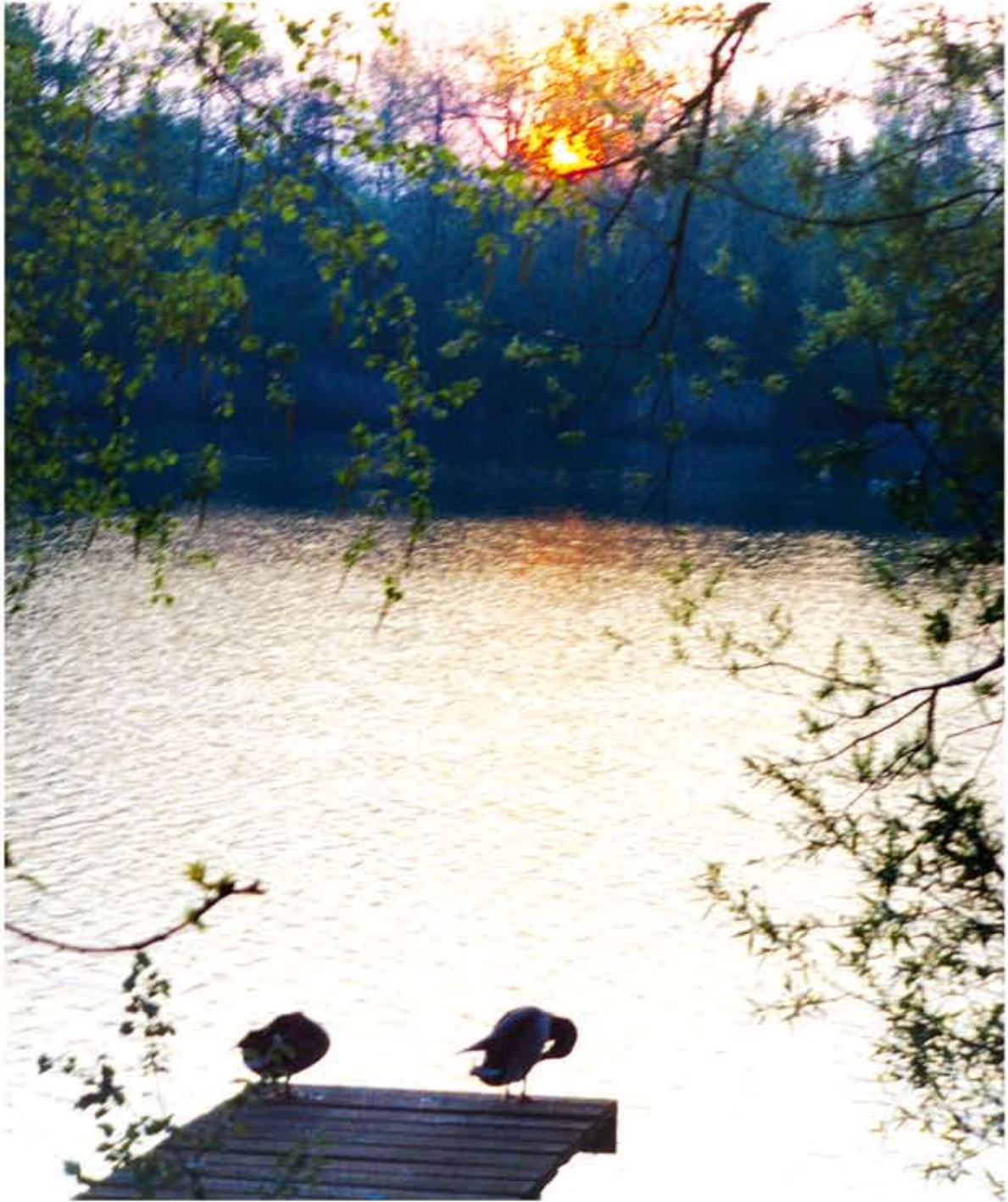


“사랑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숫오리는 자기 짝한테 아주 자상하며 잘 보호해 줍니다.

짝이 먹을 때면 늘 옆에서 지키고 서 있고, 그녀가 물 마시러 달려가면 자기도 뒤 따라갑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도 가끔 먹으니까요. (증인 있음.)



행복한 느낌  
—언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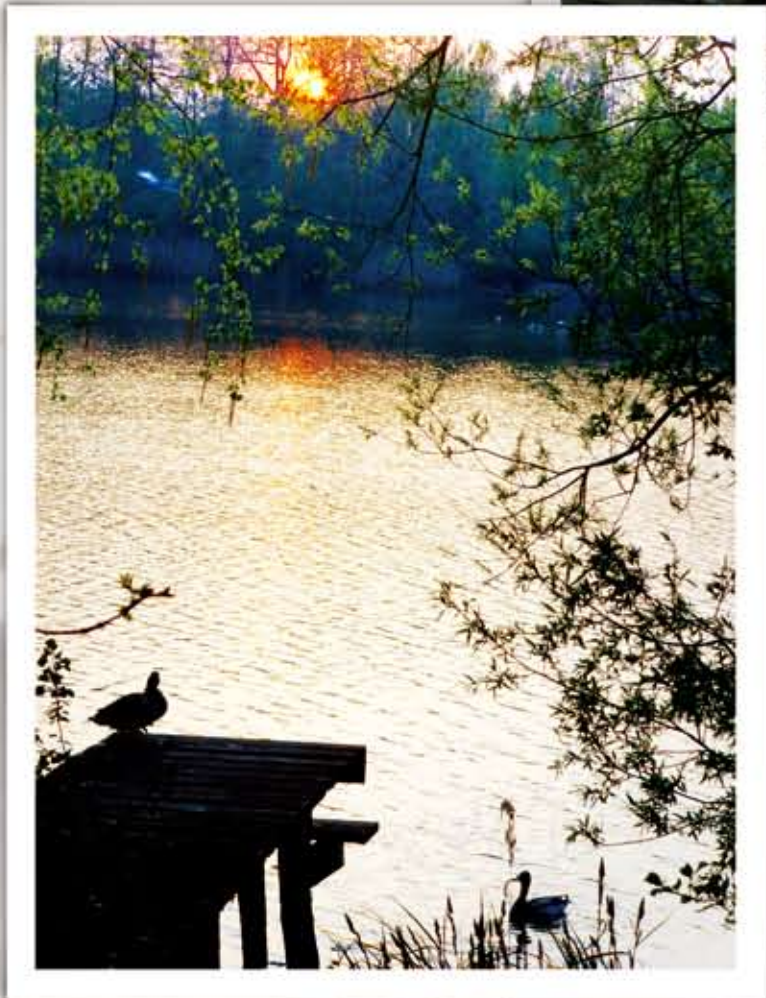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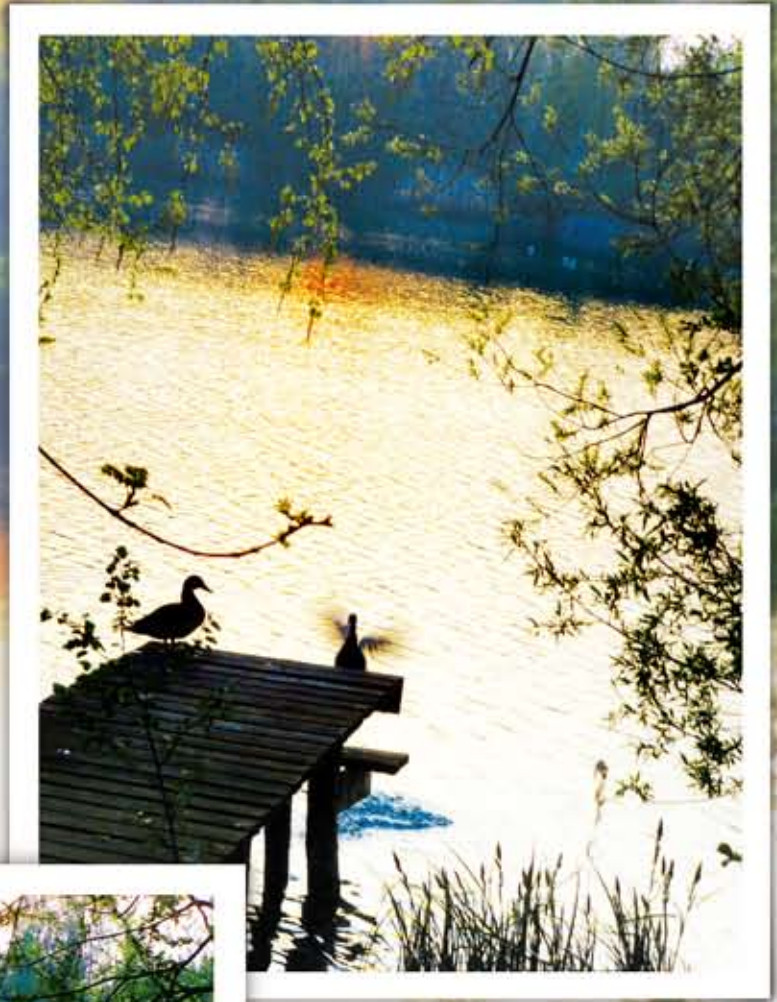
“자리만 바꾼 거야.  
내 마음은 변치 않아.”



“알아,  
자기야!”



오리네 단골 '가게'



“올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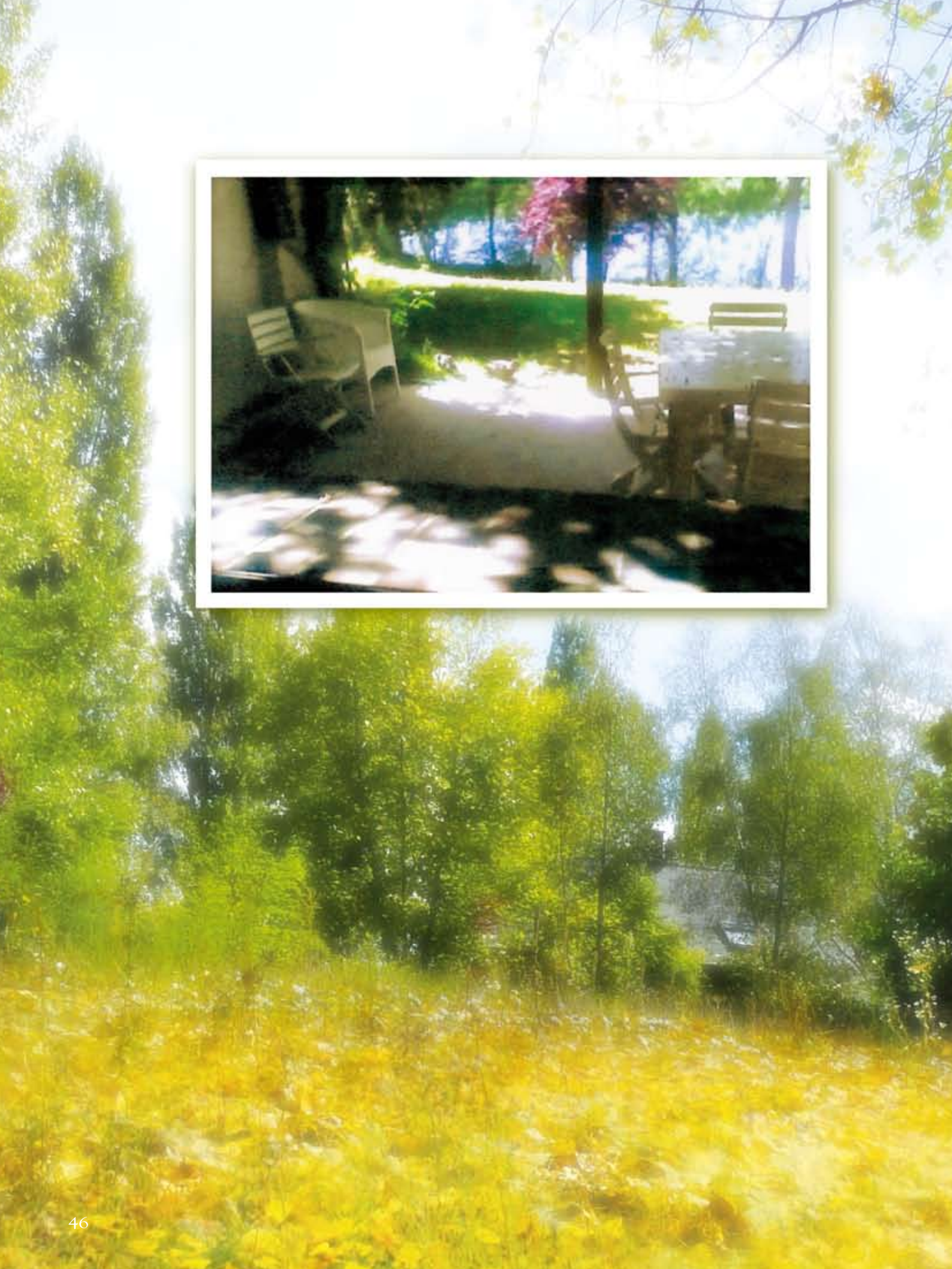
암오리가 다 먹고 옆에서 쉬거나 잠이 들면 숫오리는 그제야 허겁지겁 몇 입 먹습니다!

암오리를 쫓아다니는 다른 숫오리가 있는데, 그녀는 그와 사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둘 다 바짝 경계합니다. 특히 숫오리는 사랑하는 이를 보호하고자 늘 곁을 지킨답니다.

이런 신사다운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 이게 훨씬 좋아  
내 옆에서 잠만 잘지라도  
우리 함께니까.”







눈앞에 펼쳐진 이 풍경처럼 가을은 이미 온 마을을 물들이고, 다가올 겨울에  
대지를 따뜻하게 덮어 줄 금빛 담요를 짜고 있습니다.

나뭇잎은 작별을 고하고

꽃은 원숙한 색채로 단장합니다.

어떤 것은 가고

어떤 것은 옵니다.

여름날 막바지 꽃들은 시간의 부름을 애써 외면한 채 여전히 화려한 자태를  
펼칩니다!

이곳의 인간도 마찬가지.

잠시 머무는 곳에 안주하고 맙니다.

마치 물질계의 삶이……

……영원하다는 듯.





일몰의 메시지:

헤어짐도 좋습니다.

재회의 기쁨이 있으니까요.

어떤 건 시들어 가고

어떤 건 자라납니다.



놀랍지요!  
가을꽃이에요.



잔잔한 호수는  
깊은 위안을 주고  
무언의 매력을 발산합니다.  
언제나 아름답고  
언제나 고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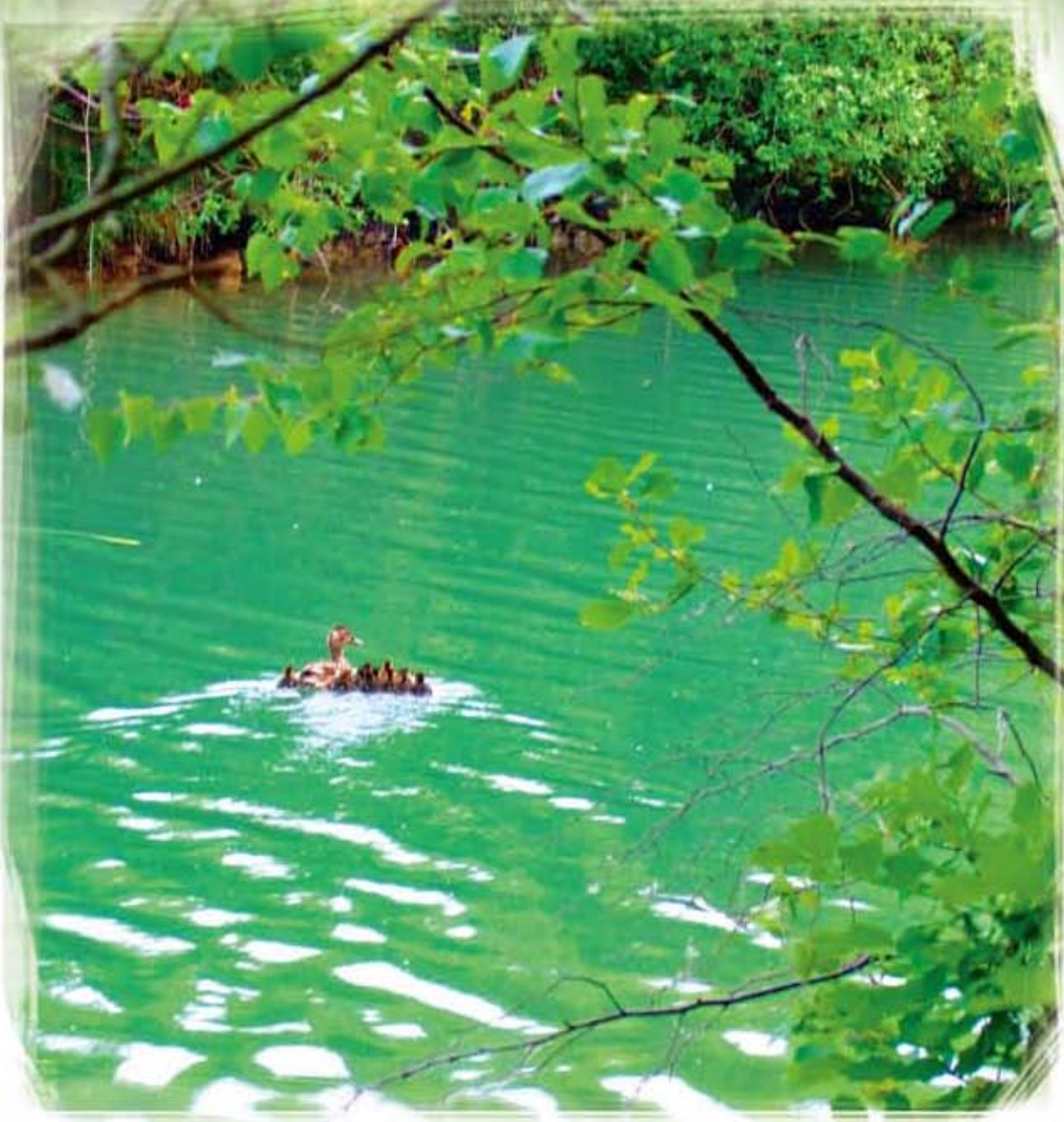
이 고요함 속에서  
생명은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나무는 무성하게 우거지고  
아이들은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어떤 건 피어나고.....

어떤 건 번성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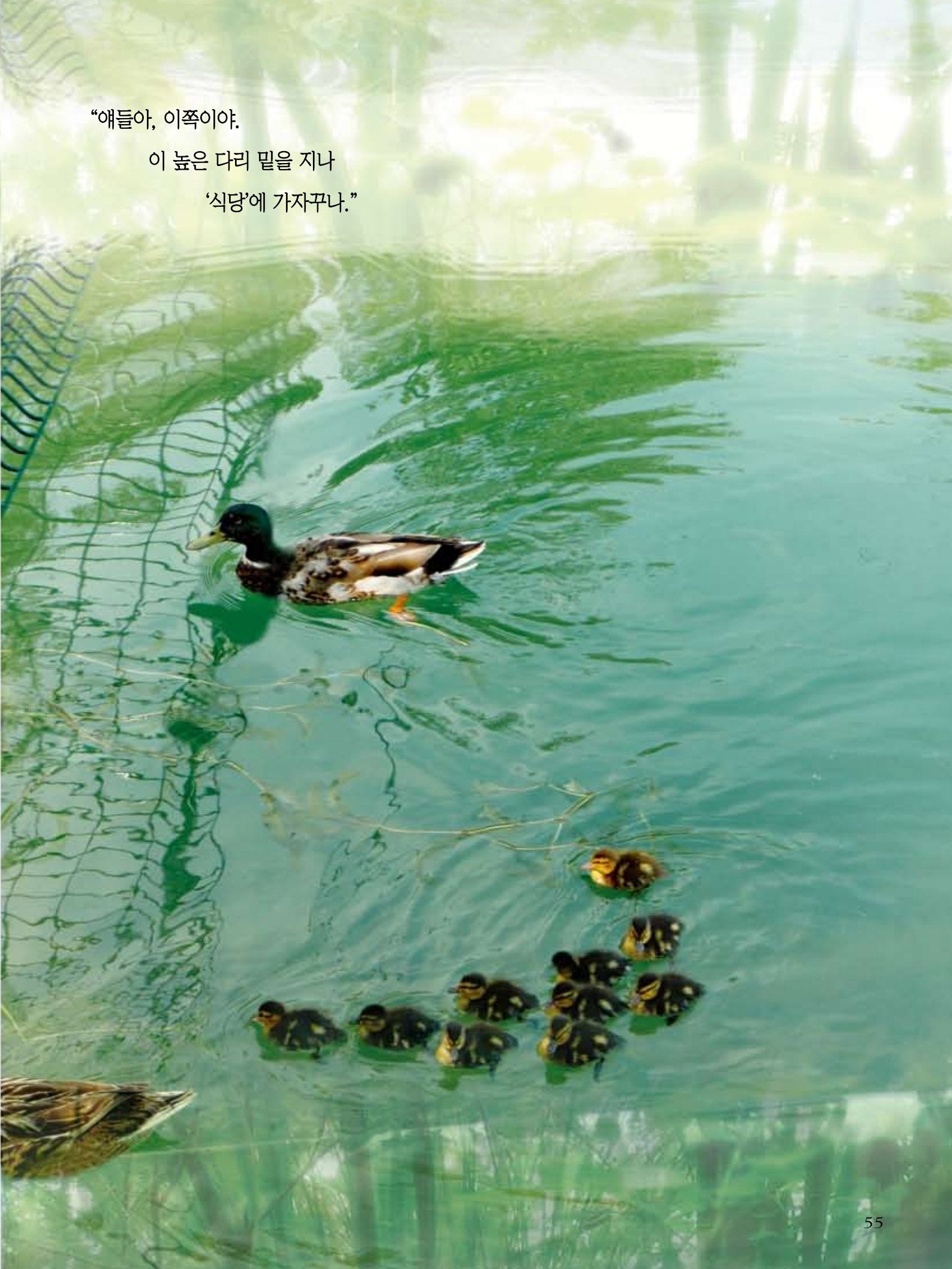




“얘들아, 이쪽이야.

이 높은 다리 밑을 지나

‘식당’에 가자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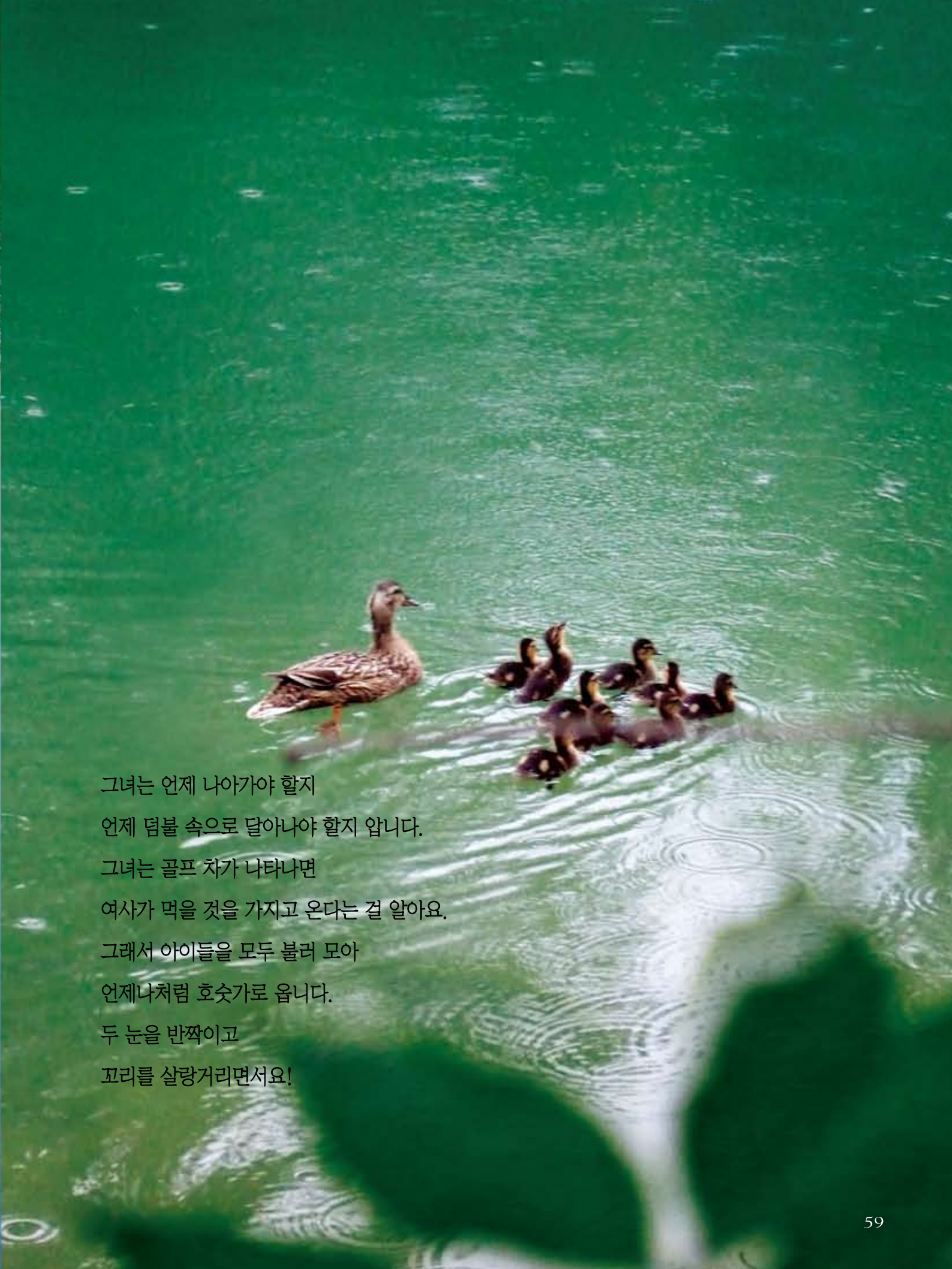
“신의 은총 속에 자라렴.”







그녀는 벌써 책임감과 보호 본능이 강한  
열성 엄마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보살피고  
먹을 것과 머물 곳을 찾아줍니다.  
누가 이런 것을 가르쳐 줬을까요?!

A photograph of a mother duck and her ducklings swimming on a green pond. The mother duck is on the left, and her ducklings are clustered together on the right. The water is a vibrant green, and there are ripples around the ducks. The text is overlaid on the left side of the image.

그녀는 언제 나아가야 할지  
언제 덩굴 속으로 달아나야 할지 압니다.  
그녀는 골프 차가 나타나면  
여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  
언제나처럼 호숫가로 옵니다.  
두 눈을 반짝이고  
꼬리를 사랑거리면서요!







하지만 엄마 오리는 아이들에게 자립하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가나 호숫가 얇은 곳에서 자라는 푸른 이끼를 먹지요. 그들이 부두 말뚝에 붙은 물풀이나 갈대를 즐겁게 와삭와삭 씹어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여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어쩔 이리도

욕심 없는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녀는 한 입도 먹지 않고  
모두 아이들 몫으로 남겨 둡니다!  
아이들이 먹는 동안 곁에서 지키지요.  
혹시 모를 위험 때문이에요!

아! 어머니의 사랑.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만 가슴으로 공감하고

눈시울을 적실 뿐!



빈틈없는 호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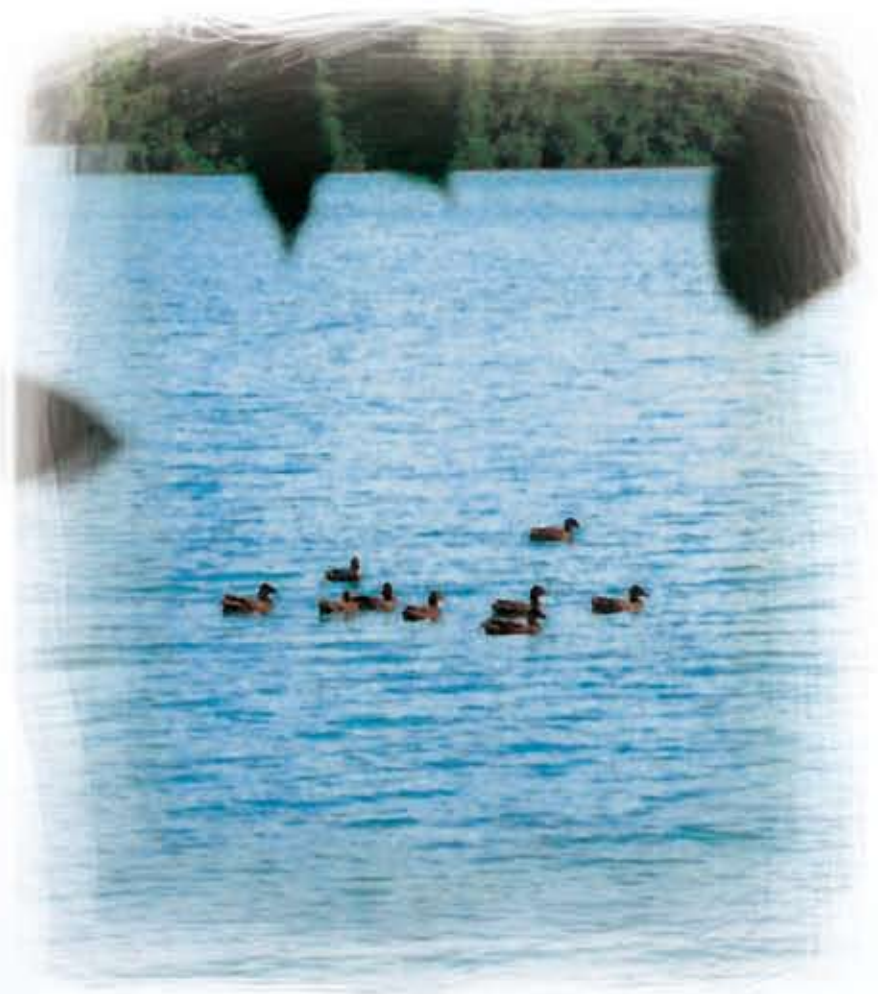


이렇게 날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한결같은  
엄마의 헌신과 사랑 속에서요.





물가의 키 큰 갈대 뒤에 숨는 게  
더 안전합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엄마는 급히 이리로 데려옵니다.



그래도 용감한 엄마는  
아이들의 담력을 키워야 할 때는  
호수를 헤엄쳐 건너도록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그녀!  
그 사랑을 지켜보고 있으면  
목석같은 마음도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금 여사는

이들 야생 존재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슴이 몽클해지곤 합니다.

그녀는 그저

그들 모두를 품에 안고

어루만지며

마음속 사랑을 보여 주고만 싶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느껴지나요?

이 어머니의 눈 속에서

놀라운 용기와 참된 아름다움이 보이나요?







누구는 땅에서 먹고

누구는 물에서 먹지만  
음식은 하나같이 맛있어요.

다들 '부양자'가 제공하는  
요리를 맛있게 즐깁니다.



이 소박한 엄마의 모습으로 나타난  
수호천사





얘들아, 걱정 말고  
편히 쉬렴.  
엄마가 항상 여기서  
우리 귀염둥이들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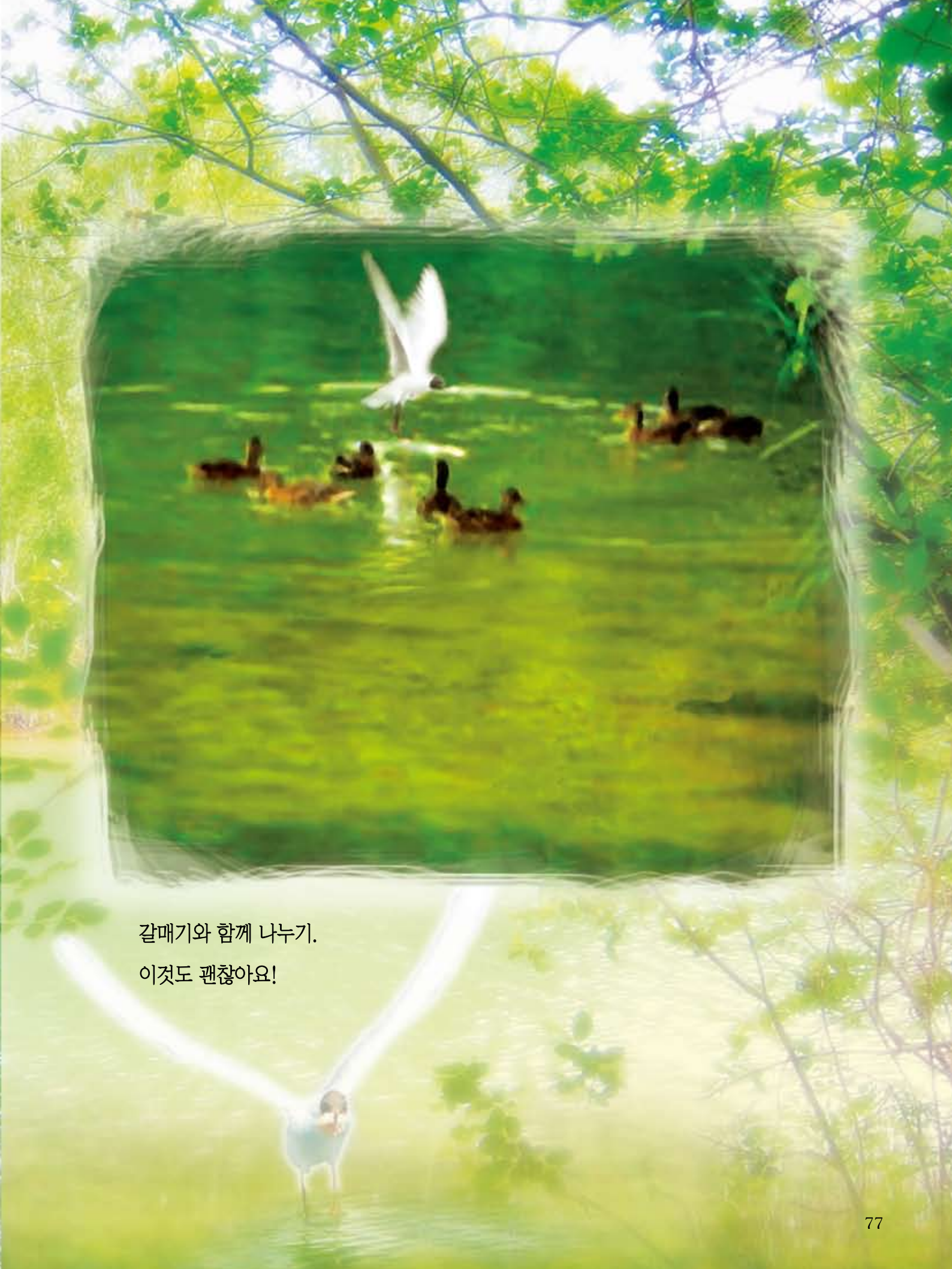
피곤하니?  
아니……요!



정말 빨리도..... 크네요!







갈매기와 함께 나누기.  
이것도 괜찮아요!



더불어 살아가기



누가 저녁을 먹으러 왔을까요?



평화로운 해결책!



그래요, 마을 '사무실'에도  
할 일이 있어요.

참으로 자랑스런 어머니.

영웅이에요.

대자연과 씨름하며

온갖 역경에 맞서고

온갖 위험에 맞섭니다.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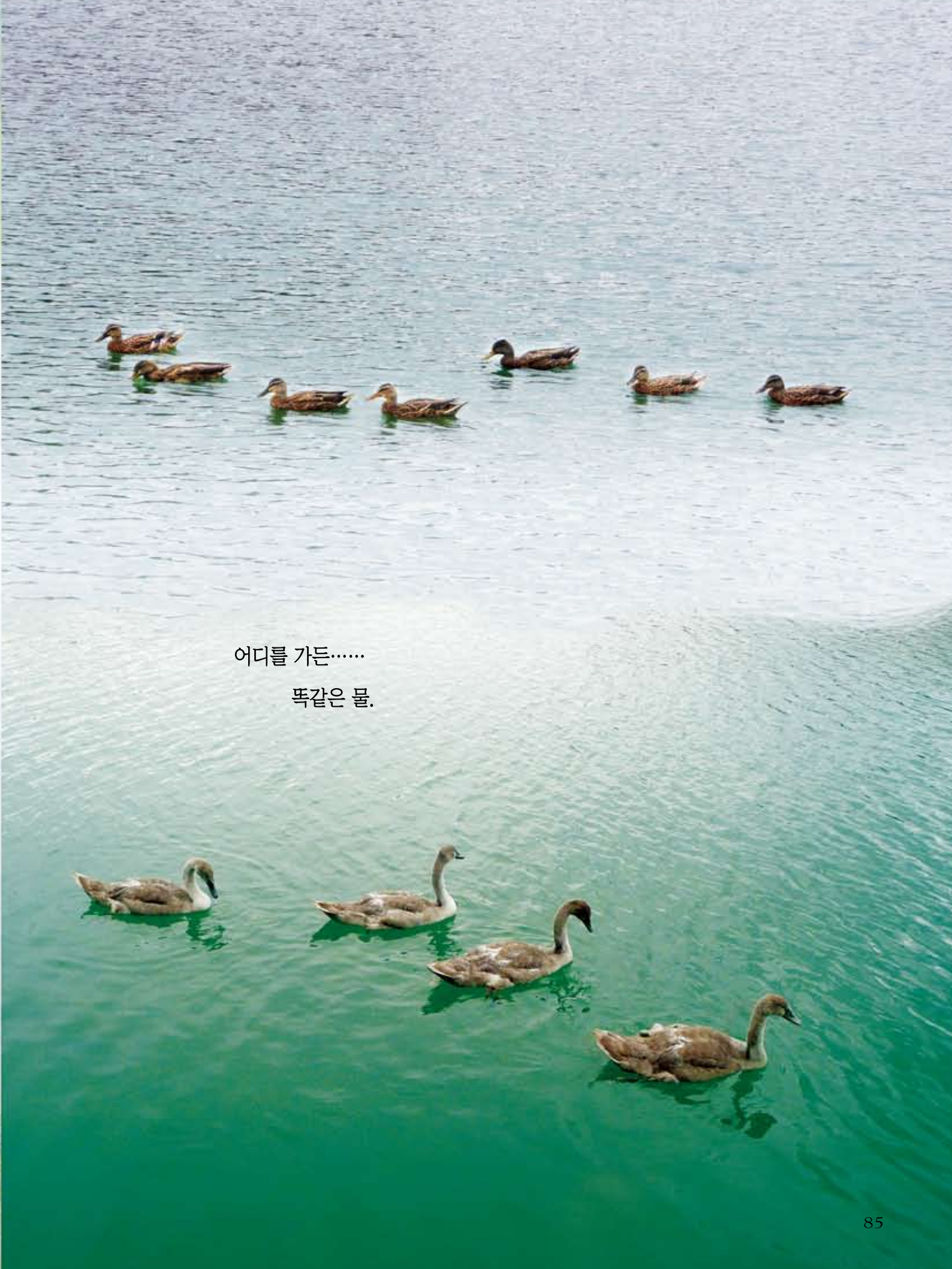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워 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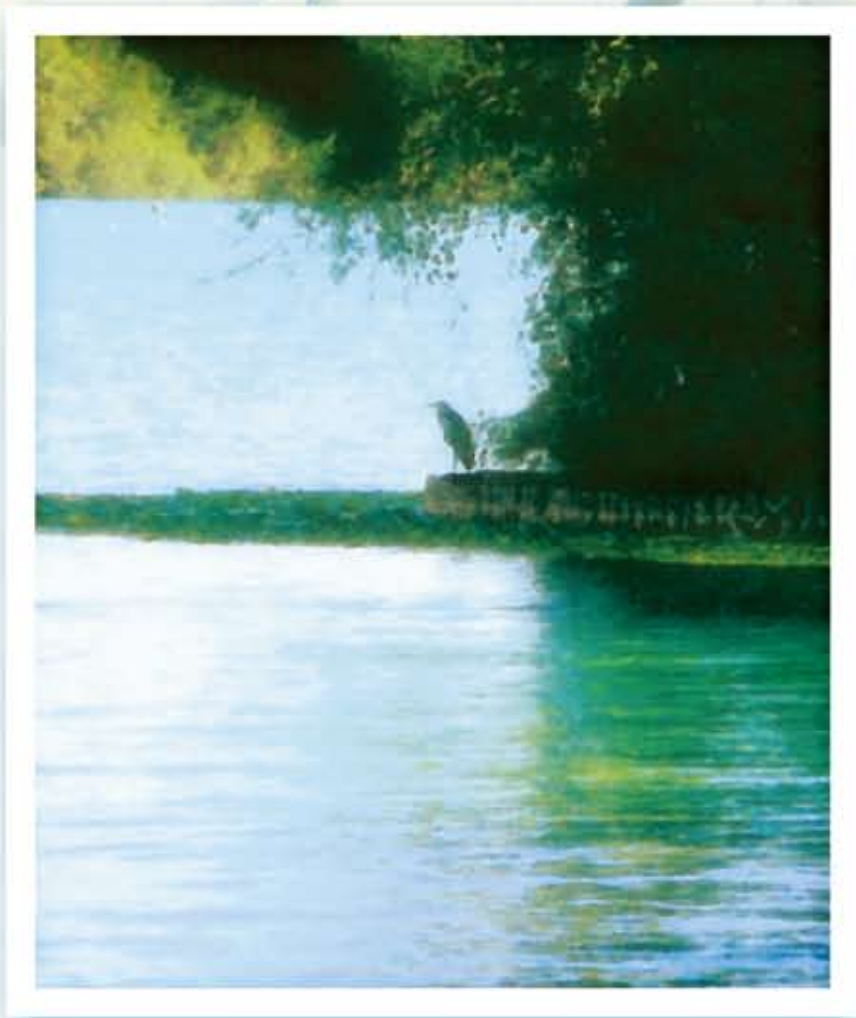


이제 다른 가족이  
우리와 합류했어요.  
캐나다 기러기예요!






어디를 가든.....  
똑같은 물.




어째서 이 애는  
아직도……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내가 뭐라고 했니!  
(좀더 붙임성이 있어야 한다니까.)  
진심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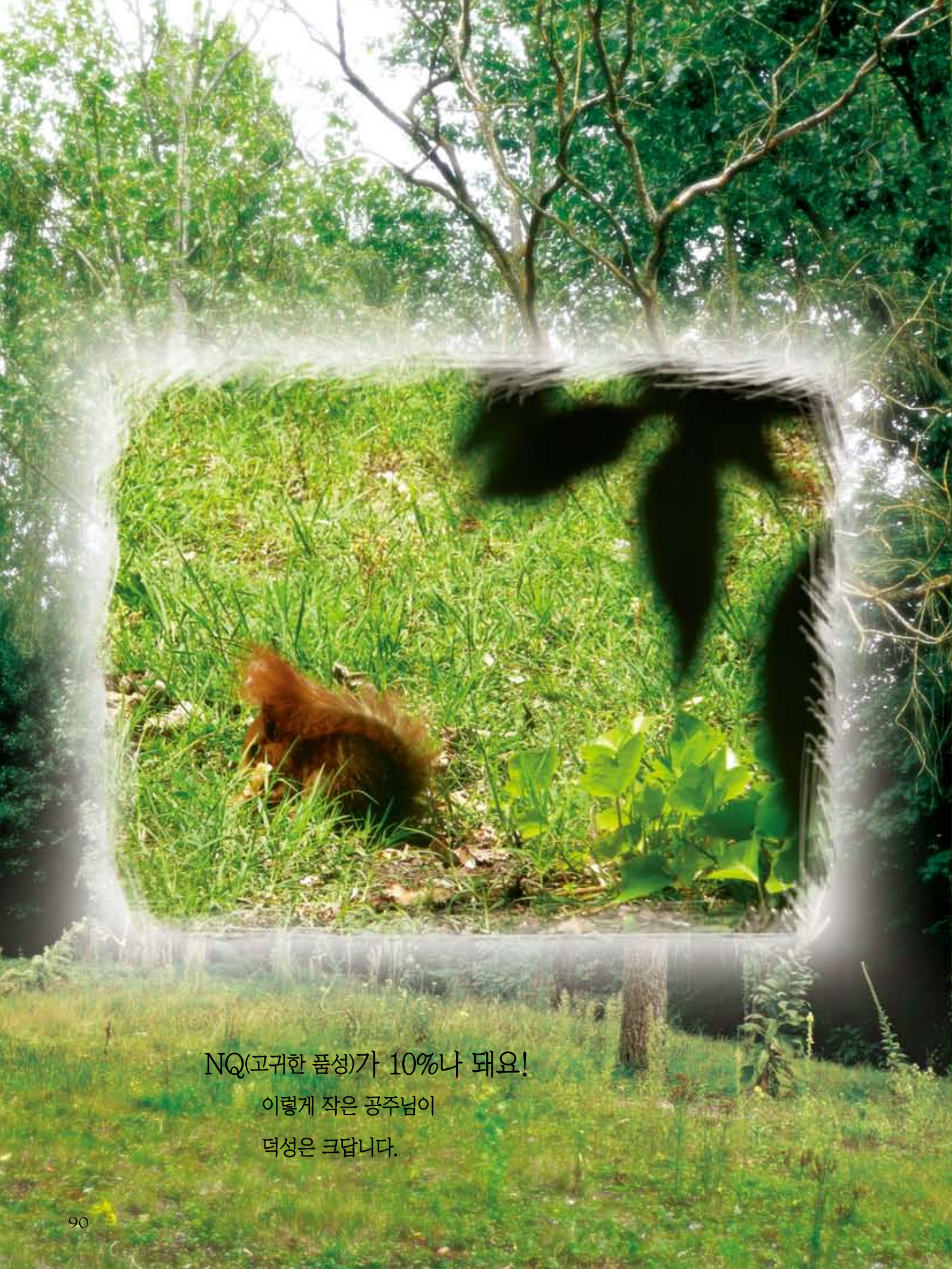
A large, mature tree with a dense canopy of green and purple leaves dominates the scene. The tree's trunk is visible on the left side. The ground is covered with fallen leaves and grass. The background shows a glimpse of a building and other greenery.

다람쥐  
대지의 파종자



다람쥐에게 이름이 있을까요?  
그럼요, 있고말고요.  
놀랍지요?  
나도 놀랐어요!

이 다람쥐 아가씨 이름은 씨(Sy)예요.  
아주 대담하고 사랑스럽지요.



NQ(고귀한 품성)가 10%나 돼요!

이렇게 작은 공주님이

덕성은 크답니다.

이 적갈색 다람쥐는 '그녀의 집' 단골손님이예요.  
그는 너무나 편안하고 당당하게 자라서  
밖에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하면  
과감히 집안으로 들어온답니다.  
이름은 피(Fy)예요.



견과가 있네!  
무슨 열매지?

아니면 자신의 휴대용 담요를 말아 덮고선  
주방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빵을 배부르게 먹고 난 뒤예요.  
(집안에 있는 빵을요!)



달콤한 낮잠!

……하지만 마실 것을 구하려면,  
몇 야드 떨어진  
호숫가로 가야 해요. (가엾어라!)





씨는 아름다운 빨강 머리의 아가씨예요. 처음 풀밭에 빵을 던져 주자 가까이 가져가더니 이리저리 뒤집으며 주의 깊게 살폈는데, 아주 귀여웠어요.

그리고선 이런 ‘견과’는 생전 처음 봤다는 듯 고개를 가웃가웃하며 보고 또 봤습니다.

“대체 무슨 종류지? 아주 크고 네모난 데다 말랑거리면서도 향긋하네.  
천국의 맛이야!”



애는 다른 애인데, 숫다람쥐예요.

더 어른스럽고, 색깔이나 학식도 더 '깊이'가 있지요.



이름은 지(Zy).



그는 뭐가 견과이고 뭐가 아닌지 알아서  
뭘 봐도 놀라지 않습니다.

안 해본 게 없고

안 가 본 데가 없지요.

그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이모저모를 설명해 줍니다.

아주 훌륭한 선배예요!



또 다른 '단굴손님'





인간은 내 친구예요.  
친구란 **‘먹을 것’**을 뜻해요.  
에헴!.....

내 변변찮은 번역에 의하면,  
정확하냐고?  
확실하!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당신 집이 내 집이잖아요.  
(물론이지!)



난 자유로워요.

아무라의 파종자들  
많은 견과 나무가 그들 손에서 생겨납니다.



오고 가는 건  
내 마음대로!  
(알았어!)



“우린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이 집의 빵을 좋아한다는 거지요.”  
그는 견과를 정말 좋아합니다.  
생김새도 견과를 닮았잖아요!  
헛…… 헛……







그녀는 쏘살같이 달려와서  
순식간에 먹어 치워요.  
방금까지 있었는데  
어느새 사라졌어요!



요리 솜씨가 좋다는 증거



잠시 쉬었다 가요.  
호숫가를 거닐거나  
꽃들을 구경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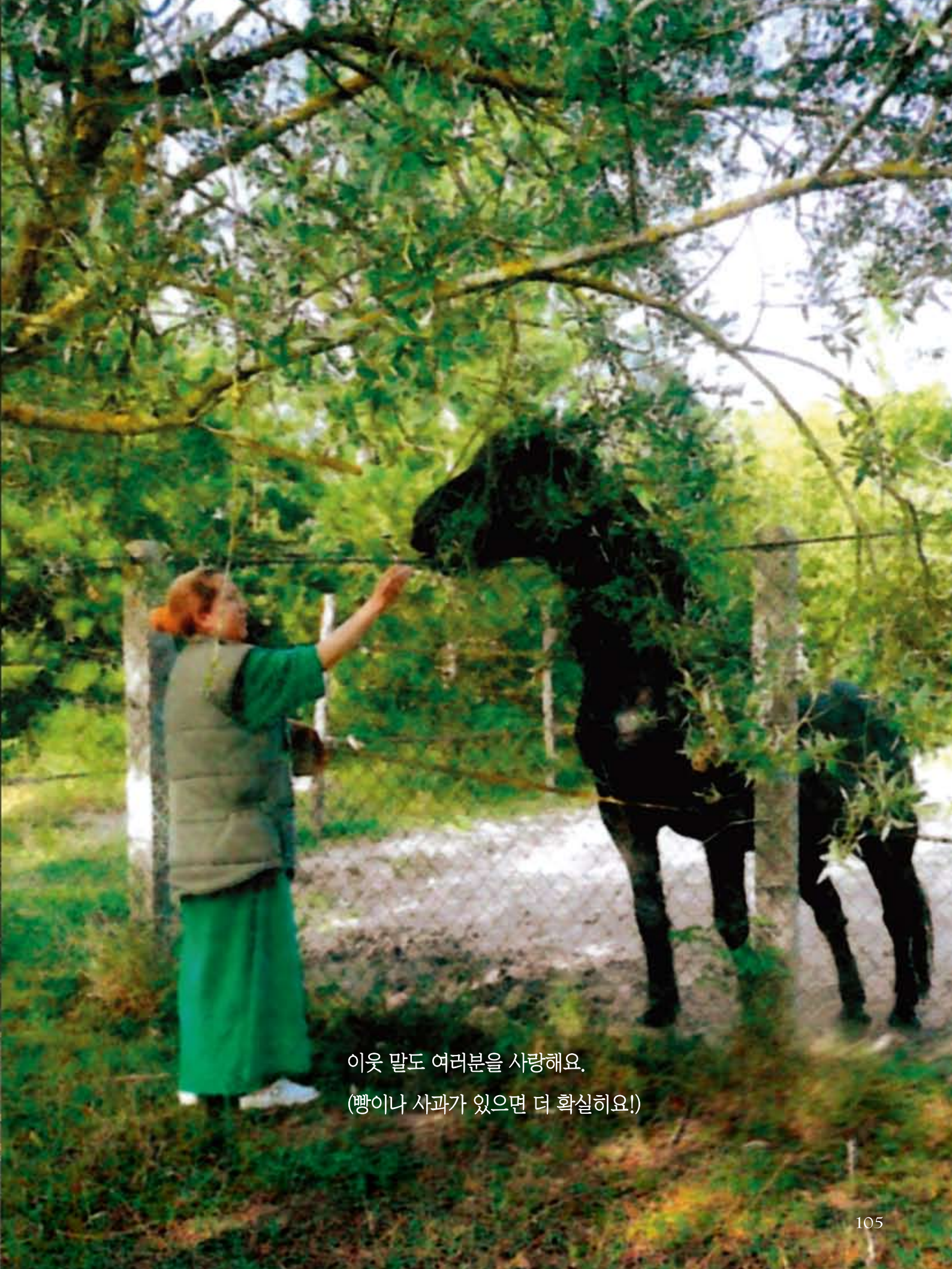
대나무에게 말을 걸어 보세요.  
아무라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 말 좋은 이웃



달갑지 않은 것들을 막아 주는 존재.




이웃 말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빵이나 사과가 있으면 더 확실해요!)

A photograph of a large tree with a thick, dark trunk and dense green foliage. The leaves are bright green and appear to be maple leaves.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field of yellow flowers, possibly wildflowers, and more greenery. The overall scene is a lush, natural landscape.

## 캐나다 황실 기러기





물담  
수줍은 은둔자







코(Co)와 주(Ju)의  
연애 초기

## 다리 식당

먹이를 놓고 경주하는  
비버와 물닭.  
특이한 조합이지만  
목적지는 같아요.

지금도 보이지만



잠수의 달인인  
물닭은 물속에서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크기는 비둘기와 비슷하고  
쇠물닭네 일가예요.

이제 안 보이지요.





여사는 음식을 나눠 주러 가는 길에  
이 동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부모가 돌아오기 전에  
나무에 올라가 재빨리 찍어야 했지요.

봄은 꽃과 함께  
다른 많은 선물도 가져옵니다.  
기나긴 겨울 끝에  
생명이 다시 피어나는군요…….



\* 둥지를 지키는 엄마 물닭



물닭은 백조나 기러기, 오리에 비하면  
훨씬 더 은둔자 같은 성품을 지녔습니다.  
몸집도 훨씬 작고요,  
대개 그들은 다른 물새들이 있을 때나  
가까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타나지요.  
먹이를 주는 사람이 살짝 움직이기만 해도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물닭 부부는  
여사가 가까이 오면 얼른 달려와  
매일 세 차례 가져오는  
먹이를 나눠 먹습니다.

부모가 혼자 혹은 함께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을 때는  
명심하세요, 음식만 주고 와야지  
너무 가까이 가선 안 됩니다!







안내판이 있군요.  
“점심 먹고 돌아올게요.”







막내만 앉아 집을 지키고  
나머지는 엄마와 아빠를 따라갑니다.

여사가 여기에 빵을 좀 두고 왔어요.

혹시나 엄마가 근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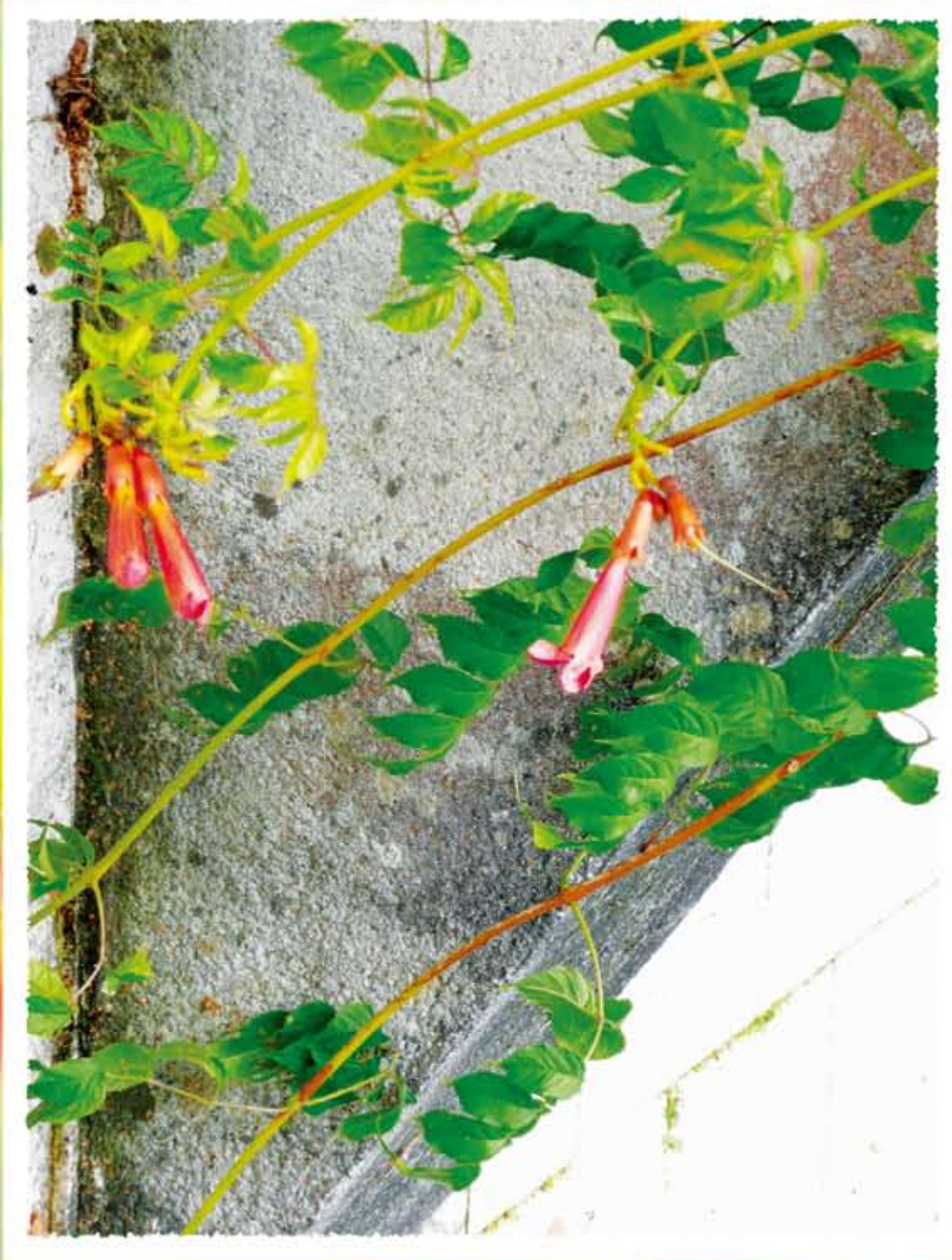
먹이를 구하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요.



아직 한 마리가 더 태어날 거예요.  
엄마는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사도 '대기 중'이고요.



물닭 부모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이 둥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돌봐야 할  
다른 아이들도 있지요.



그 유명한 커다란 오리발 좀 보세요.  
수영하는 데는 그만이겠지요?



이 아기 물닭이 자꾸 길을 잃어서  
여사는 '구조 임무'에 나서야 합니다.  
그녀는 아기를 배 위로 건져 올려서  
부모가 있는 곳에 데려다 줬습니다.






“여기가 편해서  
곰쩍하기도 싫어요.”





“난 네 엄마가 아니란다.”



그런데 이 녀석이 물속으로 다시 뛰어들더니  
썹썹거리며 여사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녀는 이 귀염둥이에게  
자신은 엄마가 아니라고 설명해 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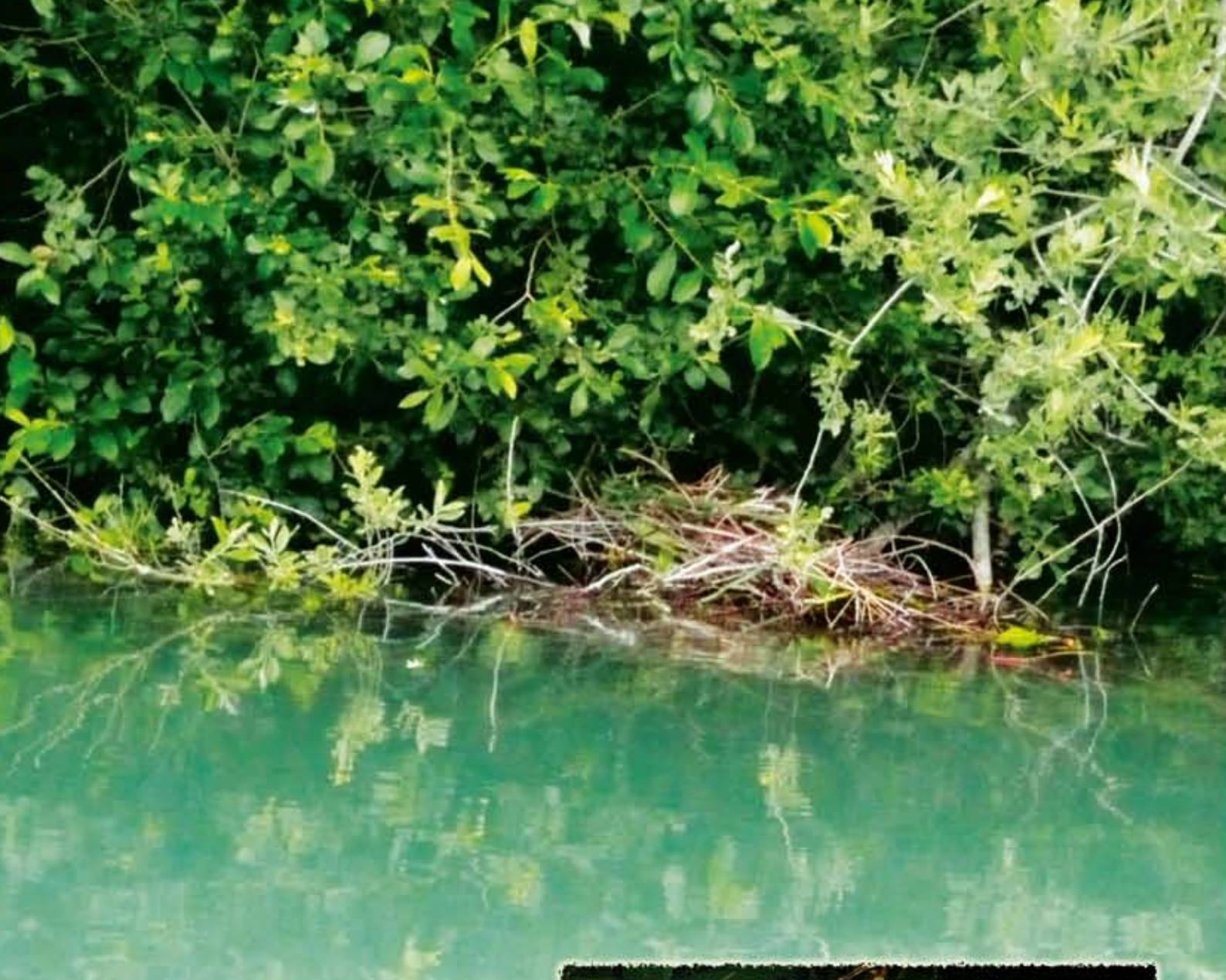
‘그녀’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모습



“애야, 네 사랑은 고맙지만  
너희 무리로 돌아가렴.  
네가 없어진 걸 알면  
엄마 아빠가 걱정할 거야!”







여기에 둥지가 또 있네요.  
세상에!  
정말 '경이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세상을 잊은 곳

# 봄의 찬가





또 다른 등지예요.  
아기 물닭이 끊임없이 태어나는군요!







아기들이 벌써 나왔어요.  
이 늦둥이만  
급하지 않은가 봐요.



그나저나  
이런 사랑의 작품과  
예술적 디자인을  
누가 지도해 줬을까요?



“당신이 좋지만  
가까이 오지는 말아요.”





여사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다들 잔뜩 겁을 먹고  
엄마 아빠를 따라 달아났는데  
이 애만 남아 짹짹거리고 있었습니다.





숨어 지내기를 좋아하고 사람이 두려울 수도 있을 텐데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그 엄마 아빠는 이 아기를 보호하고자  
계속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위대해요!



여사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미안해.  
너희를 해치려던 게 아니야.  
지금 당장 떠날게!”  
“……난 그저  
먹이를 주고 싶었을 뿐이야.  
다음엔……  
이렇게 가까이 오지 않을게.”

당황한 엄마 아빠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큰 애들은 숨기고  
이 작은 아기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돌보라고  
가르쳤을까요?









가족 돌보기

여사가 준 빵을 먹고 있는  
엄마 아빠와 아기 물닭들



아기들이 알을 깨고 나온 지 한참 뒤에야  
여사는 그들의 신뢰를 다시 얻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아기들은 호숫가에 숨어 있고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며 먹이를 날랐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 물가에서 저쪽 물가로  
‘여정’이 오래 걸렸겠지요!



여사는 직접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먹이를 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엄마 물닭이 그토록 먼 길을 헤엄쳐 다니며  
한 입씩 입에 물고 와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을 보고  
여사의 마음은 자애로운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감상에 젖어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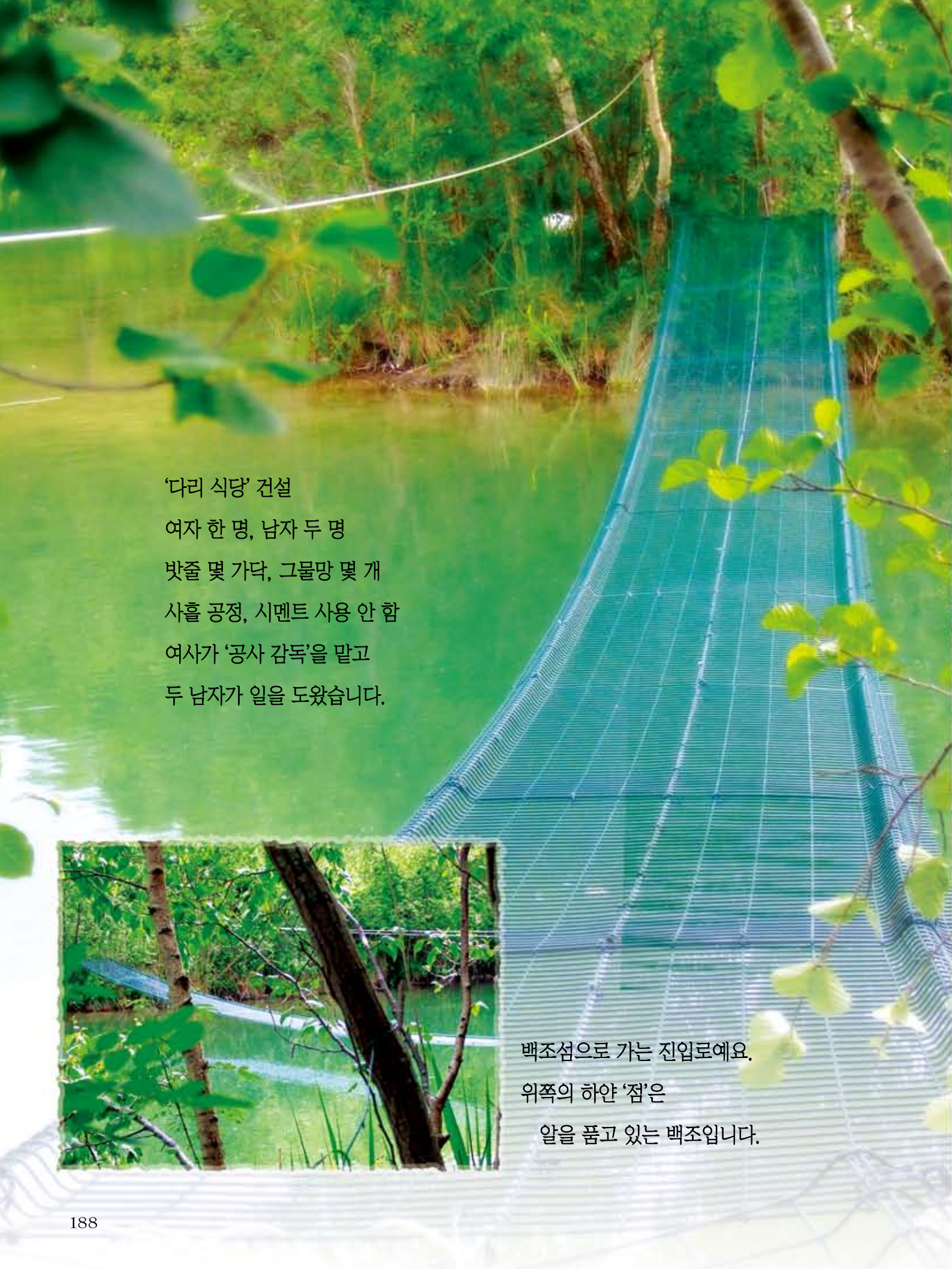


부모는 부리로 빵을 한 조각 물고  
헤엄쳐 가서 아이들에게 먹입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광경이지요.  
사랑 속에서 양분을 얻고  
사랑 속에서 자라납니다!

-누가 그러라고 가르쳤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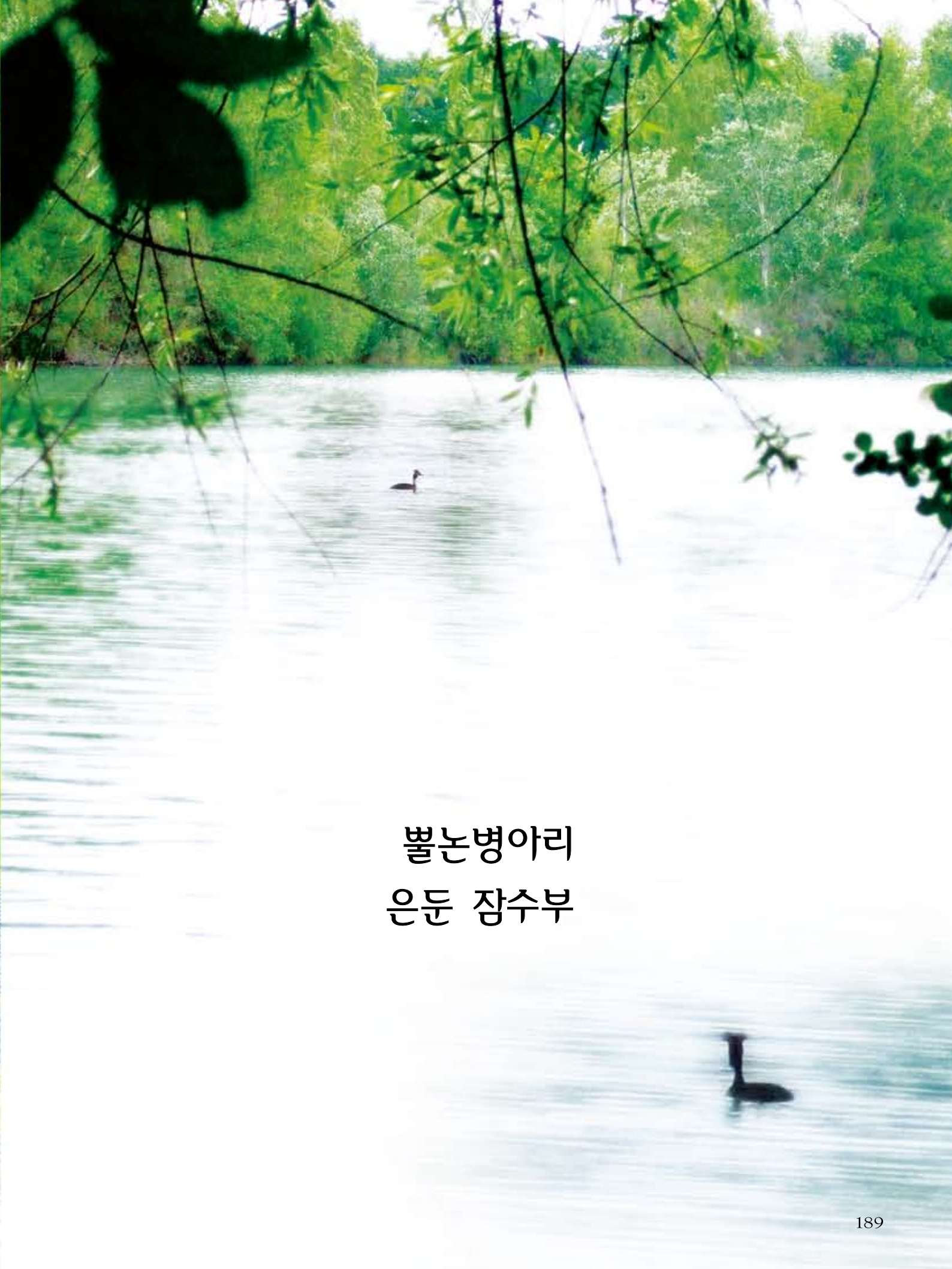
한마음 한 가족



‘다리 식당’ 건설  
여자 한 명, 남자 두 명  
밭줄 몇 가닥, 그물망 몇 개  
사흘 공정, 시멘트 사용 안 함  
여사가 ‘공사 감독’을 맡고  
두 남자가 일을 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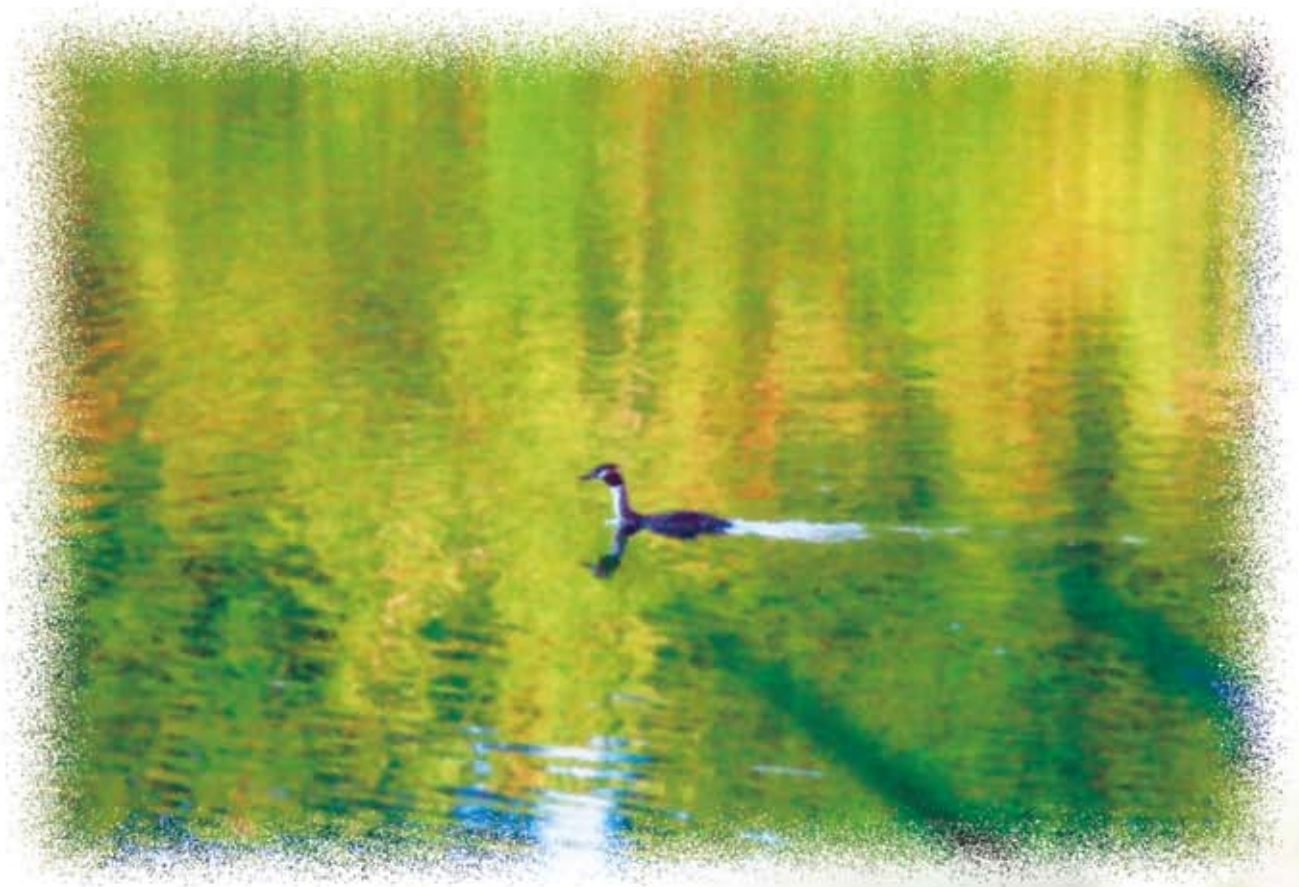
백조섬으로 가는 진입로예요.  
위쪽의 하얀 ‘점’은  
알을 품고 있는 백조입니다.



별논병아리  
은둔 잠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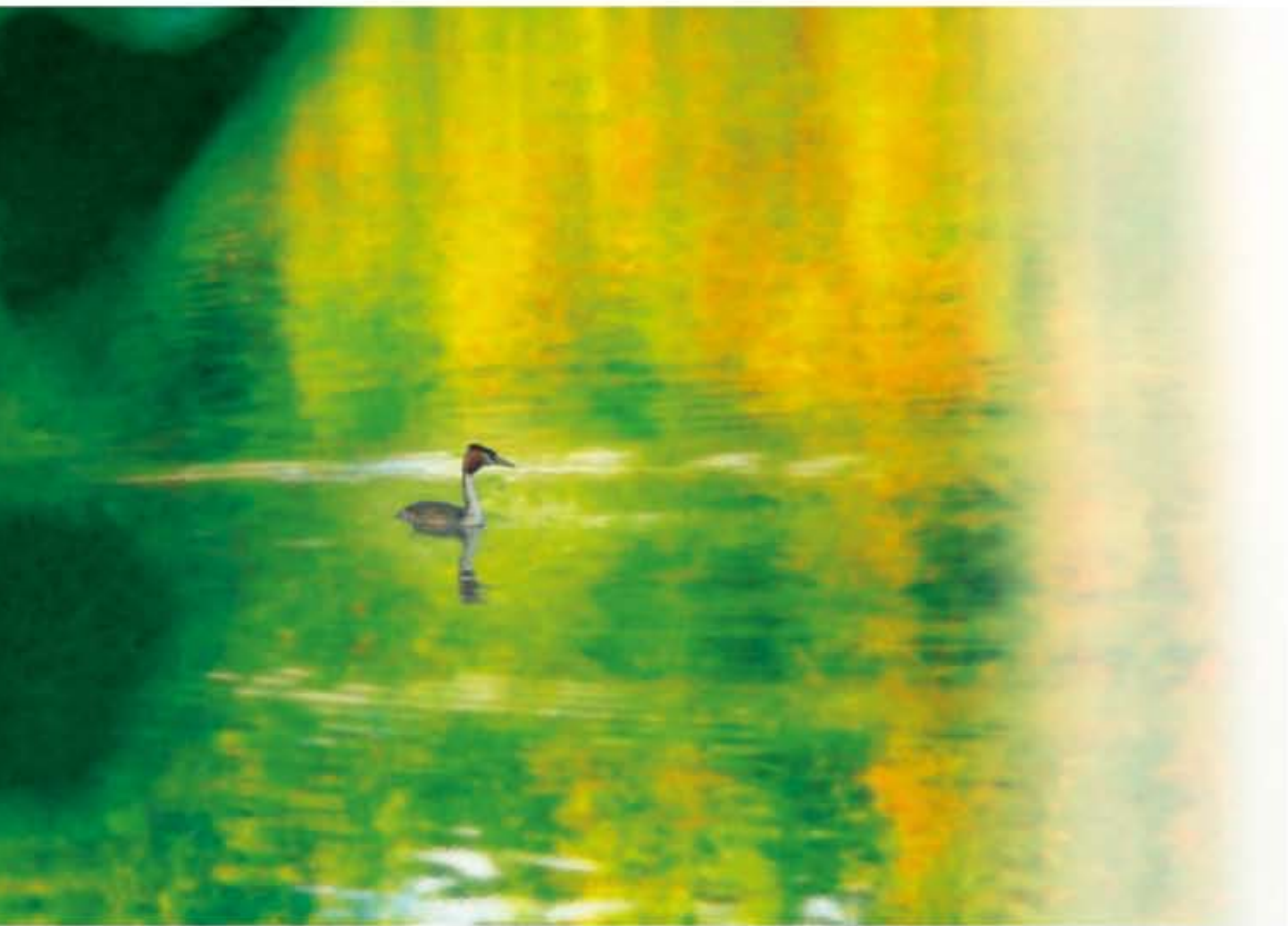
세월의 그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이 사진이 그나마 가장 나은 거예요.  
아무튼 이들은  
몸집이 오리와 비슷하거나  
좀더 날씬합니다.  
(그냥 가을 호수의 빛깔이나 감상하세요!)







이 호수의 미인은 가까이 오는 법이 없어서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뺨 같은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헤엄치고 잠수하는 것만 좋아했어요.



이 사진이 별로라고 생각된다면  
더 이상 보지 마세요.  
다음 사진은 더 형편없거든요!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요.  
적어도 그들의 존재는 볼 수 있잖아요.  
쌍안경으로 보이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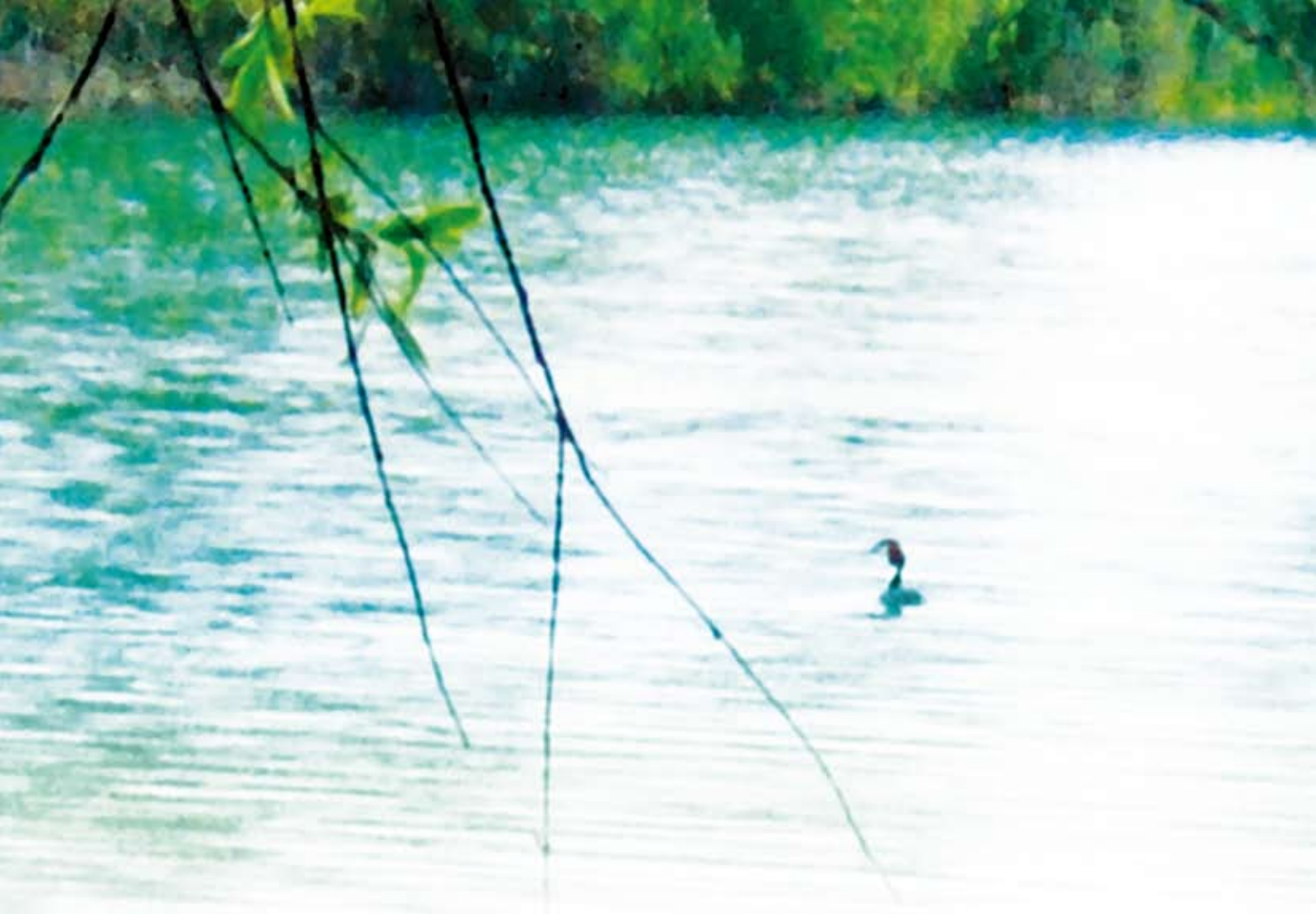


사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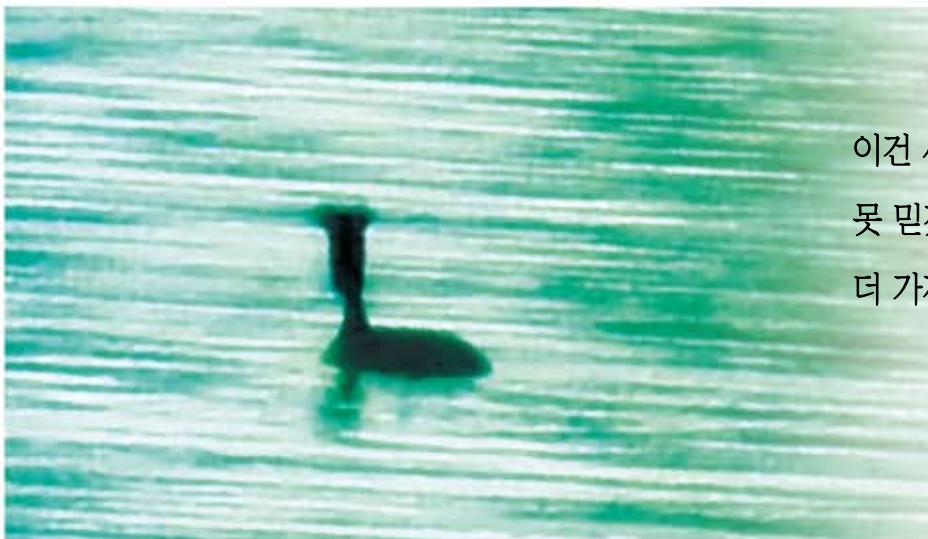




가을의 서명



예! 나도 같은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아니에요! 망치가 아니라  
펼논병아리예요.



이건 새예요!  
못 믿겠으면  
더 가까이서 보세요.  
하…… 하!



오! 그가 더 멀리 달아나고 말았군요.  
더 또렷한 사진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진심으로요!) 됐지요?





빨눈병아리 (칭하이 화풍!)  
쌍안경으로 본 모습

컴퓨터 덕분에 그가 더 '커졌군요'.



큰 눈병아리



더 큰 논병아리?

(하하! 아니예요. 같은 애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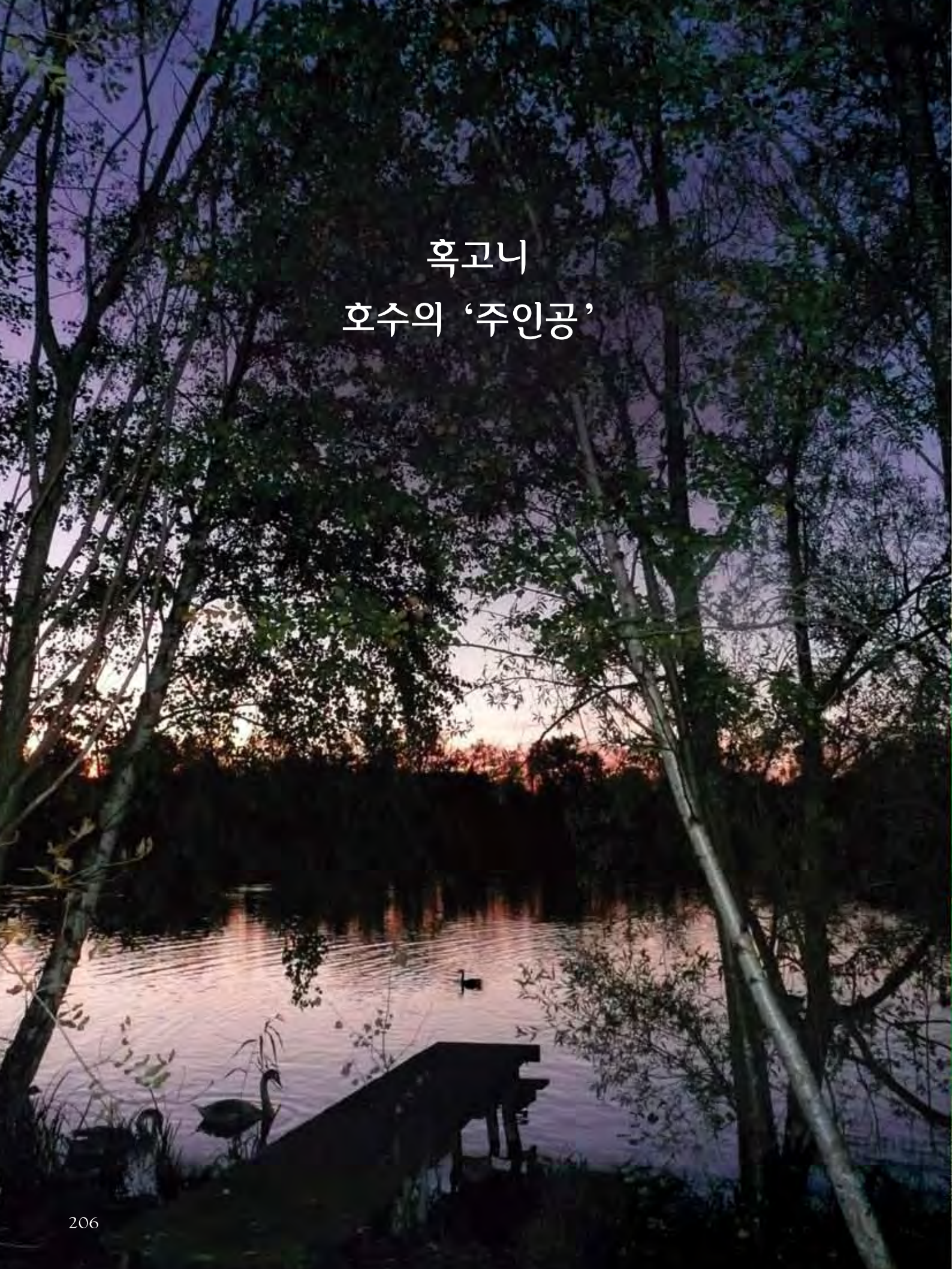
빨눈병아리 (칭하이 화풍!)  
쌍안경으로 본 모습

(혹시) 좀 전의 사진을 좋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는 아마 그의 왼쪽일 거예요!

찬란한 여름  
꽃이 말해 줍니다.







흑고니  
호수의 ‘주인공’

지나(Gina)와  
모루웨이(Moruwey)





옛날 옛적에 (백).....조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젊고 외로운 백조가

노부인의 집을 찾아왔지요.

그녀의 이름은 지나(Gina)였어요.





우리는 친구

지나와 여사



지나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모루웨이(Moruwey)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갈매기들과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유는 내게 묻지 마세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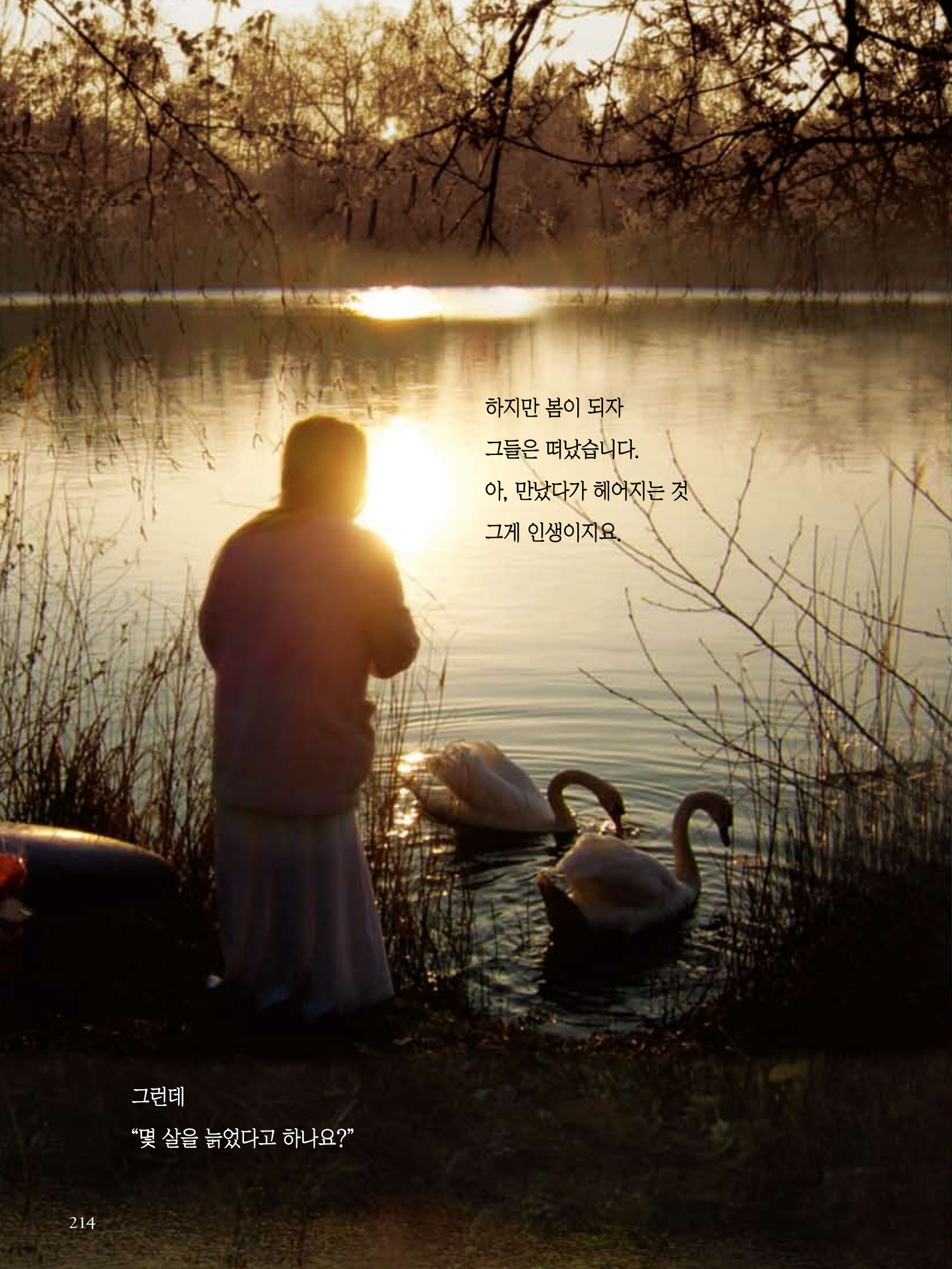
누가 너희를 나무라겠니?  
평화롭고 조용히 지내는데!



이 둘을 보세요.  
사랑스럽기 그지없어요!  
-천성적으로 다정하고 순해요.-




소박한 점심을 함께하는  
세 친구.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중이에요.

A person in a white coat stands by a lake at sunset, looking at two swans in the water.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 creating a golden glow over the water and the person's silhouette. Bare trees and reeds are visible in the background and foreground.

하지만 봄이 되자  
그들은 떠났습니다.  
아,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그게 인생이지요.

그런데  
“몇 살을 늙었다고 하나요?”

A white swan is swimming in clear blue water. The swan is facing right and has its wings slightly spread. A speech bubble is positioned above the swan's head, containing the Korean text '잘 있어요!' (I'm doing well!). The water is bright blue with gentle ripples. In the upper right corner, there are green tree branches hanging over the water. The swan's reflection is visible in the water below it.

잘 있어요!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화합, 평화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삽니다.”

피투(Pitu)





피투 (Pitu)와 사이(Sai)





얼마 안 있어  
이 미녀가 왔습니다.  
젊고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그녀는  
여사와 친구가 되고 싶어했어요.

이름이 'PeeToo'예요.

(쓰기는 Pitu라고 해요.)

그녀는 멀리서 왔어요.

핀란드가 집이라고 합니다.





마주보기?

고독한 미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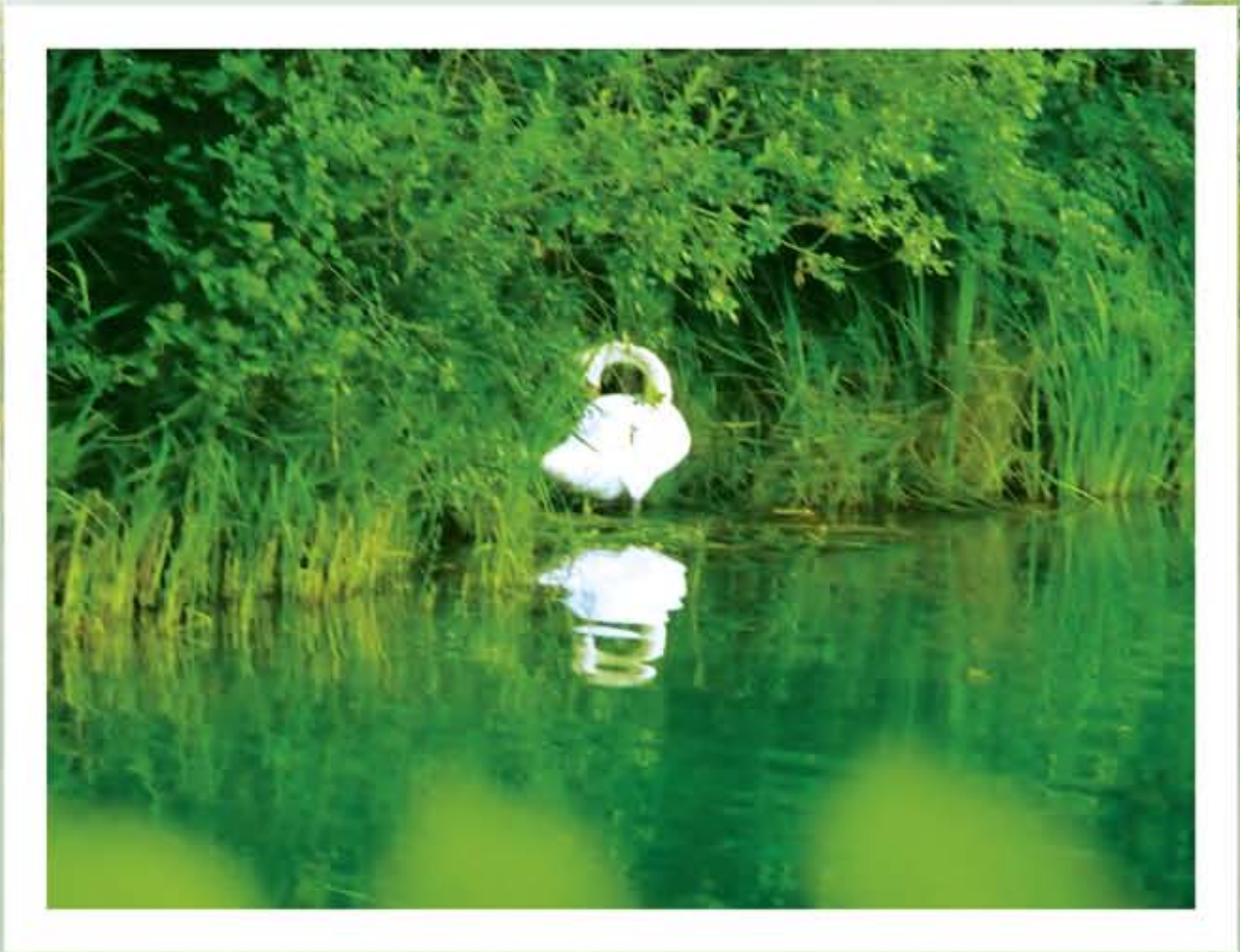


그녀는 아무라 호수에서  
혼자 마음껏 즐깁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어요.



자연 서식지에서 지내는 피투  
눈부시게 아름답고  
아주 똑똑합니다.





피투는 자기 집을 좋아합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 봐요.



오래지 않아



‘그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이(Sai)예요.  
인도에서 왔다고 하네요.



잘생기고 늠름하고 힘세고  
남성미가 100%입니다.

손님으로 북적이는 식당  
-소문난 음식-  
(통밀빵과 상추가 맛있어요.)



가족이 붙어난  
미래





이렇게 그들은 둘이서  
더 많은 '가족'을 만들었어요.  
여기 피투가 알을 품고 있어요.....  
피투가 걱정된 여사는  
음식을 가져다주며 보살폈습니다!



매일 노를 저어 찾아갑니다.



소공주섬





부지런한 최고의 '엄마들'에게는  
아무리 먼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래전에도 그랬듯이  
이제 너희 가족을 돌봐 줄게.  
좋은 친구를 다시 만나서 반가워.  
날개 밑에 몇이나 있니?”





정.....말..... 많구나.  
사랑하는 피투,  
네가 자랑스러워!





일대일로.

(하나는 등지에

하나는 텐트에.)




“마실 것을 가져오시다니, 인정이 많으시군요.  
하지만 저는 이 넉넉한 호수 물을 마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고마워요!”



사이사이가 좀 쉬려고  
백조섬의 동지로 올라왔습니다.  
피투 옆에 있어 주려고요…….  
(그녀는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지만요!)





피투가 알을 굴리고 있어요.  
사이사이는 옆에서 망을 보고 있고요.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려고  
대부분 물에서 망을 봅니다.  
(.....함부로 가까이 가지 마세요.  
사이가 잔뜩 겁을 줄 거예요!)





자부심을 느끼는 '다리 식당' 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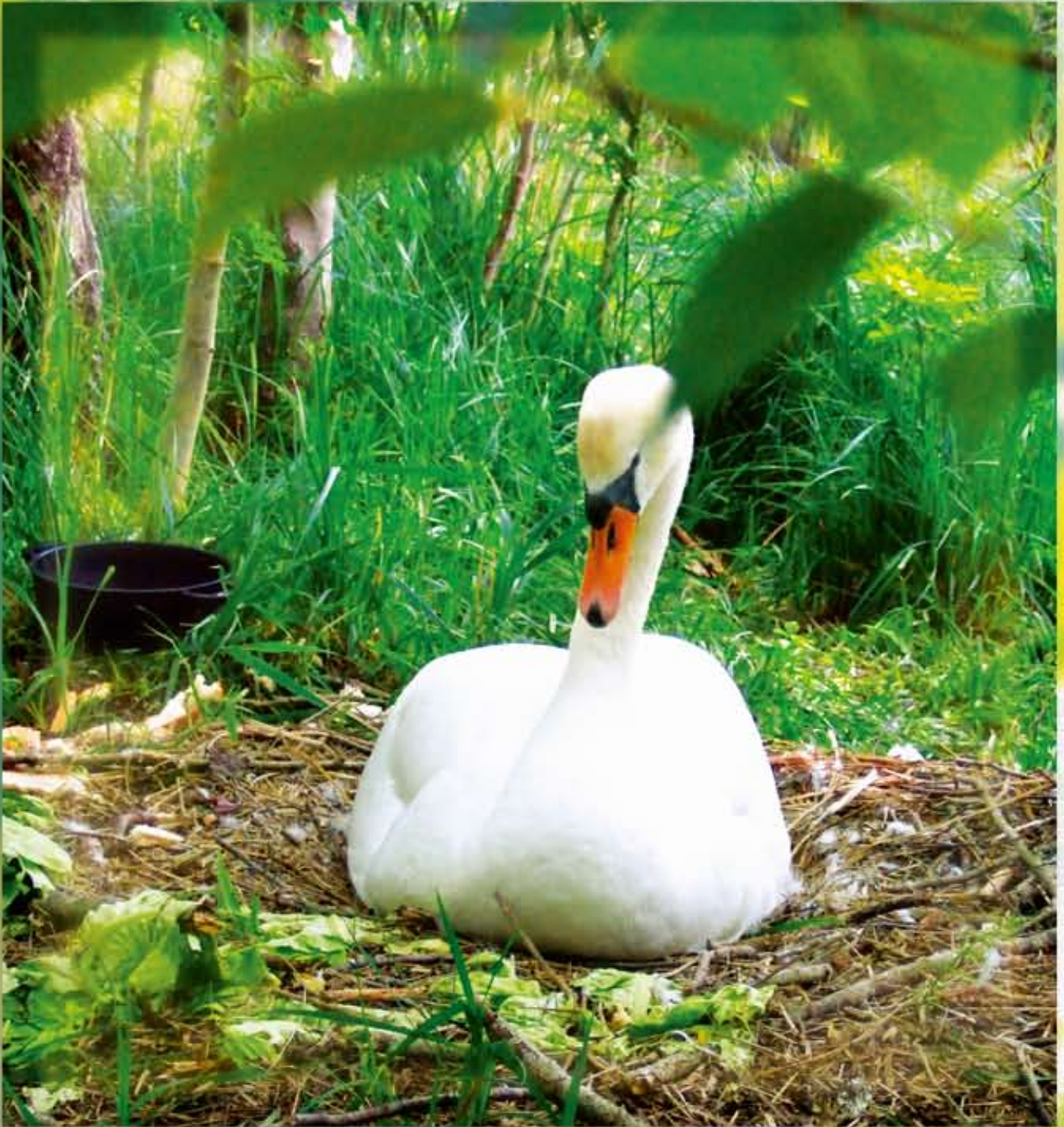


엄마와 태어날 자식 간의  
'의사소통'이 시작됩니다.



피투는 자신의 부드러운 깃털을 뽑아서  
둥지에 깔아 폭신하게 만듭니다.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햇살이 비치나  
알을 자기 목숨처럼 보호합니다.

여사는 날마다 피투와 사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빵과 상추, 시금치를 정말 좋아합니다.



둥지 곁 식당에 앉아 있는 피투





여사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합니다.  
심지어 그들 옆에 텐트까지 쳤어요.  
(좋은 생각은 아니니, 집에서 시도하진 마세요!)



백조들은 여사가 오고 가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녀에게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거리를 좀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보호하려고 사나워지기도 하니까요!

하루는 여사가 나무 막대기로  
둥지에 있는 뭔가를 치우려고 했어요.  
그게 피투의 몸을 찌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피투가 난폭해지더니 사이를 불러 쫓아 달라고 했어요.  
곧장 그녀에게 날아온 사이는  
몸을 거대하게 부풀린 채 다가와  
위협할 작정으로 췌췌 소리를 냈습니다.



이 '울타리 연결망'은  
그녀가 백조섬으로 갈 때 사용됩니다.  
더 빠르고 훨씬 안전하지요.  
(삭이가 바로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여사는 구석으로 몰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해명했어요. “난 좋은 뜻으로 그런 거야.  
피투 목에 있는 나뭇가지를  
치워 주려고 그랬던 것뿐이야.  
너희를 위해서!”  
그는 즉시 흥분을 가라앉히고는  
다시 물로 내려갔습니다! 휴우……!



나중에 여사는  
다리 옆의 좀 높은 곳으로 텐트를 옮겼습니다.  
위에서 백조들을 지켜보고  
아기들이 알을 깨고 나오는 걸 기다리려고요!



백조섬에 있는  
여사의 숙소



A scenic view of a lake framed by green foliage. The foreground is dominated by dark green leaves and branches, creating a natural frame around the lake. The water is calm and reflects the sky, which is a pale, hazy blue. The overall atmosphere is peaceful and serene.

## 새로운 가족



다시 한 번 질문: “한 사람만 있어도 탐험대라고 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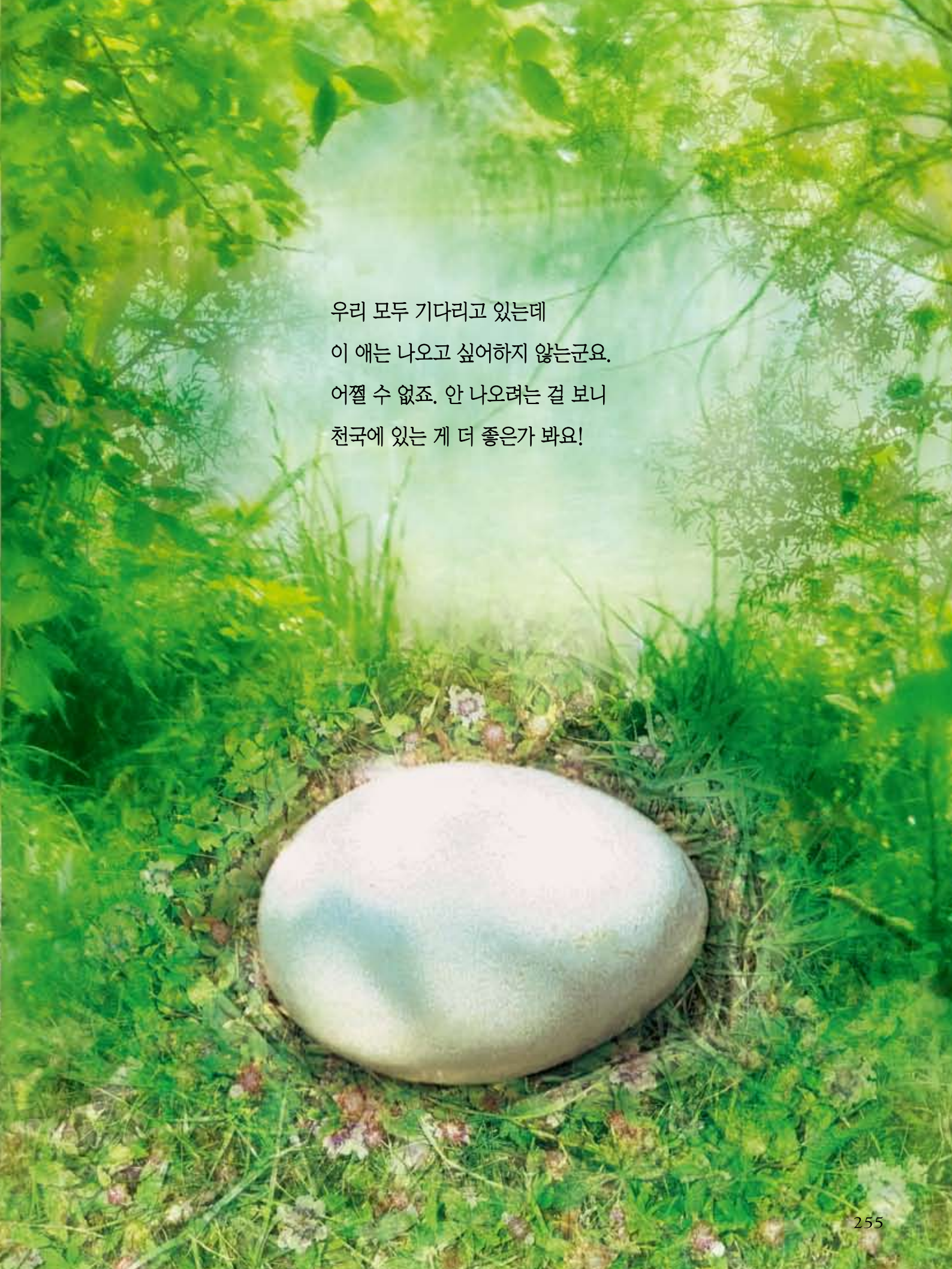
-상관없어요!





오, 세상에나,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누가 이토록 사랑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여사는 뿔 듯이 기뻐하며  
자기 아이들처럼 보살폈습니다.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애는 나오고 싶어하지 않는군요.  
어쩔 수 없죠. 안 나오려는 걸 보니  
천국에 있는 게 더 좋은가 봐요!





여사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고  
사생활을 존중해 주려고  
전에 있던 텐트를 포기하고  
근처의 다른 곳에 텐트를 쳤습니다.





지금은 보이는데

이제는 안 보여요.





자, 탐험을 떠나기 전에  
주의사항을 잘 들어 두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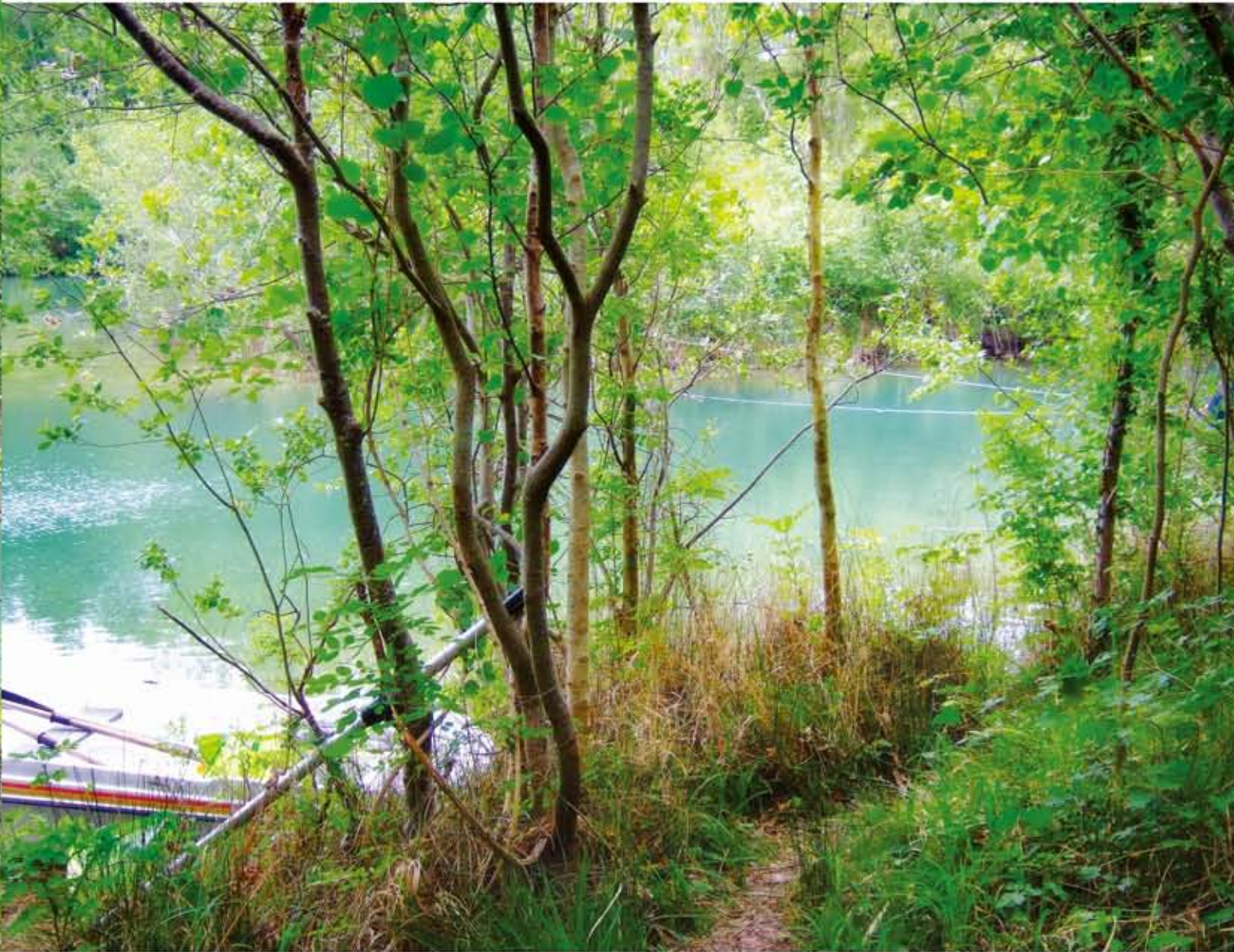
아빠와 함께하는  
첫 호수 나들이

누가 사이이고 누가 피투인지 분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는 몸집이 더 크고 발이 까맣습니다.

피투는 좀더 날씬하고 옅은 색의 '발'을 가졌으며 세련됐습니다.







또 둘 중에서 피투가 더 고귀하고  
우아하고 다정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녀에게는 존경과 찬탄을 받을 만한  
타고난 뭔가가 있습니다.





낮선 물에선  
엄마만 믿으렴.





즐거운 우리 집





태어난 지 보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아기들은 벌써 멀리까지 나와  
노부인에게 고마움을 전할 정도가 됐습니다.  
여사는 새로운 가족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훈련이 너무 고되거나  
바람이 너무 거셀 때는  
빠르고 편안하고 편리한  
훌륭한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사이는 아이들이 먹기 쉽도록  
음식을 잘게 씹어 줍니다.



애들은 끊임없이 먹고  
아주 잠깐 낮잠을 잡니다.  
알을 품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는 거의 쉴 틈이 없습니다!

봄이 한창인데도 아주 추워서  
밤에는 5, 6도까지 기온이 내려갑니다.  
피투는 앉아서 아이들을 지키며 좀처럼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니다.  
사이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얼음처럼 차가운 깊은 호수에서 줄곧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여사가 근처에서 야영을 하며 사이사이에겐 먹이를 주면  
그는 재빨리 한 입 먹고 가곤 했습니다.  
피투가 어떻게 그리 오래 견딜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녀를 건강하고 강인하게 해주는 걸까요?  
누가 사이사이를 밤새 따뜻하게 해주는 걸까요?

아기들이 알을 깨고 나온 후에도  
피투는 거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어요!  
몸무게가 줄었고  
깃털도 많이 빠졌습니다.  
깃털을 뽑아 등지에 까는 바람에  
이제 날개의 깃털이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니다!  
여사는 그걸 보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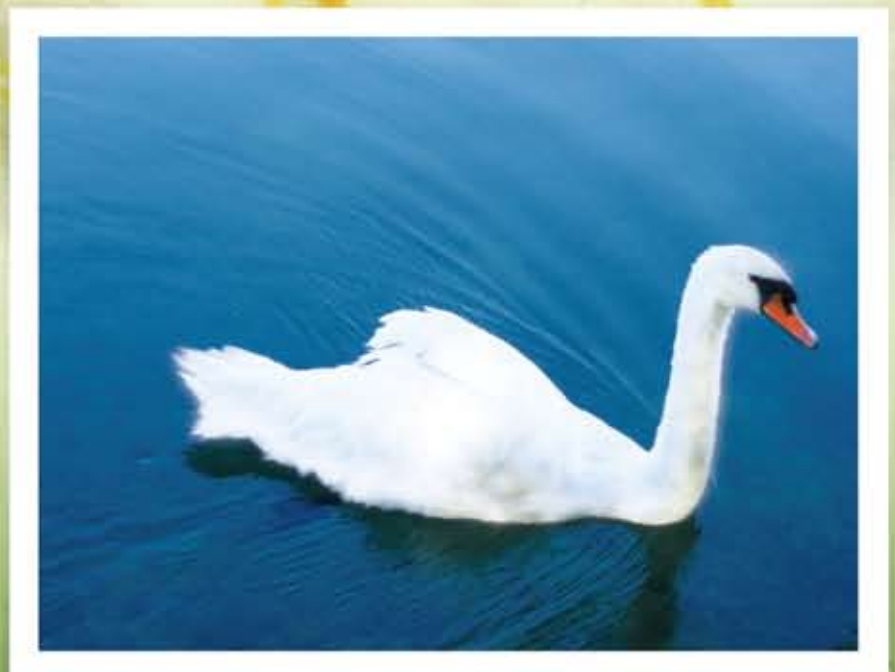
너희가 연약한 발로 걷는 땅바닥에  
깃털 용단을 깔았단다!  
너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겠지!





반쪽이 된 날개

날개가 제모습을 찾길 기다리며.



날개가 반밖에 안 남은 모습

그녀는 날지도 못하고 날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온통 아이들한테 가 있지요.



피투의 몸이 아윈 걸 보고  
여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사는 계속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먹으라고 구슬렸지만  
어쩌다 성공했을 뿐 대개는 실패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나날이 자라고  
아이들과 피투에 대한 여사의 사랑도 점점 깊어집니다.  
그녀는 사이도 사랑하지만  
엄마 백조에게 더 연민을 느낍니다.



피투는 한순간도 아이들한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쫓아 버리기도 하고 비버나 너무 가까이 다가오려는 침입자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아기 백조들이 아직도 그토록 연약하고 어리니 어떻게 그녀를 나무랄 수 있겠어요?

여사는 계속 피투에게 뭘 좀 먹이려고 애씁니다.

“피투야, 좀 먹으렴. 그래야 튼튼하고 건강해져서 아기들을 잘 돌볼 수 있지. 제발 피투, 어서! 이렇게 야위고 쉬지도 못하는 널 보니 가슴이 아프구나. 제발 좀 먹으렴.”





그리고선 여사는 통밀빵을 씹을 수 있는 크기로 찢어서 피투 옆에 던져 줬습니다. 피투는 조금 먹기도 하지만 그때도 ‘침입자’를 살피느라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아이들이 안전한지 사방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광경을 직접 눈으로 봐야만 여사가 피투에 대해 느끼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연민과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지요!

사이도 아주 부지런하고 영리합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아빠의 본분 그 이상을 합니다.

부화하는 동안 그가 차디찬 물속에 몸을 담근 채

한숨도 못 잤다는 것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는 물으로도 거의 올라오지 않고 즐기치게 감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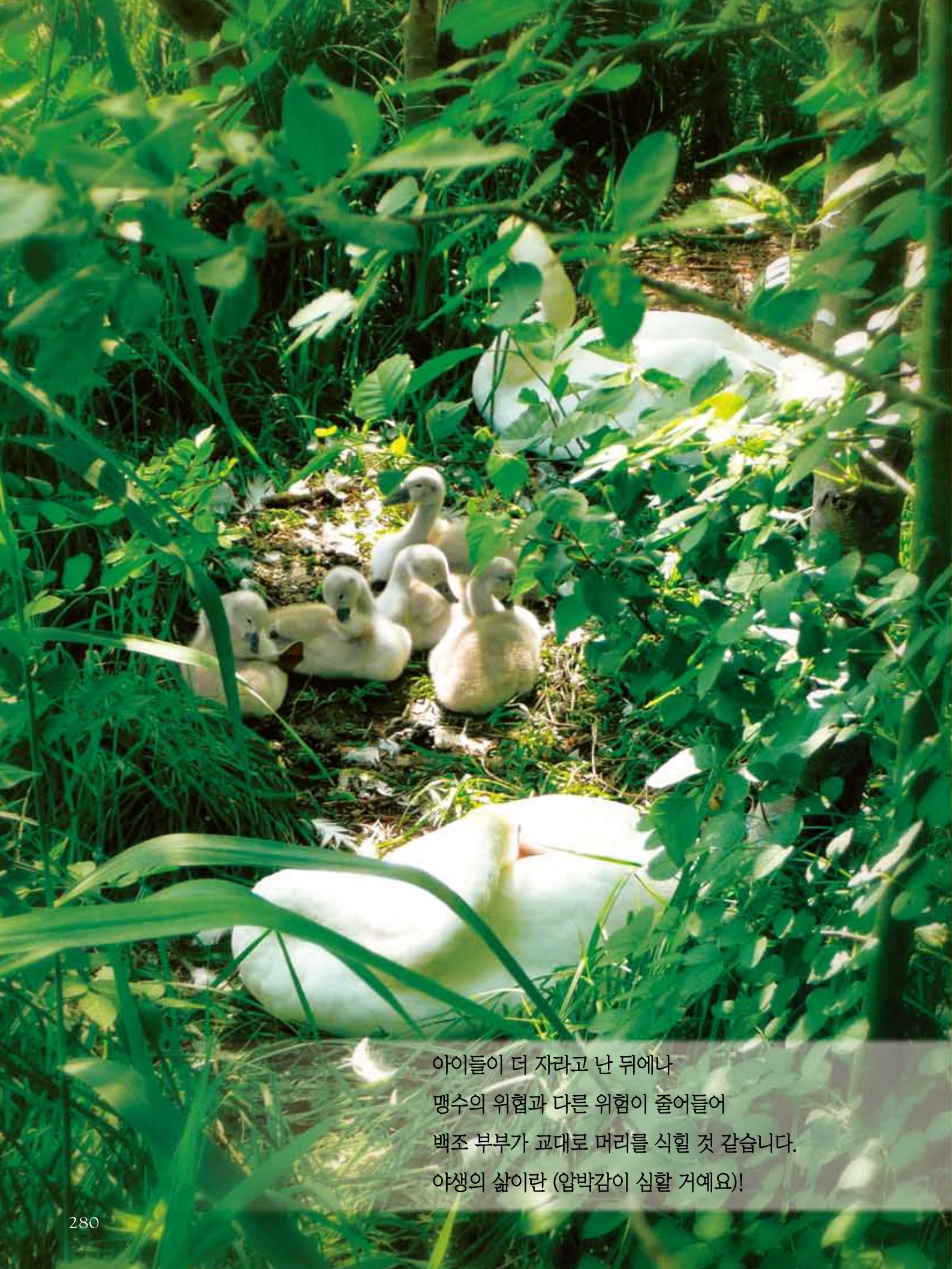


그는 호수 전체를 뚫어지게 살핍니다.  
털끝만큼의 여지도 주지 않고 어느 것 하나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번은 여사의 배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주위를 맴돌며 말했어요. “여기서 나가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래도 계속 다가가자 벌컥 화를 내며  
전투 태세를 취했습니다.  
그제야 우린 알아듣고 ‘날듯이’ 도망쳤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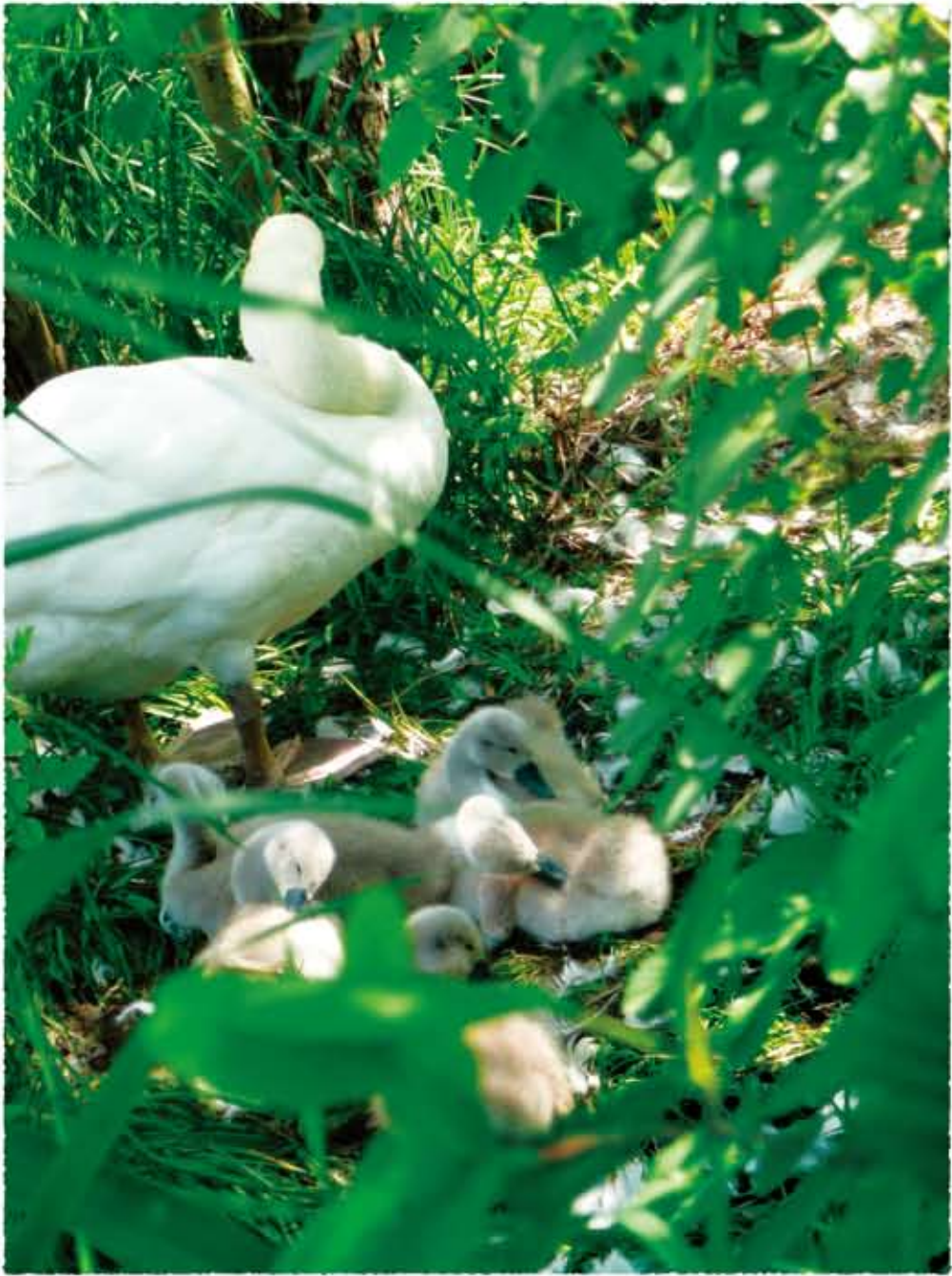


사이가 무척 피곤했나 봐요.  
코를 고네요!





아이들이 더 자라고 난 뒤에나  
맹수의 위협과 다른 위험이 줄어들어  
백조 부부가 교대로 머리를 식힐 것 같습니다.  
야생의 삶이란 (압박감이 심할 거예요)!




비밀 은신처



이 섬에는  
 주민이 많습니다.  
 백조, 오리, 물닭, 쥐, 비버……  
 몸집도, 모양도, 색깔도 다양하지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여기는 오리와 백조네 마을입니다.



백조네 이웃

보배들을 지킵니다.  
여사네 뒤뜰에서  
자기네 섬이나 물 위에서  
익숙한 땅에서  
낮선 곳에서……





아니면 어디서든지…….  
결코 알 수가 없지요!  
아이들은 너무 작고 연약하니까요.  
애들이 이곳을 좋아하면  
부모는 언제까지나 곁에서 지키고 있을 겁니다!

누가 아빠인지 알겠지요?  
맞아요, 발이 검은 쪽이에요.  
그는 늘 크고 더 무서운 모습으로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어요!  
-침입자를 막아 내려고요.-  
가까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절대 다가서지 마세요.)



나머지는.....

.....기러기 뭍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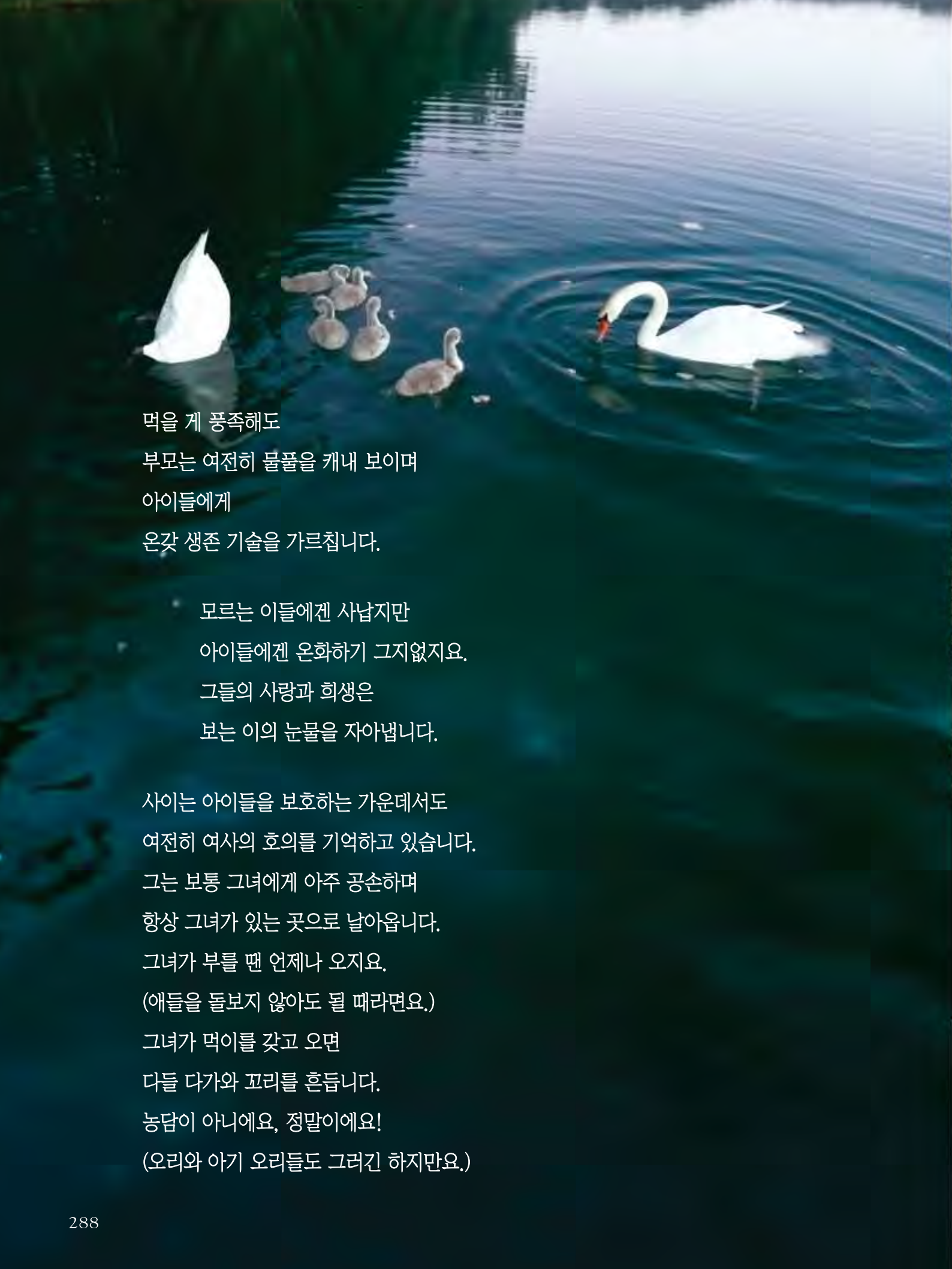


그들이 당신을 모른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낫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안다 해도  
조심하는 게 신상에 이로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덤빌 거예요!

**그러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먹을 게 풍족해도  
부모는 여전히 물풀을 캐내 보이며  
아이들에게  
온갖 생존 기술을 가르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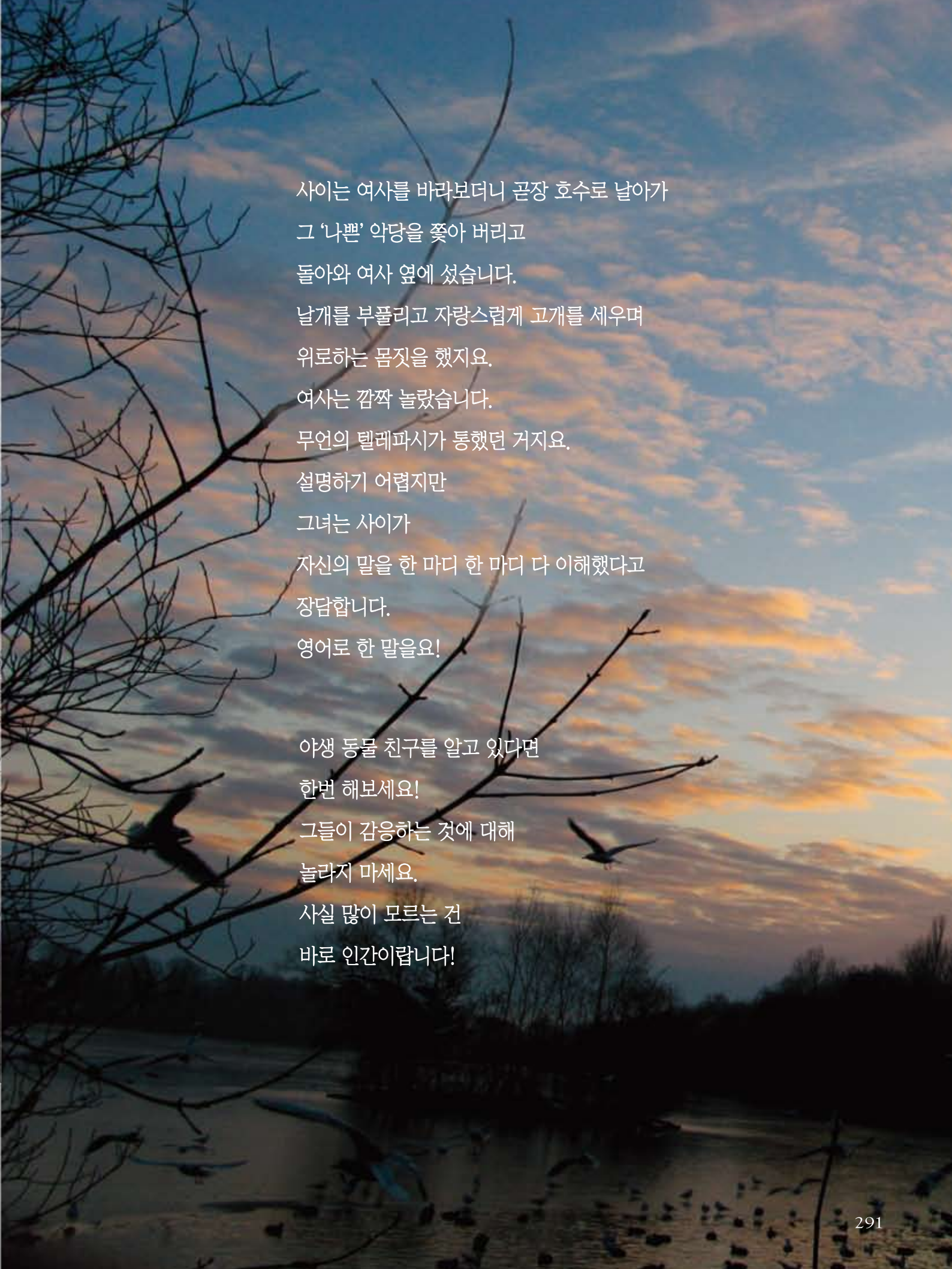
모르는 이들에겐 사납지만  
아이들에겐 온화하기 그지없지요.  
그들의 사랑과 희생은  
보는 이의 눈물을 자아냅니다.

사이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사의 호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통 그녀에게 아주 공손하며  
항상 그녀가 있는 곳으로 날아옵니다.  
그녀가 부를 땐 언제나 오지요.  
(애들을 돌보지 않아도 될 때라면요.)  
그녀가 먹이를 갖고 오면  
다들 다가와 꼬리를 흔들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오리와 아기 오리들도 그러긴 하지만요.)



한번은 아기 물닭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무척 속상해하던 여사가  
사이에게  
슬퍼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는 여사를 바라보더니 곧장 호수로 날아가  
그 '나쁜' 악당을 쫓아 버리고  
돌아와 여자 옆에 섰습니다.  
날개를 부풀리고 자랑스럽게 고개를 세우며  
위로하는 몸짓을 했지요.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언의 텔레파시가 통했던 거지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녀는 사이가  
자신의 말을 한 마디 한 마디 다 이해했다고  
장담합니다.  
영어로 한 말어요!

야생 동물 친구를 알고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감응하는 것에 대해  
놀라지 마세요.  
사실 많이 모르는 건  
바로 인간이랍니다!





그들이 자애로운 부모와 충직한 수호자로서  
극진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든 감동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옆에서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보이나요?  
그들도 가장 좋아하는 거지만  
입도 대지 않습니다.  
호수의 물풀로 배를 채울 뿐이지요!





아이들은 무력무력 자랍니다.  
끊임없이 먹을 것 같아요!  
여사는 계속 주고  
아이들은 계속 와삭와삭 먹어댑니다.  
두세 시간마다 먹는데  
밤낮없이 먹어요.  
상추와 빵만 먹는 건 아니에요.  
사이와 피투는 야생에서 먹이를 얻는 법도 가르칩니다.  
자립심을 익히는 게 좋지요.  
여사는 언제 무엇을 주고, 언제 주지 말아야 하는지 압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이는 늘 먹이를 잘게 씹어 주거나  
몸짓으로 “이걸 먹으렴.” 하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들의 ‘대화’가 보입니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



황실 다리 식당 부근



안녕하세요!

천국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





거의 다 왔어.  
어서 가자, 아가들아.  
여사께서 먹을 것과 사랑을 갖고  
기다리고 있단다.



백조대로(大路)




그들은 여사네 뜰에서  
늘 편하게 식사를 합니다.  
수줍음도,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어요.  
그들은 싱싱한 상추를 좋아하고  
여사는 먹이는 걸 좋아합니다!



여사네 궁중 오찬은  
아삭아삭한 상추와 영양빵.  
힘든 장거리 수영 후에  
편안하게 음식을 즐기는 건 정말 근사해요.





홀쩍 자란 아이들





내 말이 이해되지요?



물에 있을 때는  
더 작아 보이지만  
땅으로 올라오면  
몸집이 엄마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여전히  
엄마한테 바짝 붙어 다니며  
엄마 말을 항상 잘 듣습니다.  
'엄마는 뭐든 다 알고 계셔.' 이렇게 생각하지요.





마지막 상추 한 조각  
여전히 맛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나눕니다.  
결코 따지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화목한가 보세요!  
모든 존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린데도  
벌써 항해할 줄 압니다.  
한쪽 물갈퀴만으로도  
안정되게 '서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가끔 그들은 호수에서

신나게 놀니다.

물 위에 똑바로 서 있거나

물 밑 깊숙이 잠수하기도 하고

살짝살짝 몸을 담그거나

매끄러운 솜털을 다듬기도 하지요.



왔다 갔다 하는  
넌 누구니?

하나 된 모습



어째서 백조가  
나무처럼 보이는 걸까요!  
누가 그들의 다른 점을 만들고  
누가 그들의 닮은 점을 만든 걸까요?



여사가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건데  
다른 '모든' 이들처럼  
백조도 코를 곤답니다!



24시간 내내

온갖 소리를 주시하고

온갖 기척을 듣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사이와 피투는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기꺼이 그 일을 해냅니다.

너희에게 경의를 표해.

그 모든 위대한 사랑에 경의를 표한다.





야생의 고요





‘위대한 보호’ 속에  
모든 곳이 천국 같아요.





'집처럼' 편안해요.

여긴 안심이 돼서  
이들 부모도  
잠을 잘 수 있어요!  
경계도 풀고요.  
(자기네 거처와  
여사네 뜰에서만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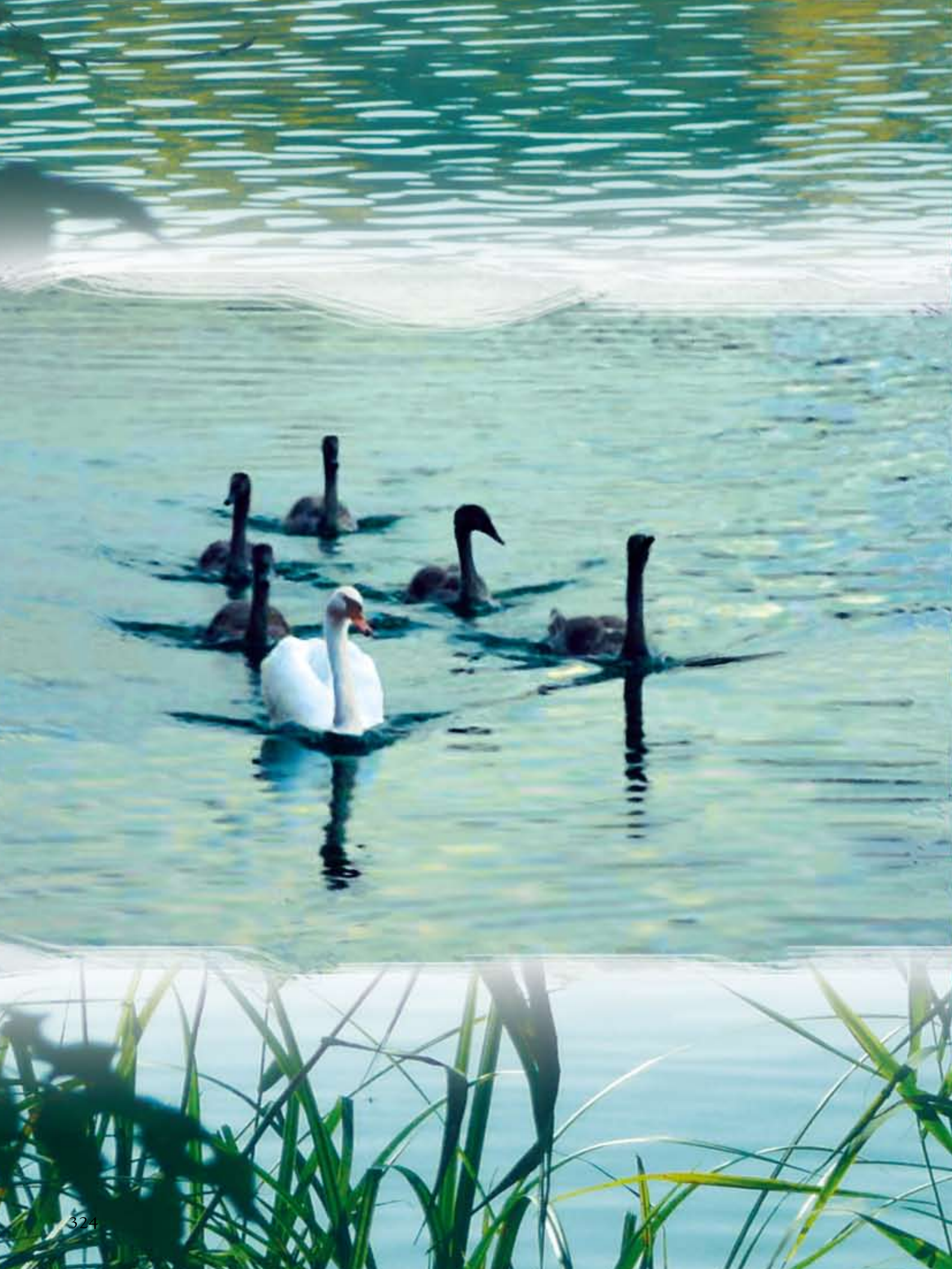






쑹쑹 자라고……

튼튼해져요!





깃털이 조금 하얗졌어요.



.....은 사방을 누비다

여사는 그들이 (야생에서처럼) 직접 찾아내도록  
대개 넓은 호수 이곳저곳에  
혹은 다리에 있는 '식당'에  
아니면 여사네 집 등  
도처에 먹을 것을 놉둡니다.  
먹이를 찾지 못하면 그들은 여사네 문을 두드리지요.  
처음엔 사이만 오거나 부부가 함께 와서  
여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썩썩 소리를 내며 오라고 신호합니다.







그들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아주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기다립니다.  
사이만 자기 그림자를 딴 애인 줄 알고  
몸을 조금 '부풀릴' 때가 있지요.  
그는 상대가 누구든 무조건 방어할 기세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사이가 먼저 길을 터서  
음식이 준비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빵이 있는 게 보이면  
돌아가서 가족을 데려오지요.



아이들이 다 자라서 때가 되면  
모두 떠날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초연함은 정말 대단해요!



미모가

별써부터

두드러지네요.....







날개 밑에 숨겨진  
하얀 깃털!





점점 하얘지고 있어요!



얼룩덜룩해지고요.





자립과 순종을 배우는 건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내가 하는 대로 해.”





‘비사교적인’ 왜가리  
여전히 우울하고 외롭군요!  
그는 낯선 나그네일 뿐이에요.



정미 넘치는 사회





엄마처럼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예뻐요!





날개 주변과 밑에 있는  
하얀 깃털이 보이나요?

난 높이 그리고 멀리  
날 수 있어요!







우린 이제 다 컸어요!

짧은 거리긴 하지만

벌써 날아다녀요.

날개가 튼튼해진 게 느껴져요!

태어난 지 3개월 반 됐는데

아직도 자라는 중이에요!

나무 위로, 공중으로

우리 시야는 모든 곳으로 넓어지고 있어요.



벌써 엄마만해졌어요!

후진 카메라에 담기엔  
'너무 크고' 아름답게 자랐어요.



그 아버지에



그 자식.





고요한 아침



해도 아직 일어나려 하지 않는 아주 이른 아침. 호수 전체와 주변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자욱하지만 날개 있는 주민이나 ‘없는’ 주민이나 벌써부터 아침을 먹으러 나섭니다.

확실히 간밤에 너무 추웠던 터라 열량을 보충해야 했을 겁니다. 특히 수시로 먹여야 하는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지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부모가 밤낮으로 몇 시간마다 아기 백조들을 데리고 나가 먹였습니다.

많이 들어 본 소리 같지 않나요?

예! 인간의 갓난아기와 같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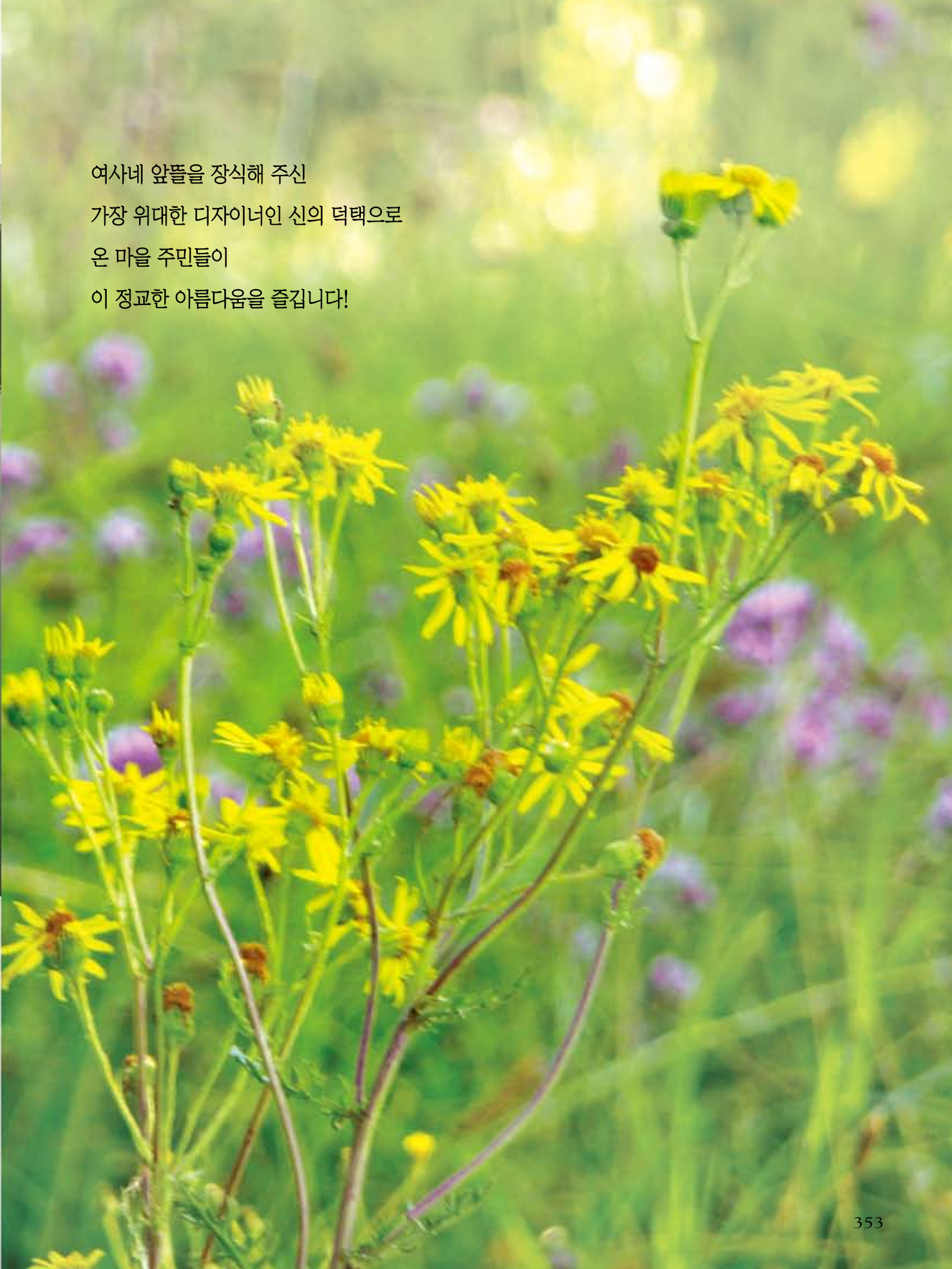






잘했다, 애야!  
네가 말이니까  
이제 곧 어른이 되면  
동생들을 이끌어  
너 자신과 서로를  
보살피면 되겠구나.

여사네 앞뜰을 장식해 주신  
가장 위대한 디자이너인 신의 덕택으로  
온 마을 주민들이  
이 정교한 아름다움을 즐깁니다!







피투는 아이들에게  
비행술을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단거리 비행만 하다가  
나중엔 호수 전역을 날게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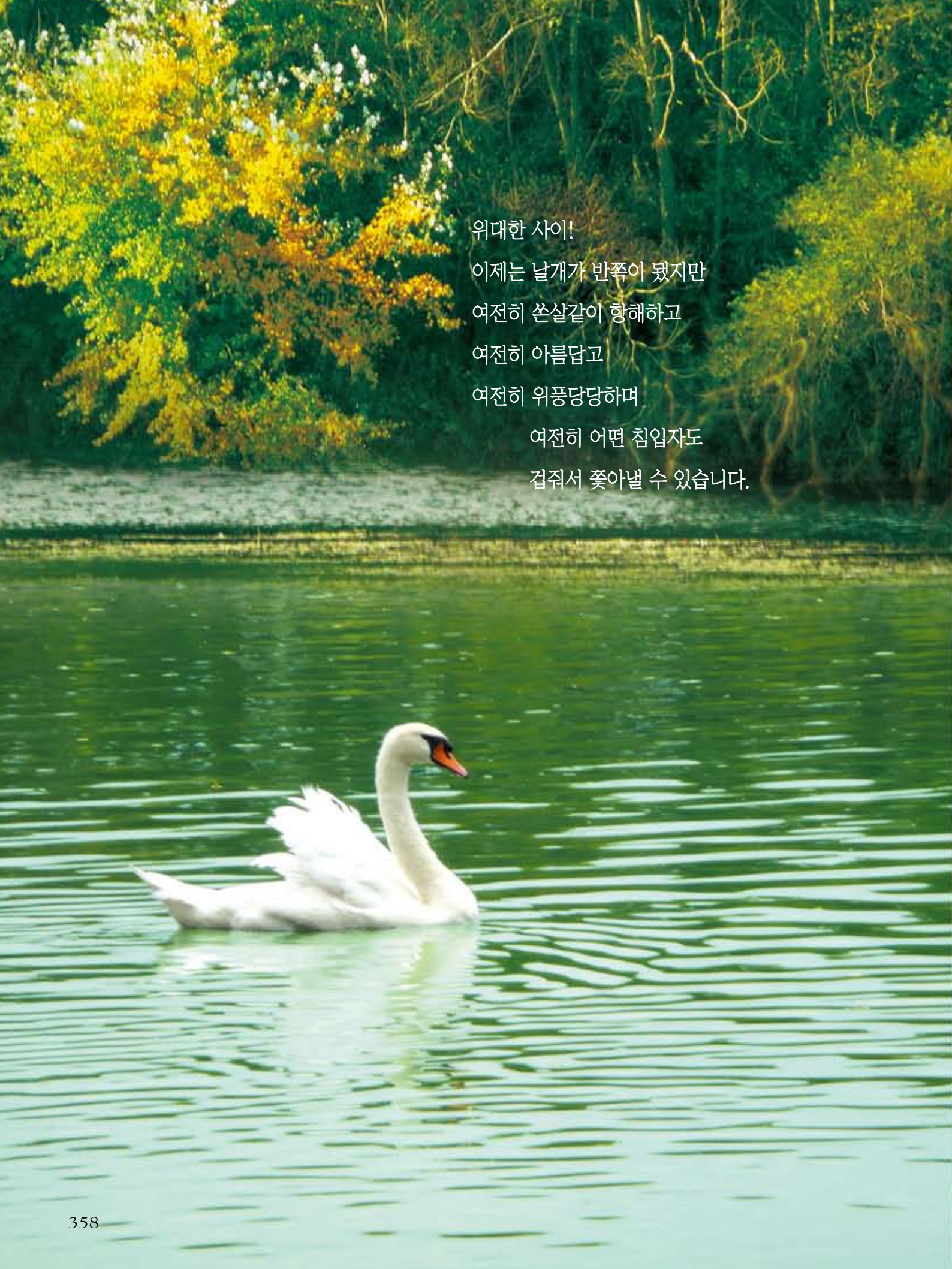


이제는 사이의 날개가  
반쪽이 됐습니다.  
털갈이를 하는 중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차가운 동지 바닥을 폭신하게 하려고  
깃털을 뽑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요.

아니면 수개월간 밤낮으로  
가족을 돌보고 지키느라  
녹초가 돼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힘겨운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그가 약해진 건 아니에요.  
감히 소중한 보배들한테 접근하려는  
기러기들이 있으면  
여전히 그들을 겁줘서 쫓아냅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걸  
마다하지 않지만  
늘 뒤쳐지니  
지금은 답답할 거예요!

A white swan with a long neck and orange beak is swimming in a pond. The water is greenish and has ripples. In the background, there are trees with yellow and green leaves, suggesting an autumn setting. The text is overlaid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위대한 사이!  
이제는 날개가 반쪽이 됐지만  
여전히 쏠살같이 향해가고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위풍당당하며  
여전히 어떤 침입자도  
겁줘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날개가 반쪽이 됐어도  
사이는 여전히 부지런하고  
훌륭한 수호자입니다.



기러기 수백 마리가 함께 있지만 그들은 음식을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결코 '큰형' 백조들한테 반격하는 법이 없으며,  
언제나 말 잘 듣고 온순하며 평화를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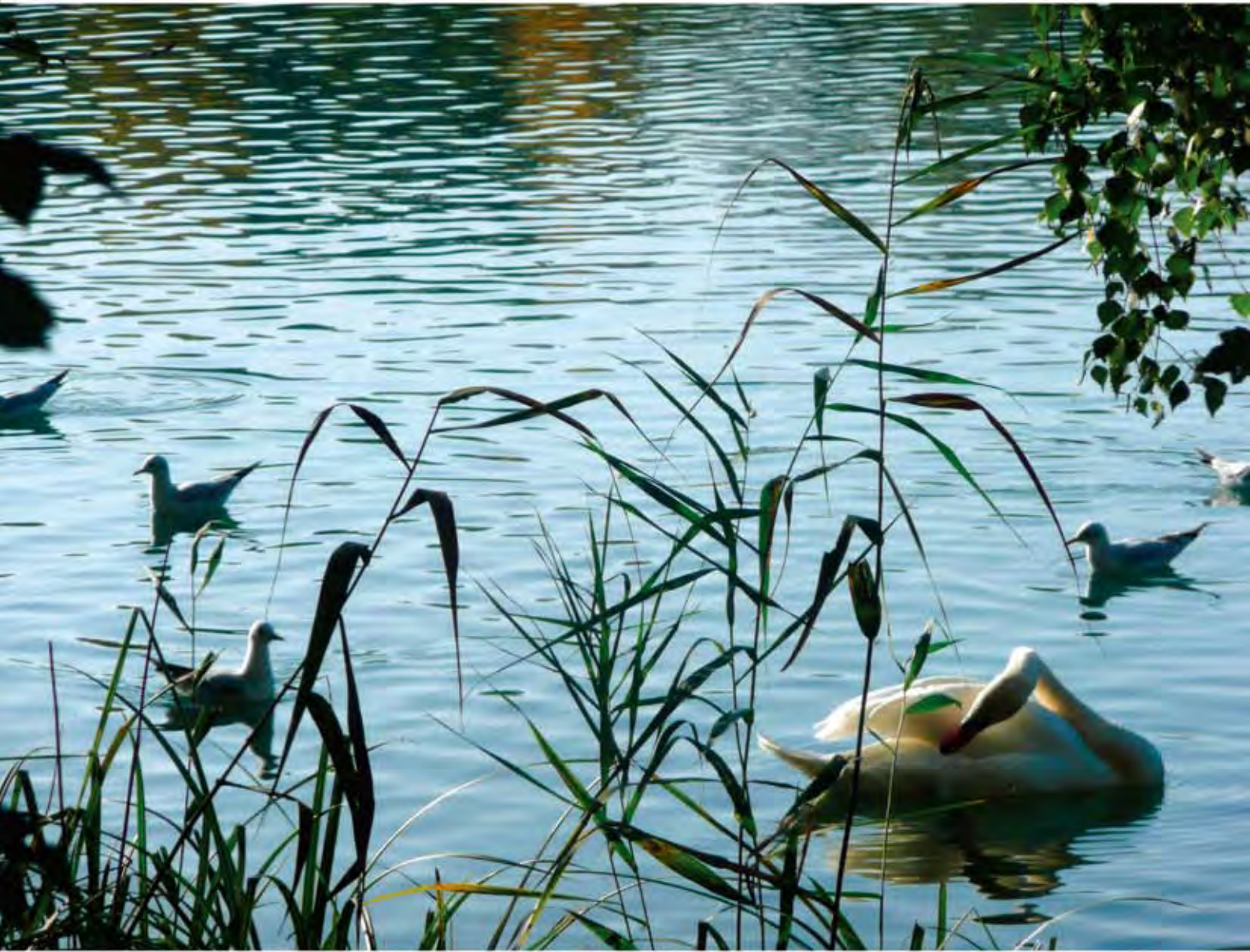




사이는 가끔 몸집이 큰 애들을 식씩거리며 쫓아낼 때도 있지만  
바다 갈매기처럼 '작은 애들'한테는 아주 부드럽게 대하며  
먹을 것을 나눠 먹자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여사가 가까이 있을 때면  
호수 밑바닥에서 물풀을 캐서 바치곤 해요!



갈매기와 공유하기








강인한 사이사이드, 저런!  
평소와는 달리 먹는 게 시원치 않군요.  
외로울 땐,  
그렇지요!



피투와 아이들도 없이  
하루 종일 외로운 사이.  
그들은 멀리 날아갔는데  
그의 날개는 아직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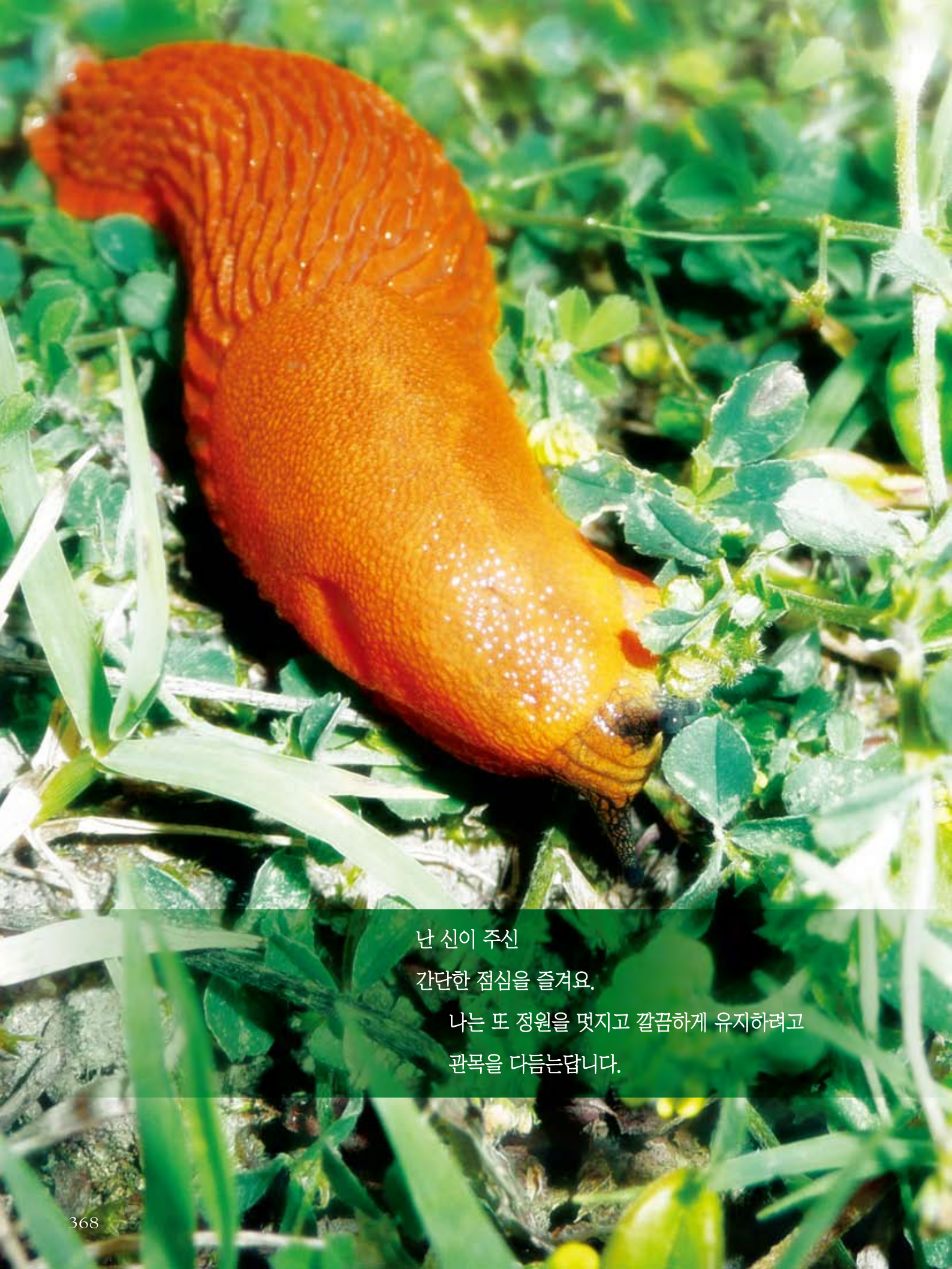


달빛 환한 밤  
피투와 아기 백조들이  
첫 장거리 비행에서 돌아오길  
기다리며.



작은 기적  
소중한 정원사





난 신이 주신  
간단한 점심을 즐겨요.

나는 또 정원을 멋지고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관목을 다듬는답니다.

그녀의 삶은 한가롭고

그의 여정은 느긋합니다.

그녀는 자연이 차려 준

신선하고 영양 만점인 아침 식사를 즐겨요…….



이 자그마한 주민이

정원의 미용사예요.

신은 그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셨어요!



\* 소중한 생명  
아름다운 빛깔  
누가 그녀를  
이처럼 정교하고 밝게  
디자인했을까요!



내가 작을지는 몰라도  
개미에 대면.....



.....난 거인이에요!


나, 아름답지 않나요?





봄과 여름이면  
신은 늘 여사에게 꽃을 선사하십니다.






비버  
댐 건설자



비버 누(Nu)를 만나 봐요.  
그는 댐 건설자이자  
자부심 강하고 자애로운 아빠이며  
다리 식당의 단골손님이에요.



은밀히 찾아와  
빵을 먹고 간답니다.



작은 생물이지만  
위대한 품성을 지닌  
NQ 10%의 소유자



조용하고 소심한  
비버 주(Zu) 여사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어느 정도 낯을 익힌 뒤에야  
조금씩 다가옵니다.  
물론 누처럼 성급하게 덤비진 않아요.  
그녀는 우아한 숙녀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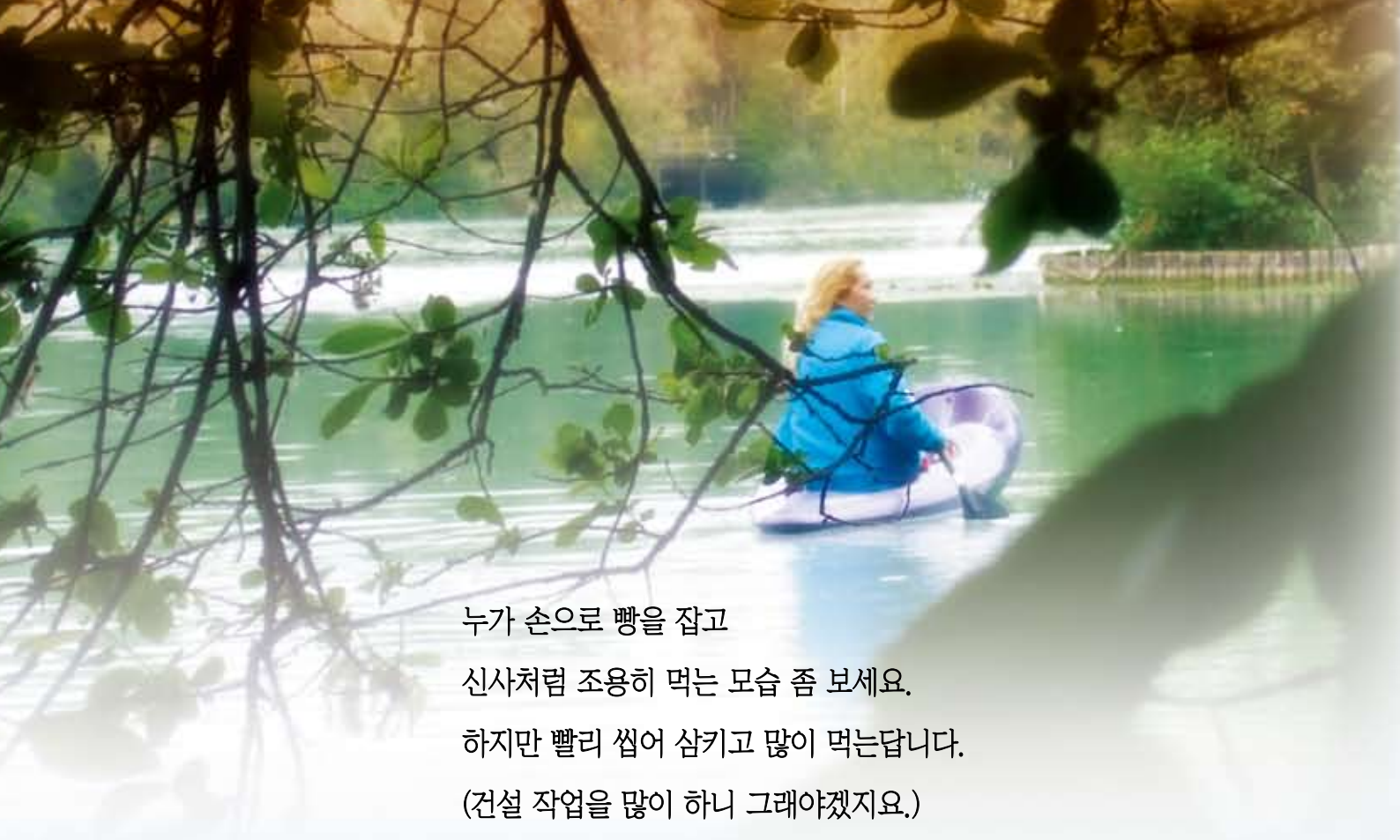


비버 부부네  
외동아들 쏘(So)



이제 세 번째 일행인 쏘(So)를 만나러 가요.  
그를 보면 아주 좋아하게 될 거예요.  
부모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려줘서  
쏘는 여사가 가까이 있으면 다가갑니다.  
물론 음식의 공도 크지요!  
아주 귀엽고 똑똑한 아이예요.





누가 손으로 빵을 잡고  
신사처럼 조용히 먹는 모습 좀 보세요.  
하지만 빨리 씹어 삼키고 많이 먹는답니다.  
(건설 작업을 많이 하니 그래야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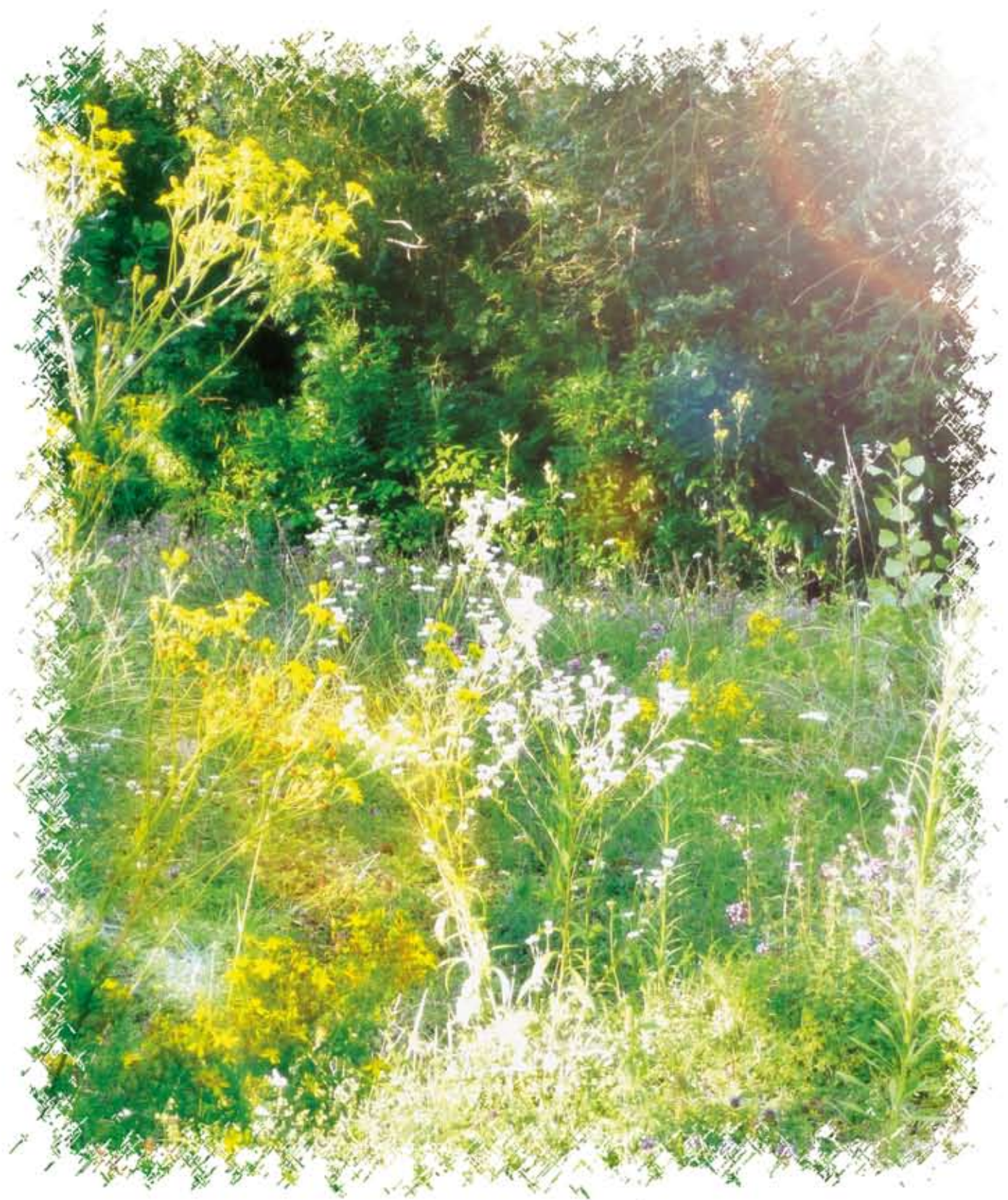


멋지지 않나요?



그는 이제 사람을 겁내지 않습니다.  
다리 식당으로 제일 먼저 달려와서  
빵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합니다.  
아주 정확히,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요.





주는 여전히 수줍어하고 낮을 가려서  
약간 거리를 유지하고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주가 약간 더 작아요,  
얼굴은 둥글고 더 분홍빛이고요.





둘의 차이점이 보이지요.

주는 좀 떨어져 있고 누는 아주 가까이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아주…… 멋집니다!




비버는  
1%의 NQ를  
가졌어요.

비버 아가씨 'Do'인데  
'두'라고 발음해요.





이곳에서 느껴지는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작은 들꽃이 신의 사랑을 가까이 가져옵니다.  
정원의 가냘픈 풀잎에도  
장엄한 은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A misty, green landscape with bamboo leaves in the foreground. The scene is hazy and atmospheric, with a soft green and blue color palette. The bamboo leaves are silhouetted against the light background, adding a sense of depth and texture.

물고기  
신비한 존재



거미네 가족과 함께 아영하기!

## 물고기와 빵



물고기도 빵을 아주 좋아해요.  
그들은 잔치에 꼭 참석합니다.  
여기 저녁을 먹으러 오고 있군요.  
사람들의 점심 식탁에 오르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에요!



여기 또 다른 물고기가 파티에 왔네요.  
우리는 매일 풍요로움과 삶을 축하합니다.  
호수 안팎의 주민들은 파티를 좋아해서  
다들 흥겨워하며 차려진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신의 이름을 아는 모두에게 신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만물 속에 거하시는 '그분'께 영광의 찬미를!



세 가지 오묘한 빛깔을 지닌  
신비한 '모습'!

신비한 생명체!

혹시 괴물?

아니,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예요.


저녁 먹으러 올라오고 있어요.







세월의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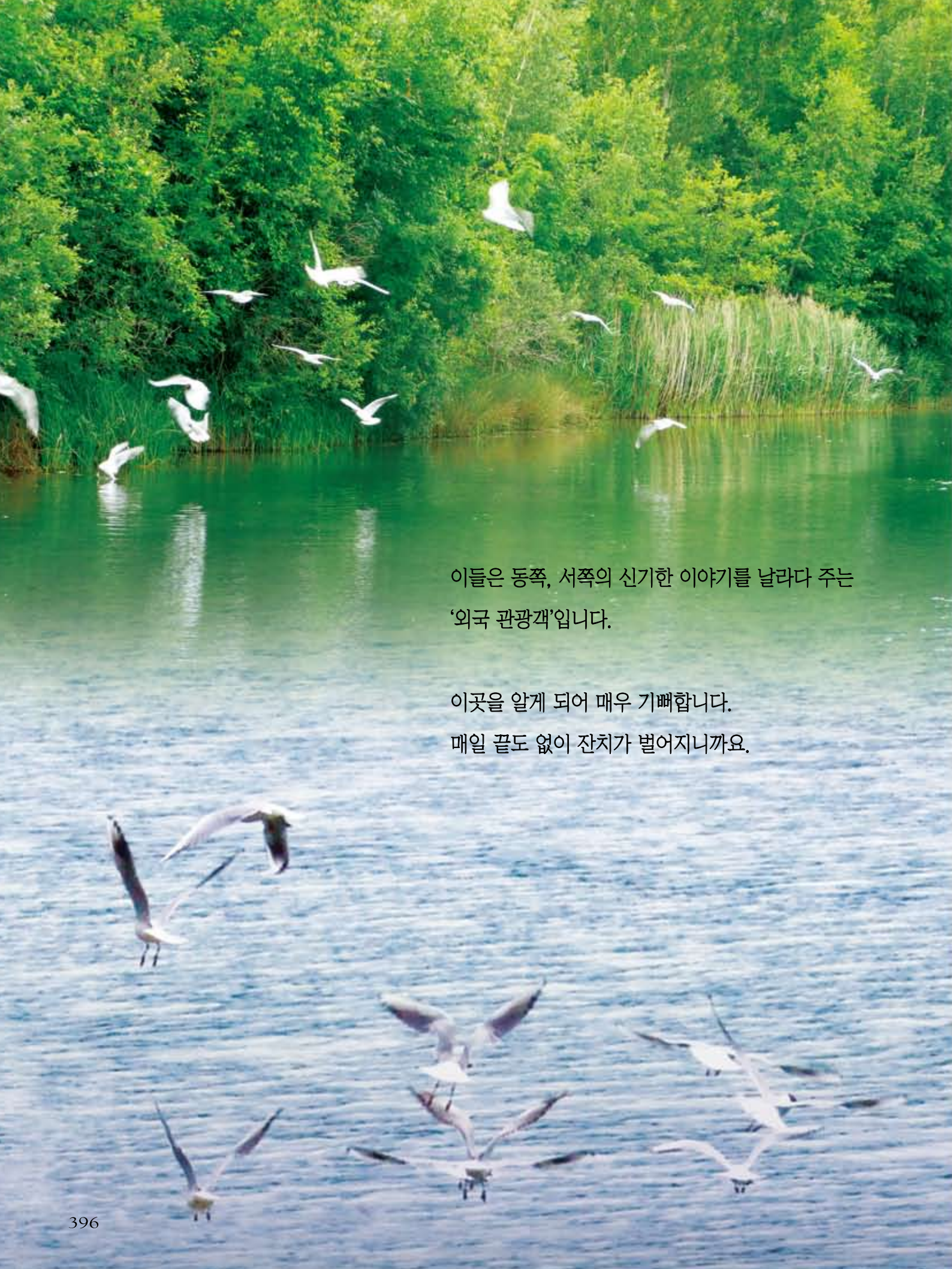


갈매기  
나누고 보살피는.....  
붙임성 있는 나그네





나그네 갯매기는  
부리로 먹이를 나눕니다.  
다리 식당이 문을 열 때마다  
어서 가자고 친구들을 부르지요.  
오리와 백조를 비롯한 모두와 함께 나눕니다.  
절대 혼자 먹는 법이 없어요.



이들은 동쪽, 서쪽의 신기한 이야기를 날라다 주는  
‘외국 관광객’입니다.

이곳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뻐합니다.  
매일 끝도 없이 잔치가 벌어지니까요.




“우리 고향에는 ‘공짜 점심’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주니  
정말 마음에 들어요. 더 오래 머물 거예요.  
이곳에는 우리가 바라는 게 다 있거든요.”





들희의 찬란함!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정원의 새들  
행운도 가져다준다는  
기쁨 배달부!





야호!

단골손님이 된  
아름다운 새들이에요.  
풀밭에 먹을 게 없으면  
다가와 유리를 툭툭 친답니다!……



여사한테 가서  
말을 한번 해볼게.  
이것보다 그녀가 주는 음식이 훨씬 더 맛있거든.  
기다려, 금방 올게.



여사는 그들에게 항상 먹을 것을 줍니다.  
거의 친구가 다 됐어요.  
서로 말 한마디 없지만  
단순하고도 때문지 않은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동안 여기 있는 거라도 먹어야지!



저기로 가 보자.

빵이 사방에 깔렸어!.....

이런 건 먹을 필요가 없어.

진짜 음식이 뭔지 보여 줄게.

빨리 가자!

네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  
나도 먹어 보고 싶어.





자연이 선물한 보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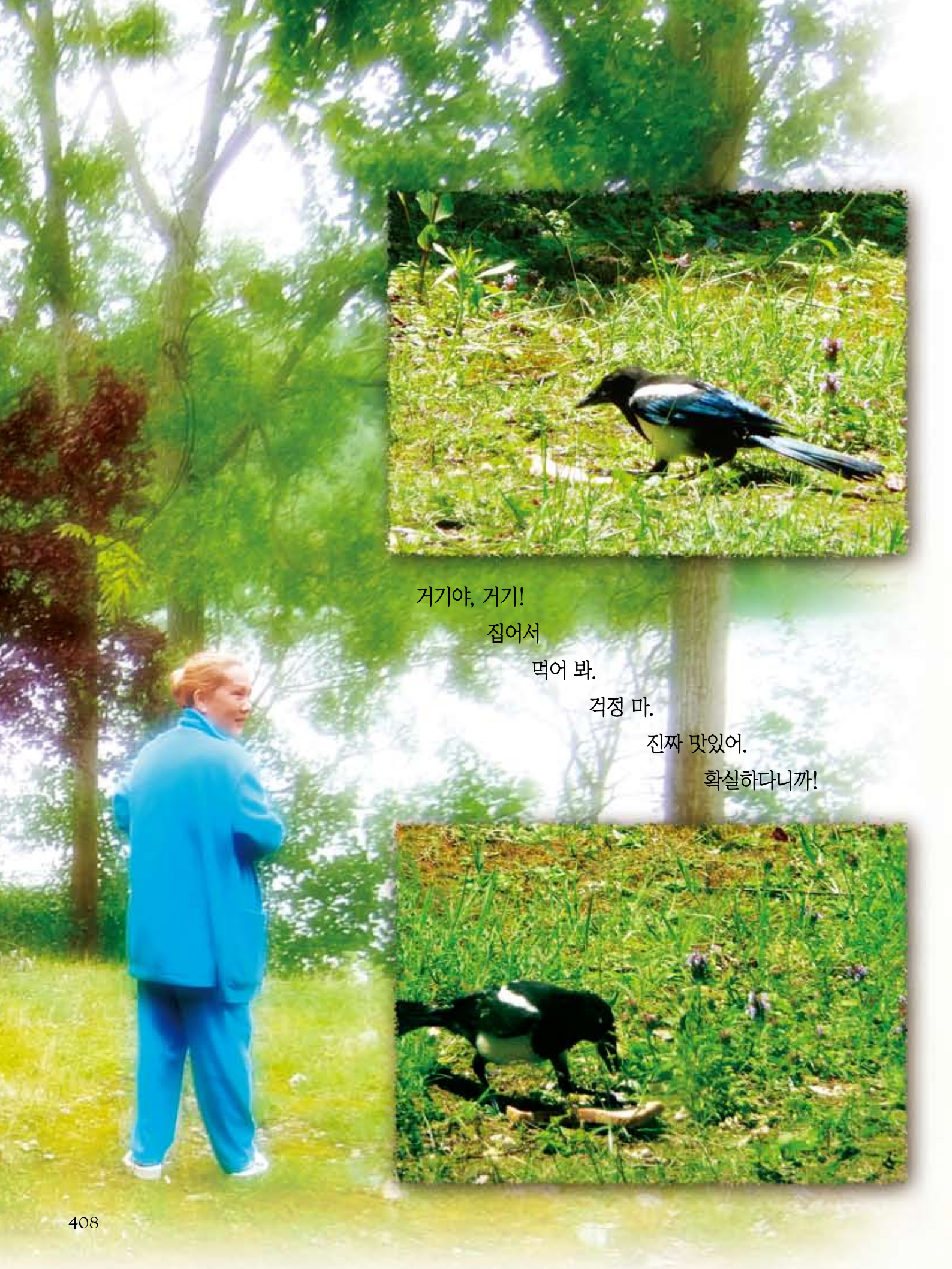
와, 저 녀석 정말 짹싸네.  
아까 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도 모두 나눠 먹을 수 있어.  
여사가 늘 넉넉하게 챙겨 주니까.







거기야, 거기!  
집어서  
먹어 봐.  
걱정 마.  
진짜 맛있어.  
확실하다니까!






어! 어! 자기야, 기다려 봐.  
그래도 여기서 먹는 게 훨씬 안전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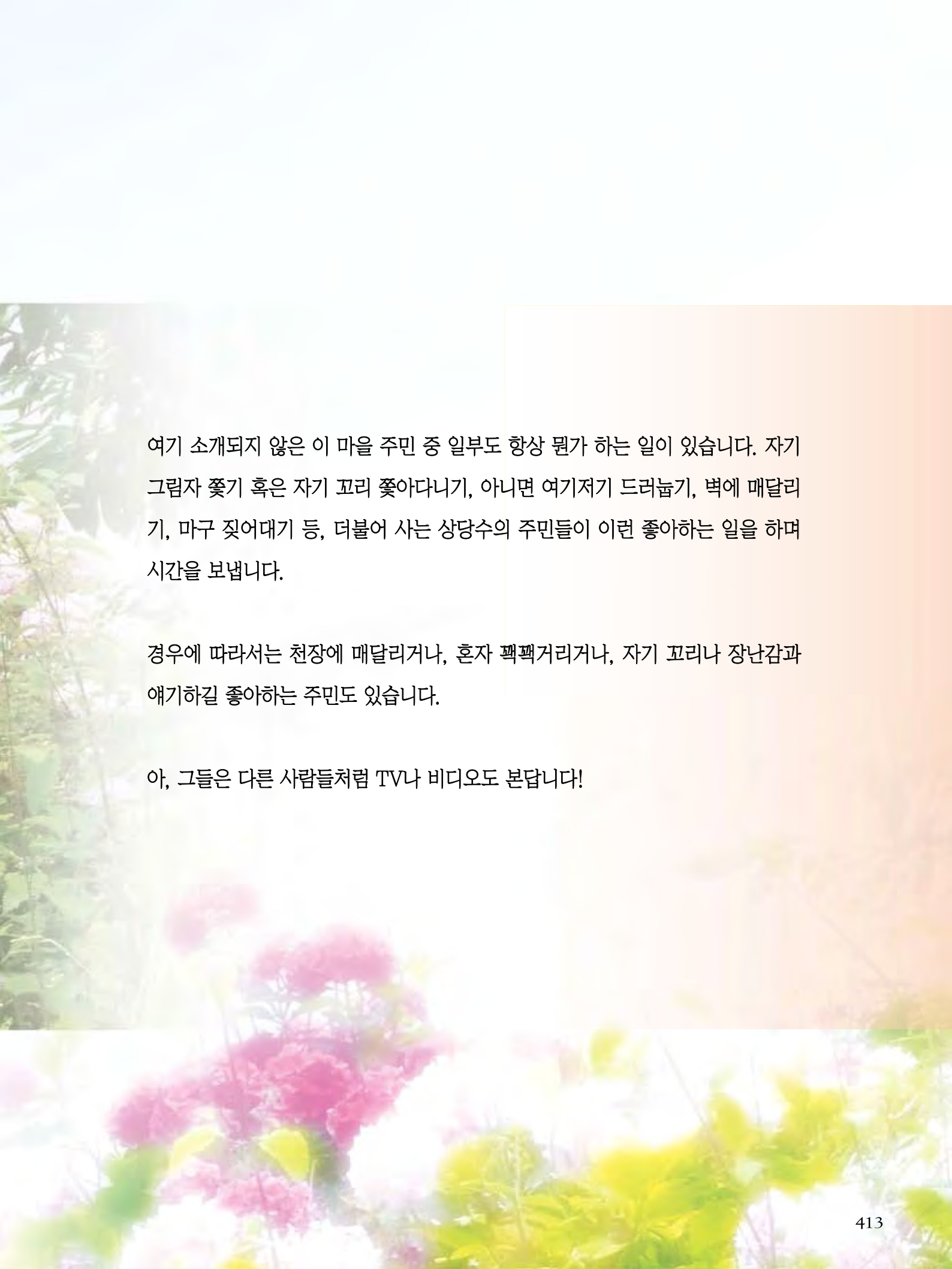
여사네 뒤뜰에 핀  
목련





그 밖의 주민들





여기 소개되지 않은 이 마을 주민 중 일부도 항상 뭔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그림자 쫓기 혹은 자기 꼬리 쫓아다니기, 아니면 여기저기 드러눕기, 벽에 매달리기, 마구 짚어대기 등, 더불어 사는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런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천장에 매달리거나, 혼자 푹푹거리거나, 자기 꼬리나 장난감과 얘기하길 좋아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아,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TV나 비디오도 본답니다!



새들의 놀이울



어떤 개들의 집!!!





누구네 집인지 맞춰 보세요!










이 마을에서는 언제나  
주민들의  
특별 공연이  
열립니다.

(이 애는 사랑에 빠졌군요.  
보이지요?)

이렇게면..... 벽에 매달리기



아니면..... 여기저기 드러눕기



어떤 '몸'을 보호하나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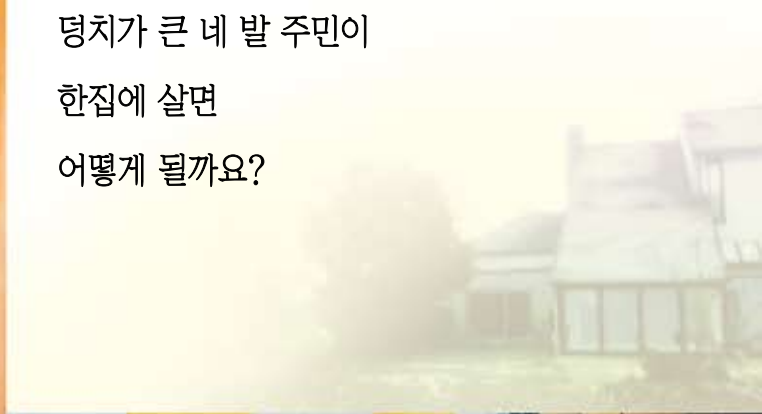
아뇨! 보호받는 몸이에요.



BROKEN  
GLASS  
B. CAREF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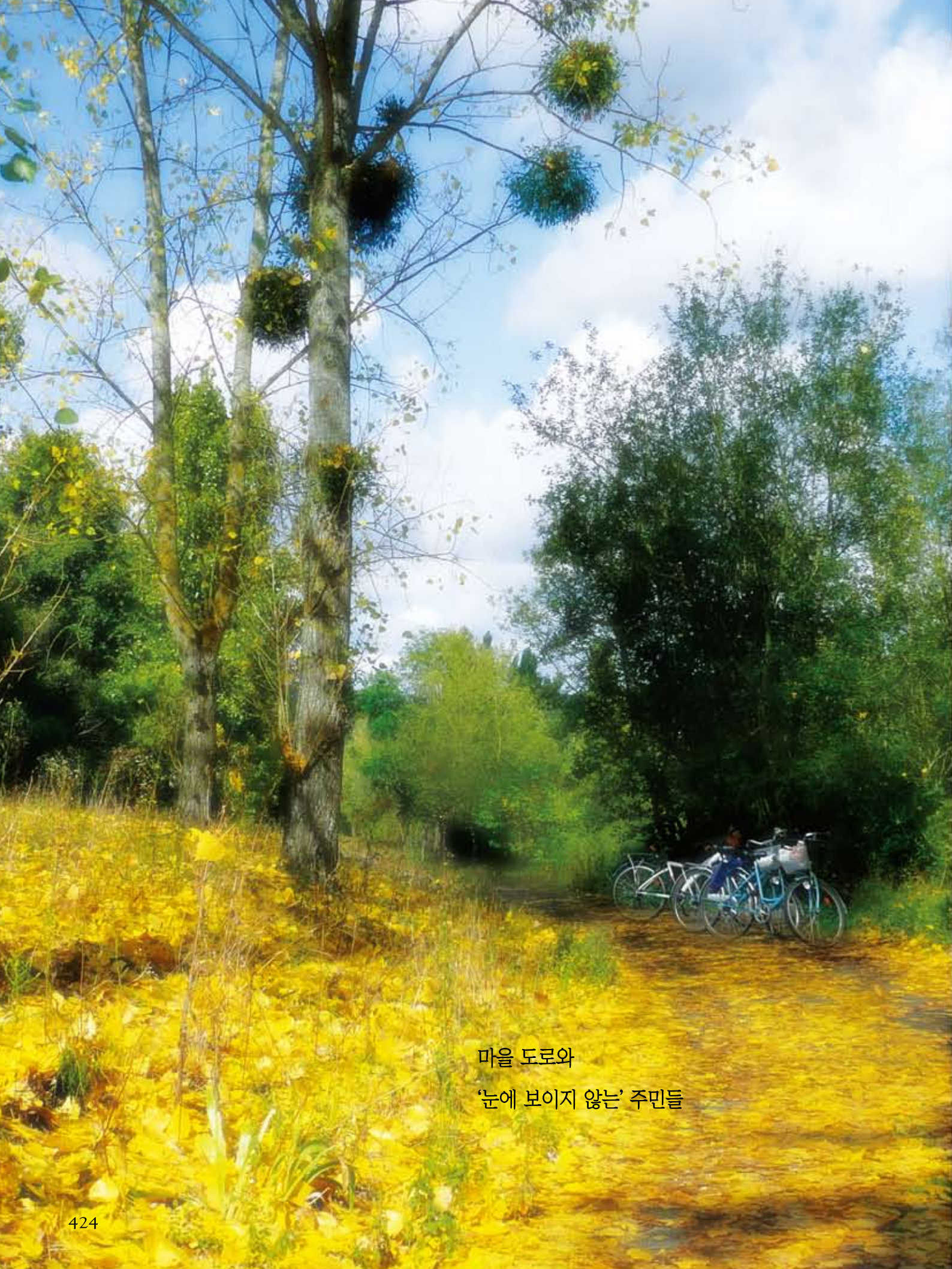
행동이 어설픈 두 발 주민과  
덩치가 큰 네 발 주민이  
한집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  
유리가 깨집니다!!!)







마을 도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민들



여사의 아담한 집



어떤 주민들은

‘고행’을 하고 있어요!= 맨바닥에서 자기!

(단..... 여름에만요.)





베개 싸움 할 사람?



아, 알았어!  
그냥 내가 알아서 쓸게.



백조 기다리기.  
아니면 오리나 다람쥐,  
아니면 새.....  
아니면 그 누구라도



다른 종류의 주인을 기다리는 중.  
(사실 다 비슷합니다.)

한가한 '활동'





나도 너와 똑같아.  
나도 시원한 바닥이 좋아.



동작 훈련 중???



아무라 마을의



나른한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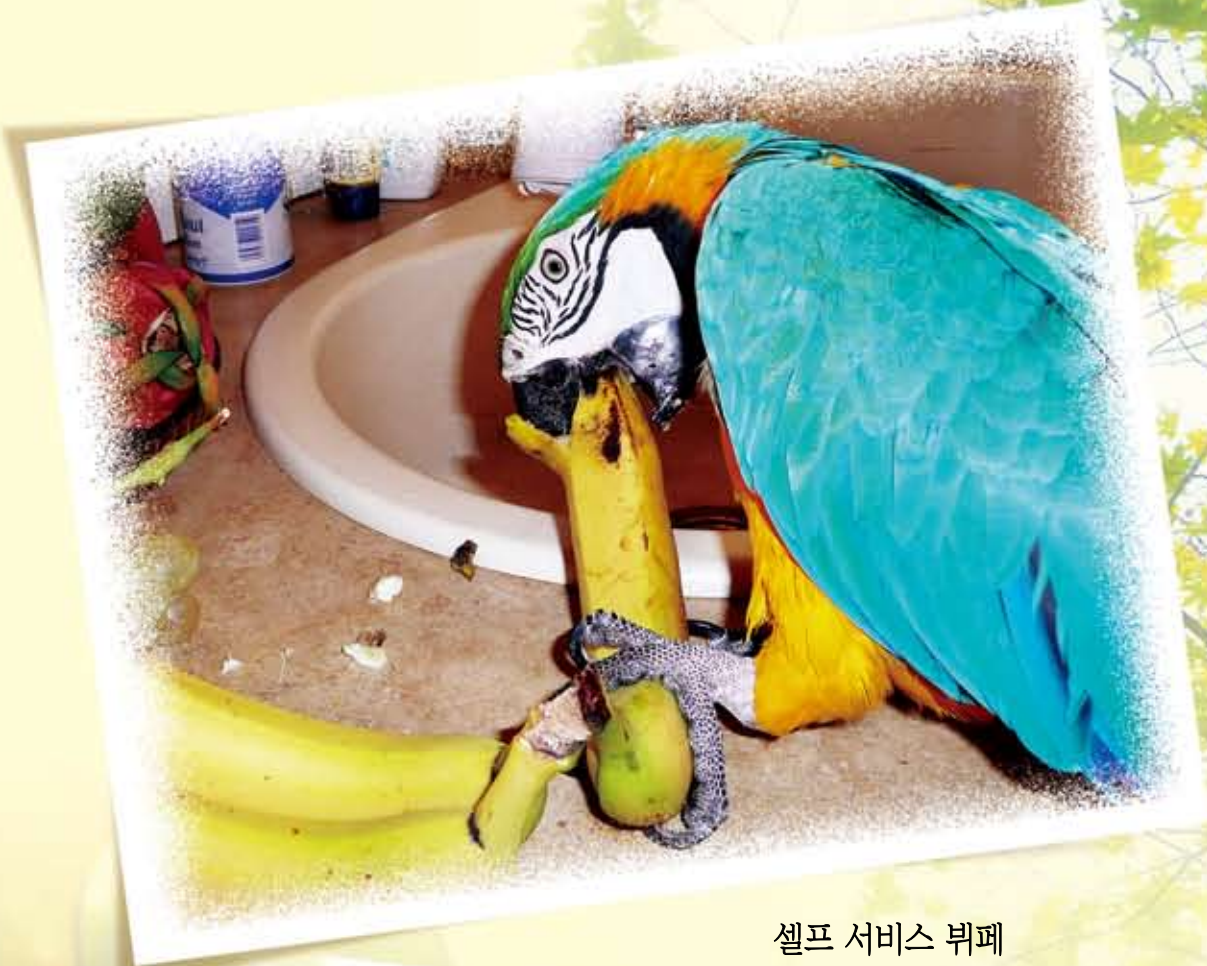






아무라의 금빛 아가씨들





셀프 서비스 뷔페





여사표 '수제 빵'  
(그녀는 케이크 뒤쪽에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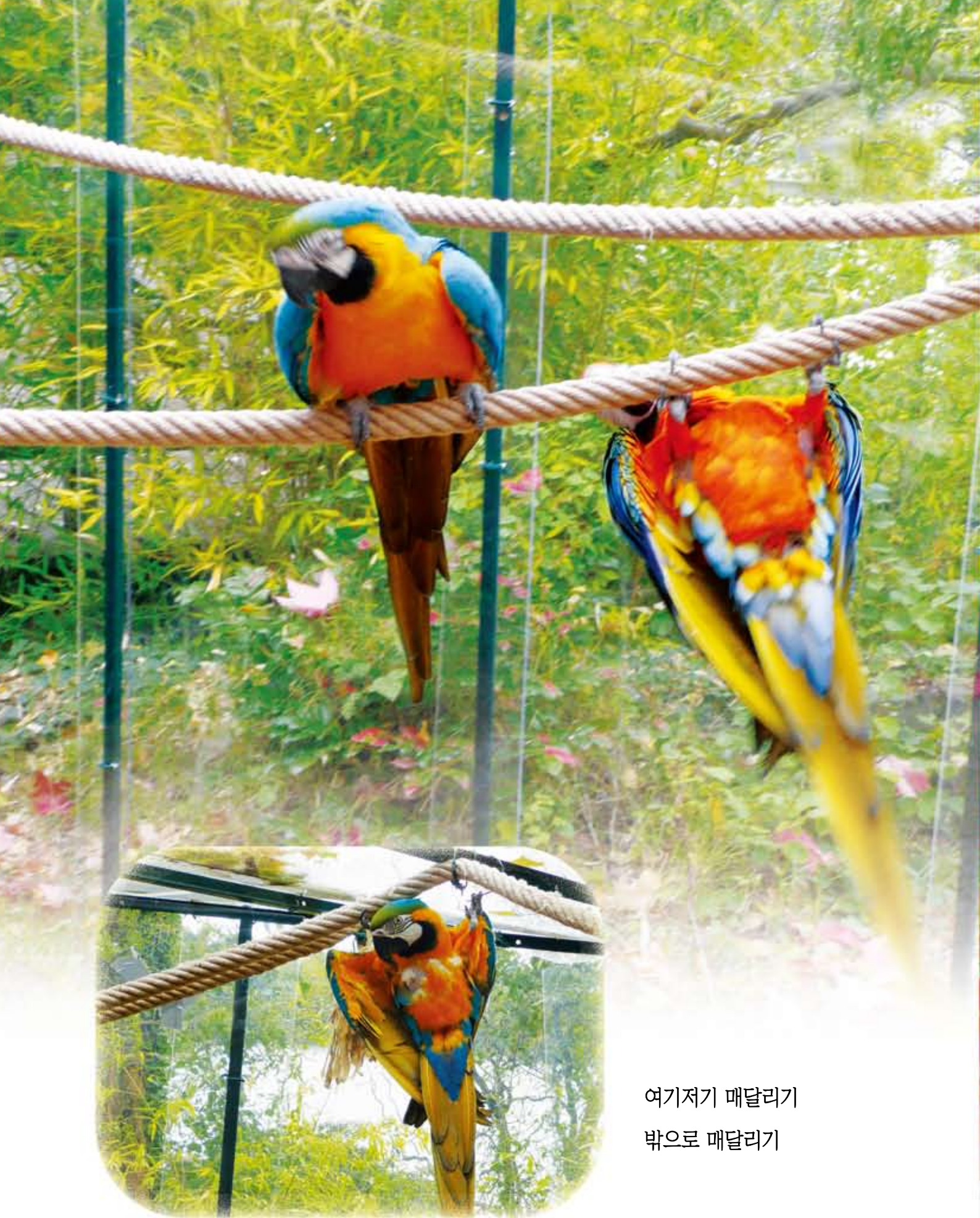
자는 척하는 거니

명상하는 거니?



자기 꼬리와 수다 떨기는  
시간 보내기 딱 좋은 취미.





여기저기 매달리기  
밖으로 매달리기



주위에 매달리기  
어떻게든 매달리기!





이런저런 수다 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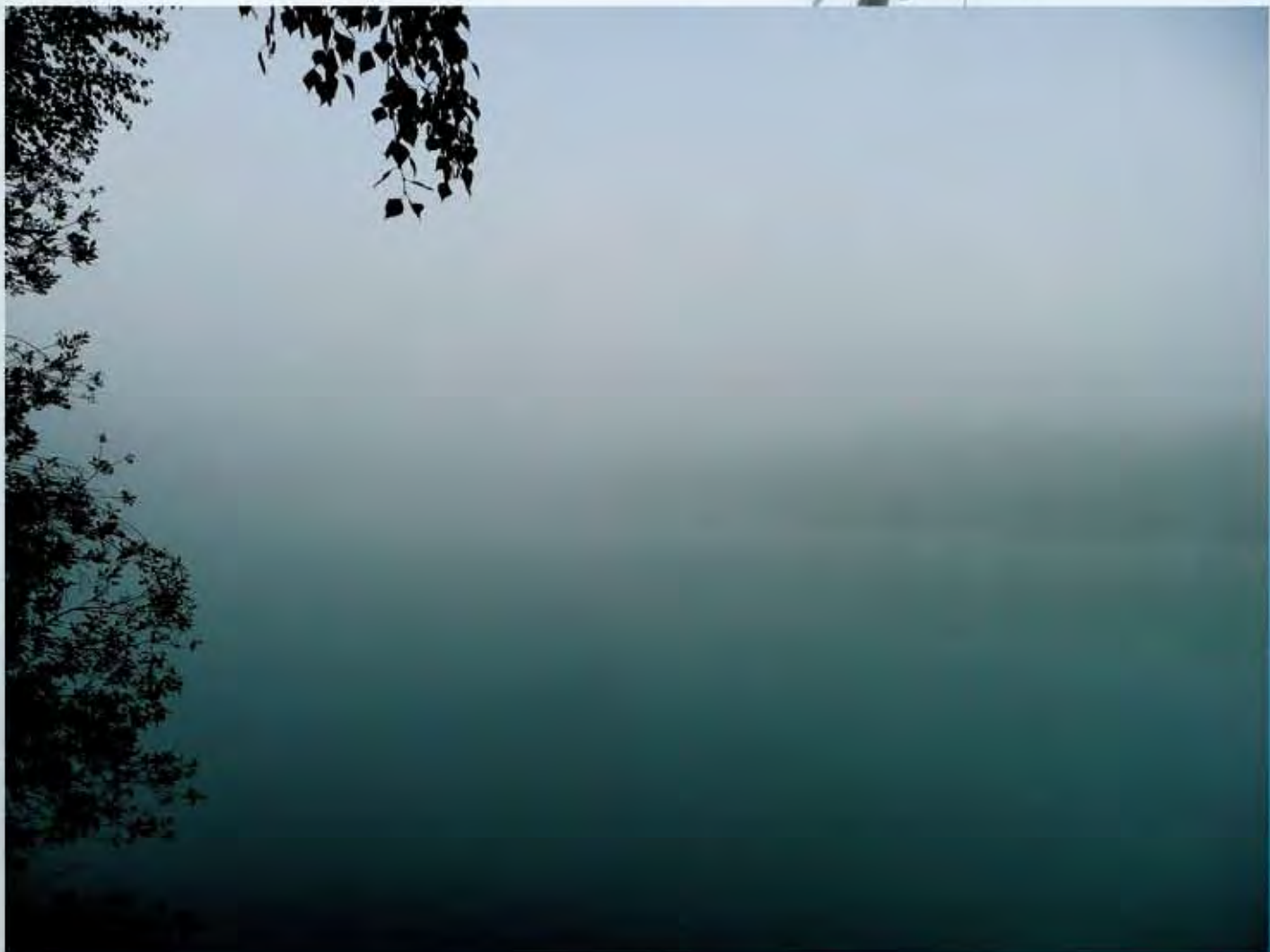


같은 여사의 아담한 집





여사네 집을 찾아온 안개



안개 나라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정원

# 우주적 연결





이 임신한 산양 ‘부(Bu)’는 산비탈에서 넘어  
져 울타리 뒤편의 도랑으로 떨어졌습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못 먹어서 아주 쇠약해져  
있었어요.) 여사는 부를 구해 내 먹을 것을 주  
는 한편, 부의 요청에 따라 그녀가 다시 자기네 무리

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의 보호자를 수소문했습니다. 부는 여사가 전화로 ‘보호자’일 것 같은 사람에게 꼬리표  
번호를 불러 주는 것을 건네 듣고 너무 흥분해 몸을 떨었습니다.

네 발 달린 주민들(개)은 하나같이 부에게 짖지 않았어요. (처음 봤을 때만 놀라서 딱 한 번 짖었지요.) 그들은  
부가 자기네 ‘영역’에 있는 내내, 절박한 상황에 처한 그녀가 겁먹지 않도록 아주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여사  
는 그들의 멋진 행동을 보고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에 수없이 전화를 한 끝에 부의 보호자를 찾아냈습니다. 보호자가 도  
착했을 때 부는 여사네 뜰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사의 조수들  
이 차에 태워야 했지요. 부는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여사를 계속 바라봤습니  
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여사는 부와 헤어지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는

사랑하는 ‘로(Ro)’와 재회하고 싶어했고, 또 거  
기 있는 게 더 행복하겠지요!



산양 부를  
데리러 온 보호자!

행운을 빌어, 부!

여사는 부의 보호자에게 돈을 좀 주고, 수의사를  
불러 부와 새끼를 잘 돌봐 주겠다는 다짐을 받았  
습니다. 보호자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도랑에서 빠져나와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는 부



다음날 오후 수의사는 우리에게 전화해서 부가 크게 다친 데 없이 괜찮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사는 수의사를 통해 보호자에게 부를 잘 쉬게 해주고, 많이 못 움직이게 하고, 자기네 무리끼리 우리에서 함께 지내게 해주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부는 도랑에서 굶주리는 동안 몸무게가 3킬로그램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엔 괜찮았어요! 부는 쌍둥이를 낳을 거예요. (부가 여사에게 ‘아이들’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우리는 수의사를 통해 부가 괜찮다는 소식을 알려 준 보호자에게 감사의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탁하긴 했어도 보호자가 그대로 해줄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여사는 부가 직접 알려 줘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수의사한테 확인을 받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 칭하이 무상사의 영적 가르침



## 즉각 깨닫는 열쇠

칭하이 무상사 강연집.

한국어(1-11), 독일어(1-2), 몽골어(1, 6), 스웨덴어(1), 스페인어(1-3), 어울락어(1-15), 영어(1-5), 인도네시아어(1-5), 일본어(1-4), 중국어(1-10), 태국어(1-6), 티베트어(1), 포르투갈어(1-2), 폴란드어(1-2), 프랑스어(1-2), 핀란드어(1), 헝가리어(1).

## 즉각 깨닫는 열쇠-문답록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 중 문답 내용 수록.

한국어(1-4), 독일어(1), 러시아어(1), 불가리아어(1), 어울락어(1-4), 영어(1-2), 인도네시아어(1-3), 일본어(1), 중국어(1-3), 체코어(1), 포르투갈어(1), 폴란드어(1), 프랑스어(1), 헝가리어(1).

## 즉각 깨닫는 열쇠 특별판/ 선철집

1992년 포모사 산디먼 선철 행사에서 하신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집. 어울락어, 영어.

## 즉각 깨닫는 열쇠 특별판/ 1993년 세계 순회강연집

1993년 세계 순회강연을 담은 6권 전집. 영어(1-6), 중국어(1-6).

## 사제지간의 편지

스페인어(1), 어울락어(1-2), 영어(1), 중국어(1-3).

## 즉각 깨닫는 열쇠-신기한 감응 (1-2)

어울락어, 중국어.

##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한국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 신과 인류의 이야기-성경 이야기를 통한 고찰

영어, 어울락어, 중국어.

##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칭하이 무상사의 지혜 만화집

한국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 후광이 너무 꼭 꺼요!-칭하이 무상사의 깨달음이 담긴 유머집

영어/중국어.

## 삶을 다채롭게

칭하이 무상사의 영적 가르침과 인용문 모음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 쉽게 수행하는 비결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평화의 길

1999년 유럽 순회강연 중에 하신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집. 영어, 중국어.

###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한국어, 그리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어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체코어, 터키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헝가리어.

### 황금시대의 생활 시리즈

#### 건강에 대한 깨달음-자연적이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 발췌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 감로법어(1)

스승님이 말씀하신 주옥같은 영원한 지혜.

한국어, 독일어/프랑스어, 스페인어/포르투갈어, 영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 감로법어(2)

스승님이 말씀하신 주옥같은 영원한 지혜.

영어, 중국어.

### 무상 주방-전세계 채식 요리

동수들의 전세계 추천 요리집.

어울락어, 영어/중국어, 일본어.

### 무상 주방-가정식

영어/중국어.

###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

1998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자선 콘서트에 소개된 음악과 인터뷰 모음집. 어울락어/영어/중국어.

### 칭하이 무상사 예술 창작집-회화 시리즈

그림을 보면 그 화가의 내적 자아가 보인다. 이 책에 담긴 해탈한 존재의 강렬한 애정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모성애가 큰 감동을 줄 것이다.

영어, 중국어.

### S.M. 천의집(6)

영어/중국어.

###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1, 2)

5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두 권짜리 책은 스승님이 당신의 반려견들의 멋진 실생활 이야기를 담아 출판하신 것이다.

한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폴란드어.

###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한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아랍어, 어울락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 고귀한 아생

한국어, 독일어, 몽골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 천상의 예술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 위기에서 평화로-유기농 비건 채식이 해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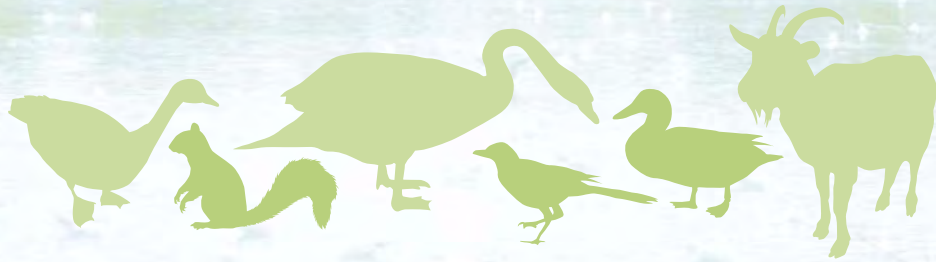
한국어, 노르웨이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말레이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태국어, 텔루구어, 헝가리어.

###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

아네즈 드르노프세크 박사의 저서.

중국어.

#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 침묵의 눈물

한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 무자시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 나비의 꿈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 전생의 발자취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 조약돌과 황금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 잃어버린 기억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 그 옛날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 천년의 사랑

한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 진정한 사랑

책과 MP4. 영어, 중국어.

##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책과 MP3, DVD, MP4. 중국어, 영어.

전생의 발자취 MP3(1, 2, 3). 어울락어.

사랑의 전설로 가는 길 MP3(1, 2, 3). 어울락어.

**시공을 초월하여** MP3, DVD, MP4. 어울락어.

**향기로운 손길** MP3. 어울락어.

**지난날과 지금** MP3. 어울락어.

**한밤의 꿈** MP3, DVD, MP4. 어울락어.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MP3. 어울락어.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MP3. 어울락어.

**칭하이 무상사 창작 가곡 모음집** MP3, DVD, MP4.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 사랑의 노래

칭하이 무상사가 시간을 초월해 사랑받는 노래들을 부르심. MP4. 어울락어, 영어.

### 보석 시집

MP3, DVD, MP4. 칭하이 무상사가 어울락의 저명한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노래하고 낭송하심.

### 황금 연꽃

MP3, DVD, MP4. 어울락어 시 낭송.

### 고대의 사랑

MP3, DVD, MP4. 어울락어 시 낭송.

### MP3와 DVD, MP4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음악·콘서트가 담긴 MP3, DVD, MP4는 다음 언어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광둥어, 그리스어, 네덜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말레이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리즈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어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줄루어, 중국어 간체·번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등. 카탈로그를 요청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언제든 바로 문의 주세요.

우리 서점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http://www.theCelestialShop.com>

에덴 동산 <http://www.edenrules.com> (중국어)

또는 다음 주소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전화: (886) 2-23759688

팩스: (886) 2-23757689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mailto: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 무료 견본책자 다운로드

즉각 깨닫는 열쇠 무료 견본책자 다운로드 (80개 언어)

<http://sb.godsdirectcontact.net>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 주요 연락처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O.Box 9, Hsihu, Miaoli Hsien, Formosa (36899),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수프린 마스터 텔레비전

이메일: [peace@SupremeMasterTV.com](mailto:peace@SupremeMasterTV.com)  
전화: 1-626-444-4385 / 팩스: 1-626-444-4386  
<http://www.suprememastertv.com/>

###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mailto: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2-2375-9688 / 팩스: 886-2-2375-7689  
<http://www.smchbooks.com>

### 경서 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mailto:divine@Godsdirectcontact.org)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mailto:lovenews@Godsdirectcontact.org)

###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mailto:lovewish@Godsdirectcontact.org)

### 온라인 상점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영어)  
에덴 동산: <http://www.EdenRules.com> (중국어)

### S.M. 셀레스티얼 주식회사

이메일: [smclothes123@gmail.com](mailto:smclothes123@gmail.com), [vegan999@hotmail.com](mailto:vegan999@hotmail.com)  
전화: 886-3-4601391 / 팩스: 886-3-4602857  
<http://www.sm-cj.com>

### 러빙허트 인터내셔널

이메일: [info@lovinghut.com](mailto:info@lovinghut.com)  
전화: 886-2-2239-4556 / 팩스: 886-3-2239-5210  
<http://www.lovinghut.com/tw>  
<http://www.lovinghutfood.com/tw>

###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mailto:chinghaikpt@yahoo.co.kr)  
전화: 054-535-9251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chinghaiyd@naver.com](mailto:chinghaiyd@naver.com)  
전화: 054-532-5821 / 팩스: 054-532-5822  
(해피요기·SM 보석·천의·만세등·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비건 채식을 하고  
평화를 이롭시다

####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와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이나 인쇄용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독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 대안적인 삶 Alternative Living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음식을 바꾸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생명을  
구해 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해요



더 이상 죽이지 마세요  
건강해지고 사랑을 베푸세요

영양이 풍부하고 생명을 구하는 음식의 예:

음식	단백질 함량 (중량 백분율)
두부 (원료: 콩)	16 %
글루텐 (원료: 밀가루)	70 %
옥수수	13 %
쌀	8.6 %
대두, 강낭콩, 병아리콩, 렌즈콩 등	10 - 35 %
아몬드, 호두, 캐슈너트, 헤이즐넛, 잣 등	14 - 30 %
호박씨, 참깨, 해바라기씨 등	18 - 24 %

- 농축 종합 비타민 정제/캡슐 또한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 성분을 두루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 과일과 야채는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 성분이 풍부하며, 고품질의 섬유질이 들어 있어 건강 유지와 장수에 좋습니다.
- 일일 단백질 권장량 : 50그램 (일반 성인 기준)
- 식물성 칼슘은 우유의 칼슘보다 흡수력이 더 좋습니다.

- 조류독감으로 인한 전세계적 유행병의 실질적인 위협을 줄이려면,
- 광우병 및 돼지 질병(PMWS 증후군) 등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축들, 해양 생물, 조류 친구들이 매일 수십억씩 계속해서 끔찍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으려면,

평생 채식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 채식은 건강입니다
- 채식은 경제입니다
- 채식은 생태입니다
- 채식은 자비입니다
- 채식은 평화입니다
- 채식은 숭고합니다

여러분  
장수하세요!



다들 잘 부탁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대안적인 삶 홈페이지 ([www.GodsDirectContact.or.kr/al](http://www.GodsDirectContact.or.kr/al)), E-Mail: [AL@GodsDirectContact.or.kr](mailto:AL@GodsDirectContact.or.kr)  
생명사랑 채식실천협회 ([www.bevege.or.kr](http://www.bevege.or.kr)), 한국 채식연합 ([www.vege.or.kr](http://www.vege.or.kr))

건설적인 프로그램만 방송하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여러분 삶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 드립니다.

전세계에서 시청 가능한 24시간 인터넷 TV 생방송: [www.SupremeMasterTV.com/kr](http://www.SupremeMasterTV.com/kr)

#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Kingstone.com 베스트셀러! (중문판)

칭하이 무상사 지음

영문판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은 아마존닷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http://www.amazon.com/dp/9866895149/>



아름다운 일러스트로 구성된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통해 칭하이 무상사는 우리를 동물들의 내면세계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그들 또한 우리에게 주저없이 마음을 열 것이다.

참으로 멋진 이 책의 각 페이지에는 사랑과 조화로움이 흐르고 있다. 칭하이 무상사는 우리로 하여금 동물이 매우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신다. 정말 놀라운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은 인간의 좋은 친구이다. 모든 분이 이 경이로운 책을 읽어 보시길 바란다.

집으로 배달된 책에서 각 페이지마다 흐르는 사랑을 경험해 보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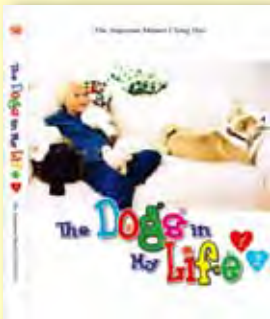
##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THE BIRDS IN MY LIFE)』의 작가

Kingstone.com 베스트셀러! (중문판)

#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The Dogs in My Life



다른 언어로도  
곧 출판됩니다.

새로 출간된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1, 2)』은 칭하이 무상사가 직접 애정을 갖고 쓰고 디자인한 첫 번째 출판물이다. 이 책에서 독자들은 Benny, Lucky, Happy, Goody, Hermit 등의 이름을 가진 10마리 개 친구들이 보여 주는 사랑의 소박함, 진실된 우정의 기쁨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학자, 과일광, 새침떼기 공주, 칩 어호이, 그림자 사냥꾼 등등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의 사연을 들어 보시길. 그들 모두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반려인'에 대한 헌신은 절대적이다. 그들의 유머와 지성, 다른 많은 고귀한 품성들은 진실로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을 읽어 보세요. 지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들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영문판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은 아마존닷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The Dogs in My Life(1) <http://www.amazon.com/dp/9866895076/>

The Dogs in My Life(2) <http://www.amazon.com/dp/9866895084/>

“독자들이, 개들이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보고, 또한 그들을 통해 다른 존재들에 대해 좀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칭하이 무상사



# 고귀한 야생

펴낸곳: SM출판사

주소: 경북 상주시 모서면 호음3길 205번지

전화: (054) 535-9251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웹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출판 신고: 제511-5110000251002006000002호 2006년 3월 7일

이 책의 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출판사의 사전 허락을 얻으면 이 출판물의 내용을 복제해도 좋습니다.



## 『고귀한 야생』 독자 서평

**말릭 나시르/ 파키스탄 독자:**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 사람이고 말릭 나시르라고 합니다. 『고귀한 야생』을 읽었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특히 그림이 마음에 들었어요. 칭하이 무상사는 최고의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란치멕/ 몽골 독자:** 이 놀라운 책은 우리 인간이 몰랐던 동물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보여 준다.

**우간바야르/ 몽골 독자:** 이 책을 읽으면 내면의 평화와 위안을 얻고, 살아 있는 모든 존재와 지구의 대자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얻게 된다. 그 덕분에 더불어 사는 존재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미리안 타카하시/ 브라질 독자:**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의 미리안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갖고 있는 이 책을 읽었을 때 정말 좋았어요. 멋진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또 직접적인 언어가 마음에 듭니다. 그 언어가 아름다운 이미지에 반영돼 있습니다.

**탕샤오위/ 포모사 행정원 농업위원회 토종 생물종 조사 연구소 소장:** 몇 년 전, 지구 온난화가 야생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유엔이 제기한 경고를 돌이켜 보자. 그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나는 야생 동물의 멸종 속도가 늦춰지기보다는 빨라졌다고 생각한다. 이들 야생 동물종은 태초부터 지구에서 살아왔다. 인류와 동물, 식물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우리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의 생태계가 사라지거나 변성하는 것은 확실히 다른 동물종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나는 지구 온난화가 매우 큰 경종이며 전 세계가 이를 심각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대단히 훌륭하다. 이 책은 인류에게 야생 동물을 보호할 것을 호소한다. 나는 또한 칭하이 무상사가 지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환경을 보호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길 바란다.

\*~\*

## 『고귀한 야생』에 관한 아마존닷컴 독자 서평

**독자 C. R. 톨미나로:** “정말 가슴을 녹이는 책이다. 사진들은 낭만적이고 야생 동물이 가진 깊은 사랑을 전해 준다. 그 행동들은 우리가 자주 목격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이며, 아름다운 시와 짝을 이뤄 진정한 부드러움을 확연히 보여 준다. 사랑으로 가득한 치유와 구원의 책이다!”

**임마누엘/ 프랑스 파리:** “매우 놀랍고 섬세하며 이전에는 몰랐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심오한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 주는 것 같고, 완전히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이는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인간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짐/ 미국 캘리포니아:** “책을 펼칠 때마다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위안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놀랍고도 상쾌한 책이다. 내가 백조와 호수, 숲, 야생 동물들 옆에 있는 것처럼 아주 즐거웠다. 너무나 멋진 사진들 덕분에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미국의 대학 교수:** 칭하이 무상사가 쓰고 사진을 찍은 『고귀한 야생』은 환경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시대를 맞아 대안적인 자비로운 생활 방식의 본모기를 보여 준다. ‘인간은 왜 이 놀라운 존재들과 평화와 사랑, 조화 속에 살 수 없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슈통/ 포모사(대만):** “백조 가족의 삶을 기록하는 건 아주 흥미로운 일이다. 특히 백조가 우리처럼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러니 동물은 우리와 똑같은 것이다.”

**남아프리카 독자:** “『고귀한 야생』을 읽은 뒤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존재들을 보내 사랑과 존엄으로 서로를 대하도록 깨우치신 신의 놀라운 의도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다.”

**수메이팅/ 중국 독자:** “이런 고귀한 야생 동물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건 대단히 큰 축복이다. 강력 추천한다!”

**캐나다 독자:** “여기에는 깊은 연결이 있다. 지금 내 세계에 있는 자연이 더욱 생기가 도는 것 같다.”

**익명의 독자:** “마음을 열고 저자가 이끄는 대로 그녀의 여정에 동참하게 된다면 저자와 마찬가지로 사랑과 존중, 존경의 마음으로 동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

**영국 독자:** “동물의 왕국, 모든 동물에 대한 가슴 뭉클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느꼈다. 또 다른 보석을 세상에 선사하신 무상사께 감사드린다!”

**독자 마가렛:** “별 다섯 개짜리! 여사와 이 고귀한 야생 동물들 간의 사랑에 감동받았다. 이 놀라운 책은 동물의 내면세계로 향하는 창을 열어 준다. 모두에게 강력 추천한다.”

**수 사랑/ 포모사(대만):** “이 책은 내게 있어 신의 선물과 같다.”

**독자 ‘행복한 새’:** “『고귀한 야생』은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다. 동물은 지구 행성에서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진지하게 고려될 만한 자격이 있다. 인류 외의 다른 존재들의 지각 능력과 타고난 가치, 느낌을 인식하고 동등하게 배려해야 하며, 야생과 동물을 사랑과 배려, 자비심을 갖고 보존하고 다루어야 한다.”

**왕/ 동물 보호자:** “사람들은 IQ(지능지수)와 EQ(감성지수)에 대해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NQ(고귀한 품성)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이 책 『고귀한 야생』에서 저자는 NQ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부 동물들이 타고난 사랑 때문에 NQ가 더 높은 이유에 대해 독자들에게 말해 준다.”

**미국 애틀랜타의 독자:** “어른과 어린이 모두가 읽어도 재미있는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난 뒤 이 야생의 피조물들을 통해 신의 사랑을 느꼈다.”

**줄리/ 미국 플로리다:** “이 멋진 책을 읽고 나서 나에게도 아름다운 동물 이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이 이웃집에 있든, 가까운 공원이나 호수에 살든 간에 말이다. 이 책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말로도 묘사할 수가 없다. 직접 읽어 봐야만 안다.”

**데니스 플로레스/ 브라질:** “칭하이 무상사가 보여 주는 세상은 어쩔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저자의 모든 메시지와 말은 아주 명확하면서 동시와 대단히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며, 우리 모두 계발할 수 있다고 믿는 품성을 반영한다. 이런 멋진 책을 선택한 것에 아주 만족스럽다.”

**독일의 비비안:**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 가장 문명화된 존재라고 부르짖는다. 하지만 동물의 형태를 가진 이 고귀한 영혼들을 보라. 우리는 경의를 바쳐야 한다. 그들로부터 배우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들이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해 신께 감사드린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독자:** “매끄러운 마감 커버와 뛰어난 품질을 갖춘 페이퍼백 책. 저자의 솜씨는 정말 뛰어나다. 소박한 문체로 많은 보살핌과 사랑을 전한다……. 그리 완벽하지 않은 하루를 보냈다면 이 책이 기운을 북돋아 줄 것이다.”

**말레이시아 독자:** “친구한테 이 책을 빌려 봤는데 정말 매력적인 책이었다. 화랑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수백 장의 자연 사진과 감동적인 말이 담겨 있다. 이 책은 여러분을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며 여러분의 영혼에 위안을 준다!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진정한 선물이다.”

**존 필립/ 캐나다 온타리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TV에서 자연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백 편도 더 봤지만 이 『고귀한 야생』이라는 책에 나타난 내용들에 대해선 접해 본 적이 없었다. 이 책에서 칭하이 무상사는 그녀 자신이 특정 동물들과 함께한 멋진 체험을 선사한다. 이 동물들은 그녀에게 차츰차츰 신뢰를 보내기 시작해 결국엔 자신들의 ‘비밀’을 알려 주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종종 동물을 ‘하위 종(種)’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는 이것이 꽤나 매혹적으로 여겨졌다. 271페이지의 경우, 백조 부모가 자신의 깃털을 뽑아 새끼들이 발을 다치지 않도록 큰 ‘카펫’을 만든다. 아빠 백조는 너무 많은 깃털을 뽑아낸 탓에 한동안 날 수도 없었다! 이 얼마나 큰 희생인가! 나는 저자가 우리에게 애완동물뿐 아니라 자연의 모든 존재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 주고자 한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을 비롯해 우리 대부분은 또한 돈과 물질에 대해선 많이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과 가족, 우리 주변의 관계에 대해선 잊어버리곤 한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동물들이 내게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이전보다 더 자연을 존중하게 되었다. 많은 시간과 인내심으로 이 ‘자연 일지’를 만든 칭하이 무상사께 감사드린다.”

……내가 야생 동물과 나눈 교류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기회에 일부만 말할 수 있을 뿐이지요. 말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때 조금 얘기 합니다.

동물들은 여러분의 보살핌에 고마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기꺼이 돕고자 하며, 여러분 삶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마음이 통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통을 매개로 해서 다른 동물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되지요.

~칭하이 무상사

